

향토문화자료 5

내고장 옛 이야기

홍순석 · 이인영 엮음

용인문화원

내용누락

p. 1-4

차 례

※ 발간사.....	문화원장 金正根	1
※ 책머리에		3
제 1 부 전설(傳說).....		9
I. 전설에 담긴 내고장 산천.....		11
내 영혼 남의 육신.....		11
원님의 명판결.....		16
고림리의 조산(造山) 전설.....		19
구봉산(九峰山) 전설.....		20
부아산(負兒山)과 먹조현(覓祖峴).....		21
열너비 고개.....		23
메주 고개의 유래.....		25
염치(監峙) 고개.....		27
원수고개.....		31
좌전고개의 유래.....		33
용덕사의 용굴.....		35
허적이굴에 얽힌 이야기.....		37
쌍령산(雙嶺山) 구들 바위와 신침(神針).....		41
선돌뱅이 바위.....		43
야기장수와 용마바위.....		45
행상(行喪) 바위.....		47
짚바위.....		49

앞뒤 방향을 바꾼 미평리 소바위·····	51
언청이가 된 미록·····	52
허리굽은 느티나무·····	54
시공산 허수아비 전설·····	55
정암(靜庵) 선생과 손님마마·····	56
II. 지명(地名) 이야기·····	59
김량장(金良場)의 유래·····	61
돌무데기 전설(1)·····	63
돌무데기 전설(2)·····	64
오방난골의 유래·····	66
거부가 살던 돌꽃이·····	68
담안뜸·····	69
안개 동굴·····	70
해골의 유래·····	72
잔다리·····	74
탄천(炭川)과 동방삭(東方朔)·····	75
어비리와 어윤중(魚允中)·····	77
몽고 장수와 사장터·····	79
마귀성과 편돌·····	82
III. 묘소·명당(名堂) 이야기·····	85
포은 선생의 묘소에 얽힌 유래·····	87
고 장군 묘소의 전설·····	90
우생원지묘(牛生員之墓)·····	91
창두봉의 명당자리·····	93
포곡면 신원리의 명당 자리·····	96
지장실의 명당자리·····	98

IV. 효행(孝行) 이야기	101
효부(孝婦) 이야기(1)	103
효부 이야기(2)	105
효부 이야기(3)	107
아들의 목을 자른 효자	109
호랑이의 도움받은 효자 김상술(金相述)	113
호랑이도 감복한 김진사의 효행	116
송지겸(宋之兼)과 정문동	118
효자 어운해(魚運海)	120
노비 이상(李尙)의 효행	123
충노(忠奴) 무작금(無作金)	125
제 2 부 전래동화(傳來童話)	127
학동어사(學童御使)의 판결	129
용인에 와서 무릎꿇은 죽산 자린고비	132
재치있는 어린신랑	134
둔전 갑부의 의리	136
범인은 남편 친구	138
감투 쓰고 소가된 농부	142
돌이와 두꺼비	145
은혜 깊은 사동(巳童)	148
미륵뜰 사람도 먹은 공은 안다.	151
안수버니(숲원어)의 땅에 물이 많이 나는 이유	153
장에서 바뀐 사돈	155
명운일랑 북대로 누러라	159
옛날 이야기로 도적 쫓은 부부	163

	머련한 놈들의 피.....	166
	피륙 먹은 절구통.....	168
제 3부	야담(野談)	171
	남이(南怡)와 귀신.....	173
	남도 유생과 화도화(花桃花).....	177
	남은(南闡)의 이불 속에 숨었던 유정현(柳廷顯).....	180
	양파 정선생의 예언.....	183
	박원형(朴元享)의 사돈된 녹사(錄事)	187
	이완(李浣) 대장과 방울장사	191
	핑 덕에 출세한 이주국(李柱國).....	195
	맹정승과 황의헌(黃義軒).....	199
	맹정승과의 공문공답	201
㉮	자료 제공자 명단.....	204

제 1 부 전설(傳說)

여 백

Ⅰ 전설에 담긴 내고장 산천

여 백

내 영혼 남의 육신

생년월일이 똑같은 추천석이 용인과 진천에 각각 살고 있었다. 용인 추천석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은 저승 사자가 잘못하여 진천 추천석의 영혼을 데려 갔다. 육신이 바뀌어 되살아난 진천 추천석은 고을 원의 심판으로 용인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 생거진천 (生居鎭川) 사거용인(死居龍仁) > 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전설이다.

부자로 살다가 죽어도 한이 남는 인생인 것을 가난한 농부로 태어난 진천의 추천석이는 슬하에 너댓 되는 자녀를 두고 아낙과 함께 고생하면서 나날을 살았다.

어느날 예고 없이 찾아온 저승 사자는 그의 영혼을 거두었다.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던 추천석은 자기 가정의 딱한 사정을 호소해 보았으나, 천명을 여길 수 없다는 물인정한 사자에게 이끌리어 염라대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묘하게도 이름과 생년, 월, 일, 시가 똑같은 추천석이 용인에도 살고 있음이 밝혀 졌으며, 이번에 잡혀가야 할 추천석이는 진천이 아니고 용인 쪽이었기 때문에 더 살아야 할 진천쪽의 영혼은 돌려주었다. 영혼이 이승으로 되돌아 오기는 했으나 그 육신은 이미 땅에 묻어버린 후였다. 한편 용인의 추천석은 단천군수로 뽑혀 부임할 차비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그날 밤 저승 사자가 찾아 왔다. 호사다마라고 할까? 부유한 용인의 추천석이 하필 단천군수로 부임하기 전날 이승을 떠야야 했으니, 잘사나 못사나 미련 많고 억울 하기는 매 한가지였고, 이렇듯 한치 앞도 못보고 사는 인생들의 삶 이란 모두가 덧없고 무상한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용인의 혼백이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이르렀을 즈음 육신이 없어 전전긍긍 하던 진천의 혼백은 하는 수 없이 용인 추천석이의 육신이라도 얻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용인 추천석의 집안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 난 것으로 밖에 알 도리가 없었으므로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다. 용인은 진천의 영육이 합쳐진 제 3의 추천석이가 정신을 차렸으나 집설고 낫설은 부갓집 영감 행세라는게 여간 힘들고 무리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자식도 아내도 생면부지인데다가 할 일 없이 놀고 먹기란 여간한 고역이 아니었다. 견디다 못한 추천석은 그간의 경위를 털어 놓고는 대문 밖을 내달아 진천 집으로 향했다. 곧이어 용인의 가솔도 하인 등속을 거느리고 이의 뒤를 따라 갔고, 진천에 당도한 추천석은 이길 저길을 골라 가다가 어느 담 모퉁이를 돌아서 한 작은 오두막 집에 당도했다. 사립짝을 밀치고 들어선 그는 그집 아낙을 붙잡고 자기가 남편이고 그러저러해서 다시 살아왔다고 하였으나 믿지 않았으므로 자기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증명해 보였다. 들어보니 한마디도 틀리지 않았고 남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아낙의 몸 구석구석의 특징까지 말하는 것등으로 보아 반신 반의 할 수 밖에 없었다. 양쪽 집에서는 하는 수 없이 고을의 원님에게 송사하였다. 과연 추천석은 누구의 남편 이어야 하며 어느 쪽에서 살아야 할까? 원님은 추천석이의 진술을 들었고, 또 양쪽 집에서 하는 말 들이 진술 내용과 일치 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영혼을 데려 갔다는 저승 사자와 염라 대왕의 진술을 듣지 않고는 재판이 불가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추천석에게 그날 왔던 사자와 그가 본 염라대왕을 데려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인간이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일 만은 불가하다고 말하자 원님은 말하였다. 모든 사람은 들으라 추천석이가 저승엘 갔다 왔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승에는 이승의 법도가 있는 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 육신이 죽고 사는 것으로 판

가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 지금의 너는 진천의 추천석이가 아니라 용인의 추천석이 분명하다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추천석은 용인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었다. 육신의 주인은 마음ियो, 그 정신이 육신의 주인이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죽어 썩어버릴 육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세상을 살 수 밖에 없었던 추천석을 두고 살아서는 진천이 좋았고, 죽어서는 용인이 좋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생거진천(生居鎭川) 사거용인(死居龍仁)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1980 3 4 이동면 서리
박 광택(45세, 남, 농업)

월님의 명판결

〈생거진천 사거용인〉의 유래에 관한 이설(異說)으로써, 전자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의 영혼이 바뀌어간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삶을 바탕으로 한 가능성에 접근 시키려 했던 전설이 아닐까 생각된다.

용인현 어느 마을에 흥침지가 살았다.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가세는 궁했으나 아낙과의 금슬이 좋아서 이웃들로부터 가끔 의종다는 칭송도 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더니만 급기야 세상을 떠났다.

남편을 여윈 아낙은 아들 하나와 근근히 살았으나 끝내는 자식을 버리고 진천땅으로 개가해 갔다.

천에 고아가 된 그의 아들 용삼이는 문전 절식을 하다가 어느 양반댁 머슴으로 들어가 성장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댁의 외아들이 중병이 들어 백방으로 구환 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하루는 어느 대사 한 분이 그 앞을 지나다가 우환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병에는 산삼과 웅담이 특효라고 알려준다.

용삼이는 주인댁의 은혜를 갚기 위해 금강산 깊히 들어가 우연히 삼백여년이나 된 산삼을 구하였고 새 알을 꺼내 먹으려는 꿈을 죽여 웅담을 얻어 돌아온다.

이 두가지의 약 효험이 나타나 죽어가는 양반댁 도련님을 살려 내게되고 또 양반댁에서는 용삼이를 은인이라 생각하여 전답을 떼어주

고 장가를 들어 주었다.

이렇듯 자수성가는 하였으나 철이 들수록 진천으로 재가해 간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었음으로 하루는 이웃 친구에게 어머니의 안부나 알아 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길을 떠나 보냈다.

용삼이 어머니는 진천으로 개가 하여 그곳에서 아들 하나를 더 낳고 살았는데 마침 심부름간 사람이 진천에 당도하던날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을 듣게된 용삼이는 기왕지사 지나간 일은 어떻게 되었든 어머니의 시체라도 거두어 마지막 가는 길이나마 자식된 도리를 하리라고 마음먹고 행장을 꾸려 부랴부랴 길을 떠났다.

거기에 당도 했을때는 이미 상어를 꾸며 발인하기 직전이었다.

이 죽음이 자기를 버린 어머니의 죽음이거니 생각하자 응어리졌던 갖가지 설움이 복받쳐 나왔기로 목놓아 방성대곡하였다.

그곳 진천 사람들은 낮 모르기는 하나 문상객이 와서 성심껏 울어주는 성의가 고맙기도 하고, 또 송구스럽기도 하였음으로 오히려 상주 쪽에서 울음을 그치라고 등을 쳤다.

한참 울기를 마친 용삼이는 자신이 울어야 했던 내력을 말하면서, 당신과 내가 아버지는 서로 다름망정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으니, 나로 말하자면 이 어머니의 딸아들 격이므로 장자된 도리로써, 또한 상주의 자격으로 장례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용인으로 장사를 모시겠다고 제의 했다.

그러나 그곳 상제 측에서 생각해 볼때는 어물쩍하다가 어머니의 시체를 빼앗길 판국이었다.

가자커니 앓된다 커니 티격태격 하다가 장례날 먹살잡이가 일어났으니 죽은 어머니의 혼백이 알았다면 어찌 구천엔들 편히 갔겠는가?

그럭 저럭 몇날 동안이나 장례를 치루지 못하다가 결국 그 고을의 원님에게 송사 하기에 이른다.

원님은 양쪽 사람들의 두 입장이 다같이 옳은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골머리를 앓다가 묘한 생각이 떠올랐다.


원님은 양쪽 아들을 불러 놓고 일렀다. 어미의 생시에는 진천 아들이 모셨으니 죽은 다음에는 용인의 딸 자식이 모시게 하는 것이 당연하니 비록 아버지는 다름 지라도 의중계 봉제사나 하라는 판결이었다

이런 연유로 하여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생거진천 사거용인> 하라는 말이 생긴것 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1972. 4. 용인읍 김량장리
구 지역(전 용인구역장)

고림리의 조산(造山) 전설

용인읍 고림리 단사에 있는 산으로, 사람의 힘으로 일부러 만든 산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동면 덕성리의 '담안뜸' 과 원삼면의 '돌꽃이 전설'과 같은 모티브로, 같은 군 내에서의 설화의 변이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옛날에 고림리 단사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다. 워낙 부자인지라오는 사람마다 들려 음식을 얻어 먹곤 하였다. 매일 같이 하루에도 손님을 백여명씩이나 치러야했던 부자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물릴 수 있을까 궁리하였다. 마침 시주승이 들렸다. 부자는 그 시주승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고 그 대책을 물었다. 시주승은 부자집 ^{뒤에다} 뒤쪽 먼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산을 만들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을 만들 때는 사람을 사서 하되, 흩한 지계에 쌀 한 그릇, 장 한 그릇씩 주며 3년간 쌓아야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부자는 그날로 인부들을 사서 일을 시작하였다. 산이 거의 다 이루어질 쯤에서야 부자는 시주승의 뜻을 깨우쳤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가산이 거의 탕진된 상태였다. 가산이 없으니 손님이 찾아올리는 없었다. 부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부끄럽게 여겨 아무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때 쌓은 산을 일부러 만든 산이라고 해서 조산으로 부르며, 부자의 어리석음을 교훈으로 여기고 있다. 

1978. 6. 12 용인읍 고림리 단사

이 홍상(59세, 남, 농업)

구봉산(九峰山) 전설

구봉산은 용인군의 원삼면, 외사면, 그리고 안성군의 고삼면의 분기점이 되는 산으로, 용인군내의 산 중에선 높은 산에 해당한다. 예로부터 산세가 뛰어나 신령스런 산으로 여겨졌다. 봉우리가 9개라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한양에 도읍지를 정하기전의 일이라 한다. 도읍지를 정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하여 전국 각지의 명산을 모두 알아오라고 하였는데, 이때 구봉산도 그 가운데 끼어 있었다. 여러 대신들의 논의 끝에 서울의 삼각산, 공주의 계룡산, 용인의 구봉산이 일차적으로 선정되었다. 대신들은 이 세 산을 직접 찾아가 산세를 파악하였는데 구봉산은 신령스러운 산으로 찾아온 대신들도 감복하였다. 최종적으로 삼각산과 구봉산이 선택되었는데 감히 인력으로선 선택할 만한 일이 아니라서 도사의 힘을 빌고자 하였다. 그랬더니 어느 도사는 두 산 가운데 봉우리 100개를 먼저 만드는 산을 도읍지로 정하면 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때 구봉산의 산신령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봉우리를 만들기 시작하여 100개를 모두 만들었다. 삼각산 산신령은 한 봉우리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었다. 구봉산 산신령은 급히 알리고자 서둘렀다. 그런데 웬일인가.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퍼부어 봉우리 하나를 뭉개버리고 말았다. 구봉산 신령이 낙담하고 있는 사이에 삼각산에선 마지막 한 봉우리를 만들어 결국은 승지로 선택되었다. 삼각산을 배경으로 한양이 선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1978. 6. 10 원삼면 죽능1리 어현
오 진영(51세, 여, 농업)

부아산(負兒山)과 먹조현(覓祖峴)

부아산은 용인읍 삼가리에서 화성군 동탄면과 용인군 기흥면을 잇는 비교적 높은산이다. 산의 형세가 아이를 업은 것과 흡사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먹조현은 삼가리에서 어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속칭 예주고개라고 부르고 있다. 이 전설은 효행 설화 가운데 효부 이야기(3)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전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방증 해주는 증거물로서 부아산과 먹조현이란 명칭이 부여된 정도이다.

홀로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외아들을 키우며 사는 한 시골 부부가 있었다 한다. 이들 부부는 비록 가난하지만 남들이 부러워 할 만큼 부친을 잘 봉양하였다. 할아버지 역시도 손주를 끔찍이나 아껴주어 항상 집안에는 화기가 들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관가에서 시키는 부역 때문에 여러날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애도 부인은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셨고, 시아버지는 아들 대신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 시아버지가 돌아올때 쯤이면 항상 아이를 등에다 업고 배웅나가던 부인은 고개 마루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런데 웬일인지 밤이 깊어 가고 있는데도 시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등에다 아이를 업은 부인은 조금 더 조금 더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가다가 자신도 모르는 길을 헤매게 되었다. 한참을 헤맸을까 가까운 곳에서 사람의 비명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부인은 혹시나 시아버지가 짐승에게 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여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다. 과연 그곳에서는 시아버지와 호랑이가 죽음을

무릎쓰고 다투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부인은 호랑이를 크게 꾸짖으며, 네가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런다면 내 등에 업힌 아이라도 줄터이니 우리 시아버님은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어린 아이를 호랑이 앞에 주자, 호랑이는 아이를 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겨우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는 손주를 잃은 슬픔에 오열을 금하지 못하였으나, 며느리의 간곡한 애원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나는 이미 늙었으니 죽어도 한이 없을 터인데, 어찌해서 어린 아이를 죽게 했는가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부인은 어린 아이는 다시 낳을 수도 있으나 부모는 어찌 다시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며 마음 상하지 않으시길 재삼 부탁하였다.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더욱 마음 아파할 까봐 겉으로는 슬픈 척도 하지 않았다.

부아산은 바로 이때 부인이 아이를 업고 헤매었던 곳이라고 하며, 할아버지를 찾던 고개라는 뜻의 떡조현은 어린 아이의 할아버지를 찾아 넘던 고개라는 데서 연유하였다고 한다. 떡조현은 현재 메주고개로 와전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이 배주 고개라는 이름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1978. 12. 3 용인읍 김량장리
홍 종억(61세, 남,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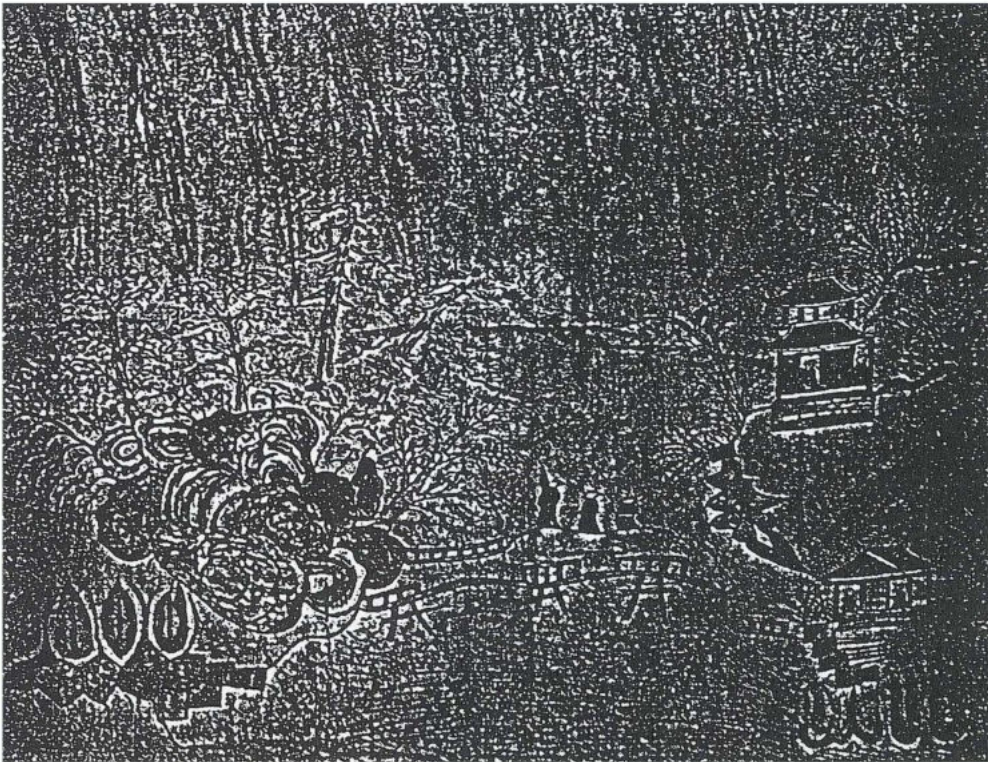
열너비 고개 (여기 왕산 깃방지)

모현면 일산리 하마산과 왕산리 중간 지역을 잇는 고개로 옆에는 내가 흐르고 있다. 맞은 편 산쪽 중턱에는 열너비가 있다. 옛날에는 이 보다도 길이 좁고, 내는 더 깊어서 오가는 사람 중에 빠져 죽는 일도 더러 있었다 한다.

옛날에 가문이 좋은 최씨네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의 성실한 총각과 결혼하여 금실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났다고 한다. 두 사람은 부모를 잘 봉양하고 열심히 일하여 가산도 제법 마련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 지은 곡식을 팔러 시장에 간 남편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밤 늦게까지 기다리다 지친 식구들은 모두 찾아 나섰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 사람을 찾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 다시 찾아 나섰다. 지금의 열너비 고개에 이르러서 내를 내려다 본 순간 남편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는 최씨는 오열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시부모가 있는 관계로 슬픔을 억제하고 시신을 꺼내 장사 지냈다. 장례 후에도 슬픈 모습을 시부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더욱 정성스럽게 봉양하였다. 시부모가 천명을 다하고 세상을 뜨자 최씨는 극진히 장례를 모신 다음, 자신도 남편의 뒤를 따르고자 열너비 고개 밑의 내로 몸을 내던졌다. 최씨의 효행과 정렬을 익히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최씨의 시신을 양지 바른 쪽에 묻고, 열부최씨묘문(烈婦崔氏

墓門) 이라고 비석에 새겨 그의 뜻을 기리고자 하였다. 그 이후 이 고개를 오가는 사람들은 최씨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열녀비가 있는 고개라 해서 열녀비 고개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

1978 6 모현면 일산리 하마산
정일화의 부친(?세, 남, 농업)



메주 고개의 유래

메주 고개는 먹조현(覓祖峴)의 속칭으로, 용인을 삼가리에서 구성면 어정을 잇는 고개이다. 지금은 용인 정신병원 쪽으로 새 길이 나서 한적한 고개가 되고 말았지만, 수년 전까지말해도 이 고개를 넘어야 수원에 닿을 수가 있었다. 메주 고개란 이름은 먹조 즉 할아버지를 찾아 헤맸다는 뜻에서 불려졌던 것이 와전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의 이야기는 전하는 바가 없고, 메주 고개란 이름에서 연유한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다.

지금의 삼가리 근방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이들은 비록 가난하기는 하였지만 매우 부지런하였으며, 부부의 정의도 두터웠다. 아내는 남의 집 부엌일과 바느질 일을 도와 양식을 구하였으며, 남편은 다른 사람의 농사를 도와 새경을 받았다. 본성이 부지런하였던 이들 부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언젠가는 자신들의 농토에서 양식을 수확하여 보리라는 욕망을 갖고 있었다. 몇 해 동안을 일했을까 이들 부부에게도 자그마한 땅이나마 밭 몇 평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땅을 구한 이들은 무엇을 먼저 심을까 의논한 끝에 콩을 심기로 하였다. 해마다 남의 집에서 빌던 장을 이제는 자신이 농사지어서 만들어 먹어 보겠다는 생각에서 였다. 정성스럽게 가꾼 타으로 콩은 남의 밭에서 가꾼 것 보다도 실하였다.

아내는 콩을 털어 둔 다음, 메주를 만들어 장을 담그고자 하였다. 자신의 힘으로 가꾼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는 벅찬 기쁨으로 열심히

메주를 만들었다. 만들어 놓은 메주를 수없이 번갈아 세면서 일하던 아내는 쇠파리 한 마리가 메주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였다. 만들던 메주를 내던져 놓고 그 쇠파리를 우선 잡을 생각으로 나무 주걱으로 내쳤다. 그러나 쇠파리는 껌싸게 다른 메주로 옮겨 앉고, 정성스럽게 만든 메주만 엉망이 되고 말았다. 더욱 화가 난 아내는 쇠파리를 잡을 생각만이 앞서 메주가 엉망이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주걱을 휘둘렀다. 쇠파리는 메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날아갔으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뒤따랐다.

맨발인채로 쇠파리만을 뒤쫓던 아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의 먹조현을 넘었다. 이쯤 이르자 쇠파리도 지쳤는지 더 이상 날지 않고 한 발쭉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이제는 꼭 잡으리라는 생각으로 몸을 던져 덮쳤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수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 하는 소리를 질렀다. (이 때문에 아차지 고개라는 이름도 생겼다고 한다.) 지금의 아차지 고개에 당도해서도 쇠파리를 잡지 못한 아내는 몸만 더럽힌 채 포기하고 돌아왔다. 기진한 채 돌아오는 길이었기에 발걸음은 자연 어정 어정거렸다. (지금의 어정이라는 이름도 이 때 아내의 걸음걸이가 어정 어정거렸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집에 당도한 아내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지금의 먹조현을 메주 고개라고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이 아내가 메주를 만들다가 쇠파리를 쫓아 넘었던 고개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1977. 4. 20 용인읍 역북리 평촌

정봉영(69세, 남, 농업)

염치(鹽峙) 고개 (옛날 염치에 사는 ~~사람~~ 전설)

내사에서 이동 묵리 쪽으로 넘어 가는 새고개를 속칭 염치라고 한다. 이는 소금장수가 고개를 넘다가 사람으로 둔갑하는 여우를 보고 뒤쫓아가 때려 잡은 후 소금짐을 버려둔 곳이라고 하여 염치가 되었다는 전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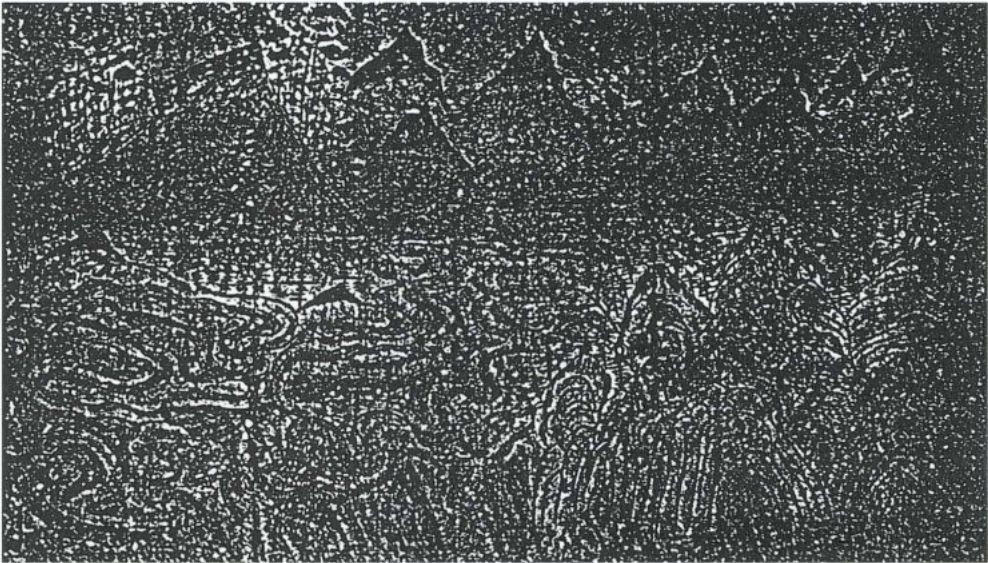
소금 장수가 있었다. 날이 꺾으려는지 소금짐은 더욱 무거웠고 사파른 고개를 오르자 숨이 턱에 차고 코에서는 단내가 났다. 오르막길 10리 내리막길 10리, 무슨 놈의 개만도 못한 팔자를 타고나서 등에 소금이나 지고 이 길을 다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따분하고 처량했다. 지계를 벗어 놓고 생각한다. 내 본시 뼈다귀 있는 가문에서 태어 났으니 씨는 양반의 씨라 내 어쩌다 소금짐을 지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는지 모르기는 하나 조상 신주가 무심치 않다면 이 신세 면할 날이 반드시 올 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벌렁 들어 누어 있었다. 사방은 고요한데 어디선가 바가지 굵는 소리가 들려 오는 것이다. 무심히 소리나는 쪽을 내려다 보니 골짜기에서 하얀 백여우 한마리가 사람의 해골을 박박 굵다가 뒤집어 쓰면 영락없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도 이상하고 등골이 오싹하여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려니까 또 벗어 가지고는 박박 굵다가 뒤집어 써보고 하기를 너댓차례 하더니 하얀 노파로 둔갑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산을 내려 가는데 인가로 향하고 있었다. 소금장수는 믿을 만한 물건을 찾아 봤으나 들고 다니던 참나무 작대기 뿐이었다. 그것을 들고 이리저리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의 뒤를 쫓아 갔는데 이 여우

가 이른곳은 어느 혼사 집이었다. 집안으로 들어 서니 온 집안 식구들이 반기면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던 외할머니가 오셨다고 야단들이었다. 하도 피이쩍어 그집 사랑채로 어슬렁어슬렁 가서 걸객이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서 배를 불리고는 뒷마루 구석에 쭈구리고 앉아 안쪽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안방에서는 새색시를 맞이하여 동네 안노인들이 한방 가득히 앉아서 새색시의 이모 저모를 두고 경탄도 하고 찬사도 보내며 시집오던 첫날밤을 회상 하기도 하면서 수다질로 밤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소금 장수는 백여우가 궁금하여 좀채로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한 동안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흠어지고 안방에는 몇몇 노인네 만이 남아서 신방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때 벼란간 신부가 기절하였다고 야단이 났다. 소금 장수는 그러면 그렇치 역시 백여우의 장난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안채로 들어섰다. 그러나 사람들은 낮불이 모르는 외간 남자가 내당으로 들어 오는 것을 보고 못마땅히 여겨 길을 막는다. 소금 장수는 이때에 급작스런 흉사가 있는 듯하여 들어 왔으니 새덕이 있는 방을 좀 보여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방을 들여다 보니 야나 다름까 그 백여우가 새색시의 뒷덜미를 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본 소금 장수는 시아버지를 불러 놓고 내 곧 며느님을 살려볼 테니 새덕을 좀 한 곳으로 비켜 뉘우라고 한 다음 참나무 작대기를 들고 뛰어 들어가 다짜고짜로 아랫목에 앉아 있는 하얀 늑은이를 벼락치듯 내려 쳤다. 집안 사람이 기겁을 하거나 말거나 외할머니라는 늑은이를 사정 없이 두들겨 패냈더니 하얀 백여우 한마리가 쪽 뺨는 것이다.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어찌 그 늑은이가 백여우 인줄을 알았으며 며느리를 살리게 되었는지가 궁금하여 범석을 떨었다. 소금 장수는 시치미를 뚝 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다만 이작대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바로써 이런 일은 한 두 번이 아니고 늘있

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참 신기하기가 이룰데 없는 보배라면서 어느 돈 많은 부자가 그 작대기를 살 것을 재의했다. 그러나 소금 장수는 작대기 하나로 팔도를 다니면서 좋은 일만 골라 하였음으로 당신과 같은 많은 부자들이 이것을 사고자 하고 있으나 천하에 들도 없는 이 같은 물건을 내 어찌 팔겠느냐고 하니 이 부자는 더욱 몸이 달아서 모든 재산을 다 털어 줄테니 바꾸자고 애원을 했다. 소금장수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거액을 받은 후 작대기를 넘겨주고 줄행랑을 놓았다. 천하에 들도 없는 명품을 얻은 이 부자는 자기도 한번 좋은 일을 하면서 거금을 벌어 보리라 마음먹고 그 작대기를 들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았다. 그러던 중 어느 동리에 이르자 마침 혼사 잔치가 벌어졌다. 그 집 뒷마루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이 부자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안채의 동정을 살피고 있는데 아니나다를까 묘하게도 새색시가 갑자기 배가 아파 첫날밤에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고 집안 사람들의 걱정이 대단하였다. 이 부자는 역시 이때로구나 생각하고 그 작대기를 들고 안채로 들어가 시아버지를 불러 낸 후 내가 그 병을 즉시 고쳐 볼테니 새새댁을 한걸음으로 비켜놓으라고 한다음 방안에 앉아 있는 그댁의 하얀 마나님을 쫓아들어가 느닷없이 두들겨 패 놓았다. 이게 웬일인란 말인가 신랑의 할머니이고 시아버지의 어머니인 그댁 할머니를 참나무 작대기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 놓았으니 결국은 즉석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부자는 소리쳤다 잠시 있으면 이 늙은이가 하얀 백여우가 될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좀 기다리시요. 백여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난 그 집 사람들과 동리 사람들은 미친 놈이 사람을 죽였다고 두들겨 패므로 결국은 거기서 부자는 매맞아 죽을 수 밖에 없었다. 여우를 잡아준 소금장수의 엉뚱한 거짓말이 두 사람을 죽게 하였으나 그 후 소금 짐을 버렸다는 고개를 사람들은 엄치고개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많은 돈을

벌어 도망치던 소금 장수도 결국은 산적을 만나 모두 털리고 목숨을 잃었다고 전한다.

1982. 4. 13 내사면 양지
권 영원(57세, 남, 농업)



원수고개

주막 주인이 소를 사러가는 농부를 죽이고 돈을 빼앗은 후 그 시체를 매장한 후 많은 사람들이 이 고개를 지날 때 죽었으므로 원수고개라고 불리워졌다는 전설로써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에 전하고 있다.

조선 숙종대왕 시절이었다고 전한다. 양지 고을에 사는 농부는 부지런히 일하여 푼푼히 모은 돈으로 소 한마리를 장만하기로 하였다.

소 없이 농사를 짓는 일처럼 힘겹고 어려운 일이 없었으므로 튼튼하고 일 잘하는 소를 고르기 위하여 멀리 남양의 새벽 첫장에 나가 마음에 드는 소를 고르기로 하였다. 양지에서 수원까지는 하루 왕복이 되었으나 남양은 너무 멀었으므로 늦으막히 양지를 떠나 수원 경계에서 하루를 묵고 이튿날 새벽 길을 떠나면 일을 마치고 저녁 때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계산으로 이 농부는 한나절이 지나서 짐을 꾸렸다. 길조심하여 다녀 오라는 부인의 당부를 뒤로 하고 수원군 원천동 말통굴 언덕이 바라다 보이는 주막을 찾아가서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 저녁상을 물린 후에, 이 농부는 그간 몇 년동안 소를 사려고 갖은 고생을 다 하여 오다가 내일이면 그 꿈이 실현될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기 때문에 주막집 주인 내외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 일로 새벽 길을 가야 하니 첫닭이 울면 곧 깨워달라고 당부하였다.

인적이 드문 외딴 주막을 하고 있는 농부 내외는 많은 엽전 꾸러미의 전대를 보고 술술 욕심이 났다. 주막집 내외는 농부가 잠든 사

이에 의론을 하였다. 저 돈을 빼앗아야 하겠는데 집에서 해치우면 뒷처리가 곤란하니 말통 고개에서 해치우자 내가 그곳에 가서 숨어 있을 터이니 당신은 닭 울음 소리를 내어 곧 그 농부를 깨워서 그리로 보내라고 하였다.

농부가 잠이 들자 약속한 대로 주막집 주인은 닭 울음 소리를 냈다. 이 소리를 듣고 첫닭이 운 것으로 착각한 농부는 잠자리를 걷어 치우고 길을 떠났다.

말통골 언덕길을 올라섰을 때 주막집 주인은 몽둥이를 휘둘러 농부를 죽인 후 엽전 돈 꾸러미를 훔쳐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 주막에 손님이 들기만 하면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닭 울음 소리를 듣는 손님은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가면 반드시 농부가 죽은 자리에서 시체를 발견하고는 하였다.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자 온 고을에 퍼졌으므로 용인 현감은 그 사유를 밝히고자 하여 나그네를 가장하고 주막으로 찾아들었다. 그날밤 역시 닭 우는 소리가 나자 문 밖을 나서서 말통고개 아래에 이르렀을 때 그 농부의 원혼이 나타났다. 남달리 담력이 컸던 현감은 농부의 원혼을 꾸짖고 원한이 뭐냐고 묻자 원혼이 된 내력을 말한다. 원혼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려고 주막에 든 나그네를 불러 내었으나 그때마다 기절하여 죽었다고 하였다. 이를 알게 된 현감은 주막집 부부를 잡아다가 치죄하고 암매장된 농부의 시체를 찾아 후히 장사를 치루어주고 제사를 지냈다.

그 후부터는 이 고개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졌으나 농부의 죽은 혼이 원한을 갚으려 했다 하여 사람들은 이 고개를 원수 고개라고 불렀다.

1984. 8. 13 기흥읍 영덕리 잔다리
정 낙영의 할머니(80세)

좌전고개의 유래

좌전 고개는 본래 좌찬현(左贊峴)의 변형이다. 이는 조선조의 판적명과 공신 박포(朴苞)의 유배지였다고 하는데서 유래된 지명 전설이다.

조선 정종때의 무장이던 박포는 일찌기 정도전의 난 때에 방원을 도와 큰 공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논공(論功)의 댓가는 별로 보잘 것이 없는 것이었다.

이에 불만을 품어오던 박포는 몹시 불평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무(李茂)가 비록 정사(定社)의 반열에 참여하였으나 그 공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번덕이 많아 측량하기 어렵다. 라고 비방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방원은 임금에게 아뢰었으므로 당시의 죽주(지금의 원담면 좌항리)에 귀양을 보냈다.

이때 박포의 벼슬이 좌찬성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좌찬성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곳을 좌찬리라고 하였고 그 마을의 고개를 좌찬현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변형되어 오늘날의 좌전고개가 되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박포는 얼마 안되어 사면되었으므로 귀양살이에서 풀려나가는 했으나 은근히 방원을 원망 하던차 회안군 방간의 집으로 찾아가서 장기를 두게 되었다. 이날 아침 우박이 쏟아졌는데 이를 보고 있던 박포는 방간에게 겨울 비가 길을 파손하면 병사가 시가에서 교전한다고 하니 조심하시요 라고 하였다.

그때 하늘에 붉은 빛의 기운이 나타난 것을 보고 또 방간에게 하늘에 묘사한 기운이 있으니 조심하여 처신하시오 라고 말하니 어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물었다.

박포는 때를 놓치지 않고 정안군의 군사가 날로 강성하며 많은 무리가 붙어있으므로 공의 위태스러움이 날로 높으므로 먼저 선수를 써서 이들을 쳐부숴야 한다고 충동하여 마침내 거병하였다가 방원의 군사에게 패한 후 방간은 토산으로 귀양가고 박포는 선동죄로 참수되었다.

그후 향리에 장사하였으나 한 때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던 그의 묘소는 용인군 외사면 백암리에 전하고 있으며 그가 귀양 살이를 할 때의 관직명은 “좌전고개”라는 지명을 남기게 된 유래가 되고 있다.

1983. 7. 13 외사면 백봉리

박 규환(45세, 남, 농업)

용덕사의 용굴

용덕사는 이동면 목리에 있는 절로 신라 문성왕 때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절 뒤에 커다란 굴이 있어 일명 굴암절이라고도 부른다. 절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굴암절이라고 불리우는 용덕사 뒤로는 굴 양쪽으로 흐르고 있는 샘물과 하늘을 향해 구멍이 뚫린 굴이 있는데, 모두들 이 굴을 용굴이라고 부른다. 옛날에 옥황 상제의 노여움을 사서 인간 세계로 쫓겨난 용 하나가 이 곳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 백일 동안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수도를 하여야 다시 승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갇힌 용은 옥황 상제의 말대로 수도에 정념하여 백일을 거의 다 채운 다음 승천하려 하였다. 하늘에선 벽력이 떨어지고 사방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시끄러운 소리가 진동하여 동리 주민들은 무서워서 감히 밖에 나오질 못하였다. 이 때 용굴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주민 한사람이 마침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광경을 보고는 놀라서 땅 바닥에 몸을 엮드리고 떨고 있었다. 용굴로부터 용이 막 승천할 때 이 나무하던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들고 용을 바라다 보고 넋을 잃었다. 그 때 갑자기 용은 하늘로 올라가던 도중 괴음을 지르며 땅 위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한다. 용이 승천할 때 인간이 엿보아 부정이 타서 백일 기도도 허사가 되고 만것이다. 용굴로부터 벗어날 때 용굴 위가 뚫어졌다고 하며 이 같은 모습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리고 용이 승천할 때 잘못 실수하

여 한 쪽 눈을 다쳐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데, 용굴 밑으로 흐르고 있는 양쪽 샘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 흘린 피 때문인지 지금도 흙탕물처럼 뿌옇게 되어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용굴을 타면 탄 횡수 만큼 생명이 연장된다고 하며, 옆으로 뺨은 굴은 아이들이 타는 것이고, 곧장 위로 뺨은 굴은 어른들이 타는 것이라 하여 구별하고 있다.

한편, 양쪽에 흐르고 있는 샘물은 백일 동안 용이 흘리던 눈물이라고 하는데 이 샘물에는 여러가지 영험이 있어 많은 사람이 찾아와 각자의 소원을 빈다고 한다.

1978. 8. 13 이동면 목리 용덕사
장 재우(학생, 18세)의 조모



허적이 굴에 얽힌 이야기

외사면 가창리 내창부락 뒷산의 수정산(水晶山)에 정원사라고 했던 암자가 있었다. 암자 뒤로 큰 바위가 있고 바위 밑으로 큰 굴이 있는데 이 굴을 허적이 굴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에 얽힌 전설이다.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허적(許積)선생은 당시 충청도였던 외사면 가창리 지경에서 출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①

그가 젊었을 때에 수정산 암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암자 뒤의 바위굴 앞에서 주지가 메를 지어 치성을 드리더니 20여 마리의 산 닭을 굴속으로 던지는 것이 아닌가?

허적 선생이 생각해 보니 공양 메를 올리는 것은 부처 앞이거나 아니면 산신각에서 할 일이지 그도 저도 아닌 바위 굴 앞에서 주지가 공양 메를 올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괴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후에 허적 선생은 주지를 만나 무슨 계를 드리기에 산 닭을굴속으로 들이면서 공양 메를 올리는지 그 연유를 물었더니 주지의 대답은 이러했다. 바위 굴 속에는 아주 큰 구렁이가 살고 있는데 초하루 보름으로 생 닭 공양을 하지 않으면 이 구렁이는 반드시 절을 해치려고 하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간의 내력을 털어놓는 것이다.

의협심이 강했던 허적은 미물에게 어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분개하더니 내 그 놈을 해치워버리겠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지는 손을 저으면서 부갯집 대들보와 같은 크기의 구렁

이를 어찌 처치한다는 말씀이오 하면서 굳이 만류하였으나 염려말라고 주지에게 말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니 스님은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다음 삭망 때까지 기다려 공양을릴 준비나 하라고 하였다.

마침내 산 닭 공양하는 날이 되었다. 허적은 법당의 넓은 귀틀마루의 송판을 하나 걸러 하나씩 여러 개를 뽑아 놓았다. 그리고 환도를 날아 시퍼렇게 갈아놓은 다음 절차대로 메를 짓고 산 닭을 굴 앞에 가져다 놓고 목탁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치 소나기 쏟아지는 소리 같은 것이 잠시 들리는가 싶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가 산 닭을 먹으려고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이를 보자 허적은 산이 떠나갈듯 큰 소리로 호령을 한다. 너와 같은 미물이 어찌 불가에서 수도하는 승려들을 괴롭힌다는 말이나?

오늘은 이 어른께서 너의 방자하고 요망스런 작태를 단죄하리라고 막 삼키려던 닭을 빼앗아 동맹이 쳐 버렸다. 그러자 구렁이는 성이 나서 허적을 쫓아나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소나기 퍼붓듯 괴이하였다.

허적은 비호같이 몸을 날려 법당 마루로 들어갔다가 미리 빼어 놓은 귀틀 마루 구멍으로 빠져 나왔다.

구렁이도 그를 쫓아 마루밑으로 들어갔다가 그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 즈음 다시 건너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음 구멍으로 빠져나오고 하자 이 성난 구렁이도 계속 그 모양으로 쫓아다녔다.

결국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들쭉날쭉 도망다니는 동안 긴 구렁이는 마루 구멍 안 밖으로 꼬여진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허적은 예리한 환도를 빼어들고 여기 저기 토막을 쳐 마침내 우환거리를 깨끗히 퇴치해 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순간 구렁이 몸체에서 붉은 피와 함께 이상한 서기가 뻗어
더니 허적 선생이 사는 마을 쪽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다음날 어제의 일을 모두 잊은채 허적 선생은 서책을 대하여 공부
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종자 하나가 내달아 오더니 별채 소실
꺼서 밤 사이에 급환으로 기동을 못한다고 하였다.

급히 집에 당도하여 보니 과연 소실은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를 못했다.

이를 보자 측은하였으므로 왜 그러느냐고 물으며 그의 손을 어루
만지니 기이하게도 허적의 손길이 닿자마자 평시와 같이 몸이 회복
되지를 않겠는가?

그래도 안심이 되질 않음으로 이삼일 함께 묵으면서 격조했던 부
부의 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입산하여 과거 공부에 전념하는
동안 어언 10삭이 되었을 때 옥동자를 분만하였다는 전갈이 왔다.
어찌나 잘 생겼는지 보는 사람마다 관옥(冠玉) 같고 옥골 선동 같다
는 소문이 원근 향리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형 미수 허목이 오셔서 아이를 보더니만 아
우를 불러 이 아이들 당장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허적은 무슨
연고로 혈육을 저버려야 하느냐고 묻자 끝내는 형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형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일컬어 이인(異人)이라
고 하는 분으로써 동해바다 영해에 퇴조비(退潮碑)를 세워 조수(潮
水)를 물리친 비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있는지 또 한 해가 지나 소실은 전 보다도 더 영특하고
잘 생긴 옥골선동을 얻게 되었다. 먼저번 버린 자식을 늘 마음 아프
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보다 더 잘 생긴 아들을 얻었으니 그의 기쁨
은 뛰고도 남을만 하였다.

그런데 이를 본 형 미수 선생은 역시 전과 똑같이 이 아이마저 없

애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우 허적은 엎드려 목을 놓았다. “이제 후일 어떤 화를 당할지라도 이 애는 버리지 못하옵니다”고 하자 미수 선생은 길게 탄식 하면서 어찌하랴, 자네가 그럴 결심이라면 형제의 관계를 끊을 수 밖에 없네 하면서 그때 족보의 문적을 분리시켰다고 전한다.

이 옥동자는 무럭무럭 자라 일취월장 원숙해지고 글 배우는 재주가 뛰어나 원근에서 부러워하는 현현 장부가 되어 교서정자(校書正字)를 지냈으나 영의정이 된 부친 허적 선생의 세력을 믿고 방자함이 심하여 유부녀 이차옥(李次玉)을 강탈하는가 하면 청풍 부원군의 첩과 싸워 이빨을 부러트리는 횡포를 저질러 좌윤 남구만의 상소로 배척을 받기도 하더니 급기야는 복선군(福善君) 남(楠)을 추대하려는 역모에 관련되어 숙종 6년(1680)에 처형된 허적(許堅)이었다.

이미 핏덩어리를 보고 장래를 내다보았던 허목 선생의 형안도 놀랍거니와 이를 두고 후세 사람들은 구렁이의 원령이 멸문지화를 입게 하였다고 전하는 얘기로써 지금도 원삼면 내창 뒷산에 허적이 굴이란 바위가 전하고 있다.

1981. 10. 9 의사면 가창리
임 국재(60세, 남, 전 의사면장)

내용누락

p. 41-54

시궁산 허수아비 전설

이동면 시미리 시 산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허수아비에 관한 전설인데 다른 지역에선 채집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이다. 죽은 사람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무속에서 볼 수 있는 액막이나 부락제때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동면 시미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에 총각이 살았는데, 이 총각은 한 부자집의 처녀를 짝사랑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사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총각이 죽은 뒤로 부자집의 처녀는 매일 밤 그 총각의 영혼에 시달렸는데, 처녀는 그 사실을 숨긴채 혼자 고민하다 급기야는 신병까지 얻었다. 아무런 약도 효험이 없자 부모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그 처방을 물었다. 이에 무당은 이 일은 총각의 원혼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이니 마땅히 그 한을 풀어줘야 낫는다고 말했다. 무당은 총각의 무덤 옆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여자 옷을 입혀 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과연 이 처방대로 하고나니 그 날밤부터 총각의 원혼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는 뒤로 시미리에서는 총각이 죽으면 처녀 모습의 허수아비를, 처녀가 죽으면 총각 허수아비를 세워 미리 재앙을 막았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같은 허수아비가 여러개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1978. 6. 15 이동면 시미리

홍성우(51세, 남, 농업)

정암(靜庵) 선생과 손님마마

수지면 상현리 심곡서원 입구에 있는 하마비(下馬碑)에 얽힌 전설이다. 정암 선생이 손님마마를 앓던 5대 독자를 회생시켜 준 은혜를 기리기 위해 그 부모가 세웠다고 전한다.

정암 조광조(趙光祖) 선생이 용인현 심곡리에 일시 우거 하였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기곡(器谷)의 정자에 나가 시회(詩會)를 마치고 돌아와서 의대를 풀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이웃에서 갑자기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선생은 궁금하여 종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 오도록 했던 것이다. 잠시 다녀온 종자의 말로는 옆집의 외아들이 마마를 앓다가 방금 숨을 거두었는데 죽은 아이는 그 집 5대 독자여서 여인의 비탄이 자심하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던 정암 선생은 급히 서찰 하나를 써 주면서 지금 급히 여수내 쪽으로 달려가서 길가 노송 밑에 있으면 노파 한 사람이 지나 갈 것이니 그 분을 뵈거든 이 편지를 전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아버지를 들라하고 아이는 곧 회생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대문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뿌리도록 하였다. 한편 심부름 간 종자는 선생이 일러 준 곳에 가서 있자니 정말로 호호백발 노파가 오고 있었다. 종자는 공손히 절을 올린 뒤 서찰을 내밀었다. 이를 받아 본 노파는 정암 선생의 부탁 이라면 어찌 물리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종자에게는 잘 알았으니 가서 전하라고 하였다. 종자가 돌아와 보니 아이는 벌써 살아 났다는 것이다. 종자는 하 괴이하여 노

파가 그곳을 지나는 것을 어찌 아셨으며 죽은 아이와는 무슨 관계에 있었느냐고 묻자 정암은 노파가 들고 있던 푸른 보자기에 아이의 흔백이 있었노라고 했다. 그렇다면 선생께서는 그것을 돌려 달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선생은 대답을 하지 않고 웃고만 있었다. 그러던 마당에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게 한 연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선생은 '손님마마라 하지 않더냐? 손님을 맞이하는 당연한 예우니라'라고 말하였다. 그 일이 있는 후로부터 지금까지 심곡리(현 상현리)에는 마마 앓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전하고 있으며 그 부모는 아이를 살려준 은혜를 기리고자 하여 조광조 선생이 기묘사화로 능주에서 사약을 받아 상현리에 묻힌 후 하마비를 세웠다고 전해 진다.

1977. 10 수지면 상현리
이 가원(전 심곡서원장)

여 백

Ⅲ 지명(地名) 이야기

여 백

김량장(金良場)의 유래

용인군의 군소재인 용인읍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김량장이다. 동쪽으로 내사면 송문리가 있고, 서쪽으로는 구성면, 남쪽으로는 이동면, 그리고 북쪽으로는 포곡면과 인접해 있다. 대부분의 지명이 앞 두 글자 정도에 리, 또는 동, 골 따위의 어휘가 붙어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세글자나 되어 처음 듣는 이에겐 어색하기 짝이 없다. 이 지역을 찾는 이가 지명에 대해 의문심을 갖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마다 이 곳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일정하지 않다. 널리 들려지는 이야기 세 가지만 추려 적는다.

1

옛날에 김량(金良)이라는 장수가 이 곳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이 장수는 어려서부터 용맹스러웠으며, 지략이 뛰어나 훗날 여러 사람들로 부터 널리 칭송되었으며, 김씨 가문에서는 이를 귀감으로 여겼다. 부근의 주민들도 이 장수가 사는 곳을 ‘김량이 사는 곳’ 이라고 하면 다 아는 정도였다. 이처럼 불려지다 어느 때에 와서 ‘김량’ 이라고만 불려도 의사가 소통되었고, 이곳에 장이서게 되어서는 ‘김량장’ 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용인읍내에는 김량이라는 장수의 후손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자기네 조상의 이름을 흔하게 부른 것을 꺼려하여 ‘금양장’ 이라 부르고 있다 한다.

1977. 4. 20 용인읍 마평리657
이 상호(44세, 남, 상업)

옛날부터 용인 주변 지역에는 금(金)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여러 지방에서 산출되는 금 보다도 질이 뛰어났다고 한다. '김량'이라는 지명은 바로 '좋은 질의 금이 나오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현재에도 옛날 금을 캐던 흔적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1982. 6 모현면 능원리 흥렬서원
정 덕화(80세, 남, 한학자)

용인군의 옛 지도를 펼쳐보면 지금의 김량장리에서 서북쪽 가까운 지역에 역(驛)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역 이름을 '금령역(金嶺驛)'이라고 적고 있다. 그 주변을 흐르고 있는 하천 역시도 '금령천(金嶺川)'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우리의 옛말로 부르던 '쇠재'를 한자어로 표기했다고 볼 수 있다. '쇠가 많이 나던 고개'라는 뜻이다. 이 같은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 '김량'으로 불려진 것은 비슷한 음끼리의 음운현상에서 빚어진 와전이라는 이야기이다.

용인여고 안 옥승 교감〈성산 2호〉
에서 채록함.

돌무데기 전설 (1)

모현면 갈담리 석담 부락에 있는 돌무데기의 전설로, 마성의 '할미성 전설'과 연관있는 자료이다. 내사면 송문리, 원삼면 맹리, 용인읍 호리의 돌무데기 전설과 그 내용이 달라서 설화의 다양한 전개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할미당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할미당 전설'이라고도 한다.

옛날 석성산 북쪽에 할미성을 쌓을 때의 일이라 한다. 할미성을 쌓을 당시 이 곳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역에 종사하였다. 아낙네들은 행주 치마에 돌을 싸서 나르기까지 하였다. 매일같이 돌을 나르던 어느날 이었다.

어떤 사람이 달려와 이제 할미성을 다 쌓았으니 돌을 안 날라도 된다고 하였다. 행주치마에 돌을 나르던 아낙네들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돌을 내던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석담 마을에 돌무데기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이곳엔 돌무데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는 할미성을 쌓을 때 마고 할미가 밤새 돌을 날르다 잠시 이곳에서 쉴 적에 흘린 것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에 할미당을 세워 매년 정월 보름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바로 이 마고 할미를 위해서라고 한다. 이 할미당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오기 때문에 지금도 거르지 않고 실시한다고 한다.

1972. 2. 10 모현면 갈담리

김용주 모친(52세, 여, 농업)

돌무더기 (2)

원삼면 맹리 맹골에 있는 돌무더기에 관한 이야기로, 내사면 송문리, 모현면 갈담리, 용인읍 호리에 있는 돌무더기 이야기와 그 내용이 전혀 달라 흥미롭다. '허리 굽은 느티나무' 전설을 제공해 준 허 완이 함께 채록한 것이다.

원삼면 맹리 맹골에 들어서면서 좌측에는 산 밑에 봉우리 크기 정도의 고개길이 있는데, 그 곳에는 지금도 돌이 무더기로 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돌무더기는 맹골에 살던 어느 아낙네가 쌓은 것이라 한다. 금슬 좋게 살던 맹골의 어느 부부가 하찮은 오해가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남편이 집을 나서겠다고 하자 아낙네는 짐짓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겠지 하며 이에 맞섰다. 그러나 남편은 진짜 집을 나갈려고 하였다. 아낙네는 자신의 잘못이 부끄러워 만류할 생각조차 갖지 못했다. 뜻밖의 일이라 당황한 아낙네는 남편의 뒷 모습을 지켜볼 뿐으로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멀리 사라지는 남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아낙네는 동구 밖 고개길까지 뛰어 나와 바라보았다. 남편은 돌아보지 않은 채 걸어가고 있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모습을 볼 생각으로 아낙네는 고개길 위에 돌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지켜 보았다. 자신 모르는 새에 쌓아 놓은 돌이 남편이 아주 사라진 다음 내려와 보았더니 무더기를 이룰 정도 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이 있던 뒤로 이 곳을 돌무더기라 부르게 되었으며, 오가는 사람은 아낙네의 애처로움을 생각하며 옆의

돌을 쫓아 던져 놓고 갔다 한다. 아직까지도 이 곳을 지나는 이들이 돌을 던져 놓고 가지만 그 속뜻은 예전과 다를 것이라고 이을순 할머니는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아쉬워하고 있다.

1978, 6, 10 원삼면 맹리 맹골
이을순(81세, 여)



오방난골의 유래

용인군 외사면 박곡리의 속명이다. 오백의 나한전이 있었다고 하여 오백나한골로 불러 졌으나 오백이 오방으로, 나한이 난으로 변형되어 오늘 의 속지명이 된 전설이다.

용인군 외사면 박곡리 대덕산(大德山)에 있는 신라때의 절터라고 하는 곳을 오방난골이라고 한다. 이곳에 5백의 나한을 안치했던 나한도량전(羅漢度量殿)이 있었다. 원래 이 5백의 비구 또는 5백의 상수(上首)라고도 한다.

이들은 부처로부터〈아라한〉이라는 과일을 얻어먹은 불제자로서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5백의 성자라고도 하며 또는 부처가 멸도(滅道)하던 해에 중인도의 왕사성(王舍城) 칠엽궁에서 행한 결집에 참가한 5백의 비구, 또는 불멸 6백년경〈가습미라〉에서 열린 비바사룬 대집회에 결집한 5백의 비구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전생(前生)은 모두 박쥐떼였다고 한다.

인도의 남해 가에 죽은 고목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무 구멍 속에는 5백마리의 박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이곳을 지나던 여자 방물 장사꾼들이 낮이 저물었음으로 그 나무 아래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 밤이 되자 기온이 낮아지고 찬바람이 불자 추위를 견디지 못한 장사꾼은 나무 아래서 모닥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런데 불길은 나무 뿌리와 마른 나무 가지에 옮겨 붙어서 그 속에 있던 5백마리의 박쥐떼들은 불에 타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때 장

내용누락

p. 67-68

담 안 뜸

이동면 덕성리와 중간말 사이에 있는 터를 말한다.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아 번창했던 집안에 손님이 줄자 ‘담장 안쪽 손님이 뜸해졌다’고 말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 용인읍 고림리 단사 지역의 ‘조산(造山)설화’와 원삼면의 ‘돌꽃이 전설’ 과 같은 모티브이다. 같은 군 내에서의 설화의 변이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옛날 소장사라는 부자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밤낮으로 손님이 들끓어 한시라도 그칠 사이가 없었다. 워낙 많이 찾아드는 손님이라 주인인 소장사는 인근의 절에 찾아가 어떻게 하면 손님을 오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물었다. 그 절의 중은 소장사에게 이르기를, 지금 곧 집으로 돌아가 뒤뜰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쪼아 버리면 더 이상 손님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소장사는 바삐 돌아와 석공을 불러다 그 바위를 쪼개 버리라고 하였다. 그 바위를 쪼개자 바위 속에서 제비 한 마리가 숨어 있다가 날아가 버렸다. 과연 바위를 쪼개 버린 뒤로부터는 손님이 차차 줄기 시작하였다. 손님이 절로 줄어든 것은 소장사의 재산이 점점 줄었기 때문인 것이다. 늦게서야 그 이치를 깨달은 소장사는 후회하며 통곡하였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은 자신의 꺼니도 잊지 못하게 되자 집을 버리고 구걸을 나섰다고 하며,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지금도 담안뜸이라는 터에 가 보면 조각난 바위가 남아 있다고 한다.

1978. 6. 12 이동면 덕성리

최 이용(60세, 남, 농업)

안개 동굴

용인읍 고림리 단사 지역에는 다른 지역 보다는 안개가 많이 끼는 셈인데, 이는 지형상의 문제인 것 같다. 이 전설은 부근에 있는 여우굴과 안개 지역을 함께 연관시킨데서 비롯한 것 같다. 설화라기보다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 이지만 새로운 자료라서 채록하였다.

옛날부터 고림리 단사에 굴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엔 여우 부부와 늑대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이들은 항상 의가 좋아 함께 살았으며,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굴안에서 아내 여우와 늑대가 다투는 일이 생겼다. 사냥터에서 돌아온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같은 동굴에서 살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는 수 없이 내기를 하여 이기는 쪽이 굴을 독차지하기로 하였다. 어느 편이고 간에 사냥을 많이 해오는 쪽이 동굴을 차지하게 되었었다. 남편 여우와 늑대는 그 동굴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사냥터로 뛰어나갔다. 며칠 동안을 사냥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날이 그냥 지났다. 동굴 안에 남아 있던 여우와 늑대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냥하러 나간 여우와 늑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 여우와 늑대는 울면서 매일같이 기다리다 기진해 죽었다. 끝내 사냥나간 여우와 늑대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동굴 안에 있던 여우와 늑대가 하도 울어서 그 지역 부근이 안개가 끼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여우와 늑대의 울음 때문인지 이 지역은 안개가 매우 심

하여 영동 고속도로에는 안개지역이라는 뜻말을 세워 주의를 시키고 있다.

1979. 6. 10 용인읍 고림리
윤 장현(18세, 남, 학생)



해골의 유래

용인을 김량장리와 유방리를 경계하는 협곡을 해골 또는 햇골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지명이 생긴 것은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에서 얻어진 지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임진왜란 당시 용인은 왜군의 주요 공격노선으로써 원삼 범골에서의 의병장 김충수 싸움과 금령역의 의병장 원연(元堧) 등의 눈부신 의병 활동은 적세를 크게 흔들여 놓았다.

왜군이 조선을 공략함에 있어서 용인의 '와끼자까' 산하의 수병 3천 여명을 주둔시켜 수비케 했었다. 그때 왜적들은 경안천 연변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막사가 무수히 많았다. 한 곳에 무수막(無愁幕: 無數幕)이라는 지명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당시 한 무리의 왜병이 금령역에도 둔적(屯賦) 하여 크게 약탈하면서 무고한 양민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때 포의 한사로서 진위현에 살고 있던 원연(元堧)은 붓대를 꺾고 의병을 모집하여 용인의 적을 구축하려고 급히 달려 왔으나 기각으로 병영을 세운 적을 유린할만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의병장 원연은 고립리 이진말 쪽으로 적의 시선을 끌리게 한 다음 의병 일지를 이동시켜 은밀하게 이곳 산협에 매복시켰다. 그런 다음 날쌔 기병 수습을 추리고 또 다른 의병을 대기시켜 방포 소리가 날 때 왜적의 후미를 들이치도록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땅거미가 질무렵 원연이 이끄는 날쌔 기병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금령역의 적진을 돌파한 후 무수막에 둔친 적진 앞을

한바퀴 돈 다음 적을 유인하여 되돌아오니 금령에서 추격하는 적과 무수막에서 내닿는 적병의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 때를 보아서 이 협곡을 치달아 도망치게 되니 양쪽에서 달려오던 적이 한꺼번에 맞닥드려 협곡으로 달아난 의병의 뒤를 따랐다. 적의 후미가 입구로 사라질 즈음 좌우 협곡에서 크게 불길이 번지면서 방포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자 달아나던 원연의 군사들이 갑자기 되돌아 내달으면서 무찌르니 적은 크게 당황하였다. 좁은 골짜기 입구의 좌우 산협에서는 화약과 염초가 빗발치며 시석이 쏟아졌고 또 입구에서는 의병이 활을 쏘고 하는 바람에 적의 수급을 무수히 얻을 수 있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화약골이라고 불렀으나 혹자는 적의 해골이 무수히 많았다고 하여 해골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원주 원씨(原州元氏)묘비명에 나타나고 있는 기록으로 이루어 볼 때 화약골이 줄어서 오늘의 해골이 되었음이 확실하다.

원연은 이 공으로 연기 군수를 제수받아 선치하였다.

1985. 9. 14 용인읍 김량장리
정 영화(31세, 남, 교사)

잔다리

구성면 영덕리 자은교(慈恩橋)를 속칭 잔다리로 부르고 있다. 이 곳에는 용인 이씨의 공동 장지가 있어, 용인 이씨 문중 가운데 이름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그 한 예이다.

고려 인종 임금에서부터 의종 임금에 이르기까지는 국내의 정세가 매우 혼란하여 백성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생활하여야 했다. 이런 시기에 용인 사람 이 인택(李仁澤)이라는 분이 있어 무려 아홉 개 군의 군수를 두루 지냈는데,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어 군민들의 흠망을 모두 샀다. 이 인택은 나이가 많아 치사한 후에도 군민들의 생활을 보살피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고향인 갈내, 즉 지금의 신갈에서 머물면서도 변함이 없이 백성들을 돌보았으며, 이같은 은덕을 칭송하기 위하여 주민들은 이 인택의 집앞에 흐르는 냇물 위에 다리를 놓기로 하였다. 다리가 완성되자 주민들은 이 다리 이름을 자은교라 하였다. 이 인택의 선정이 마치 인자한 어머니처럼 따뜻했음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 이후 이 자은교는 자은다리로 불리워졌으며,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은 본래의 뜻도 잊은 채 잔다리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1981. 9. 9 기홍읍 영덕리

이 재춘(43세, 남, 농업)

탄천(炭川)과 동방삭(東方朔)

삼천갑자(三千甲子)를 살았다는 동방삭이 저승 사자를 피하여 해동에 숨었다. 저승 사자는 그를 잡으려고 냇가에서 매일 숲을 닦고 있었다. 마침내 동방삭이 숲 닦는 것을 보게 되고 이상히 여겨 물어 보았다가 신분이 탄로 되어 잡혔으므로 이를 탄천이라 했다는 전설이다.

어느날 저승 사자는 동방삭을 잡으러 왔다. 그러나 동방삭은 그가 저승에 있을 때 천상에서 큰 공을 세운후 옥황상제로 부터 삼천갑자를 살도록 특권을 받았다고 속여 저승 사자를 돌려 보냈다. 저승 사자는 다시 인간들의 생명록을 뒤져 본다음 동방삭이의 수명은 60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잡으러 왔다. 이번에도 동방삭은 등창앓던 종기 자욱을 보이며 이것이 옥황상제의 인(印)이라고 또 속였다. 천상에서의 1작은 지상에서는 몇백년의 세월과 같았으므로 동방삭은 3천갑자라는 수명을 누릴 수 있었다. 결국 저승 사자는 옥황상제께 삼천갑자의 생을 누리도록 동방삭이에게 특전을 베풀었는지의 여부를 조회 해 보았으나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자 동방삭이는 안성마춤의 이웃 고을인 용인에 숨었다. 이를 찾기 위해 저승 사자는 그가 숨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 보았으나 헛수고였다. 생각끝에 숲을 한 짐 저다가 개울에 앉아서 매일 숲을 닦고 있었다. 어느날 동방삭이가 내근처를 지나다가 검은 냇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상류 쪽으로 가보니 웬 멍청하게 생긴 사람 하나가 예의 숲을 닦고 있

음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 연유를 물었더니 이처럼 닳고 있으면 아무리 검은것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회색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방삭은 하도 어이가 없어 자신이 삼천감자를 샀지만 숯을 닳아 회색 만들겠다는 사람을 보기는 당신이 처음이라고 말했다가 신분이 탄로되어 그 자리에서 저승 사자에게 잡혀 갔다는 것이다. 그후 사람들은 이 내를 탄천 이라고 하였는데 용인군 수지면 광교산으로 부터 흐르고 있는 내의 본류를 탄천(炭川) 이라고 부른다.

1982 11. 3 수지면 풍덕천리
심 원빈(전 수지면장)

어비리와 어윤중(魚允中)

고종의 아관파천 당시 친일 개화파인 김홍집 내각이 붕괴될 때 탁지부 대신이던 어윤중이 반대파에게 쫓겨 피신하다가 어비리에서 타살되는 기연을 맺었다는 전설이다.

어비천 또는 진위천이라고 하는 이 하천은 본래는 장호천이라고 불리워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장호천의 한 줄기에 어비울(魚悲鬱)이라고 하였던 작은 마을이 있었다.

당시 일본의 세력을 등에 업은 개화당의 거두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친로파의 강성한 세력에 붕괴되고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옮겨 총리대신 김홍집이 살해되었다. 이때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으로 있던 어윤중(魚允中)은 밤으로 달려 고향으로 피신하고 있었다.

일설에 의하면 여장을 하고 가마를 탄채 용인현을 겨우 빠져 나왔을 때쯤 이를 추격하던 관군은 당시 용인 군수였던 김순응에게 파발을 보내어 길목을 지키도록 하였다고 한다. 긴급 명령을 하달받은 군수는 군정을 대동하고 급히 말을 달려 추격하면서 주민 정원으로 등을 가세시켜 포위망을 압축시켰다.

서울에서 용인은 백여리가 넘는다. 밤낮을 달렸으나 어느 지경까지 당도했는지를 알 수 없었던 어윤중은 산 고개를 막 넘어서자 가마꾼들을 쉬도록 하고 지나가는 아이를 불러 이곳이 어디쯤이며 마을 이름이 무엇냐고 묻자 아이는 서울에서 약 150여리 쯤 되며 마을 이름은 어비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어운중은 깜짝 놀라면서 어비울이라고 어찌쓰느냐고 하니까 슬플 비(悲) 답답할 울(鬱) 자를 씹니다 라고 말한다. 어운중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교꾼들을 독촉하면서 애들아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고 다그쳤다.

가마에 올라 막 떠나려던 차, 뒤에서 섰거라 하면서 관군이 추격해 왔다. 이빨사 더 빨리 달리라고 고함쳤으나 결국 붙잡히는 바 되었다.

일이 급하게 되자 가마꾼들은 모두 도망가고 장옷으로 가렸던 얼굴이 드러나게 되자 정원로 등 군정들이 쇠돌이개로 타살해 버렸다. 어씨가 어비울을 벗어나지 못한 채 타살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어비울 즉 슬프고 답답한 곳을 잘못 지나간 것이라고 하였으나, 융희 4년(1910)에는 그를 규장각 대제학으로 추증하는 한편 임금의 제관(祭官)을 보내어 사당에 제사를 지내주고 영혼을 위로하는 한편 그 후 그가 죽은 곳을 어비리(魚肥里) 즉, 고기가 살찌는 마을로 고쳐 쓰도록 하여 지금의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데, 1960년대에 저수지가 들어서므로써 명실공히 고기가 살찌는 곳이 되었다.

1977. 4. 10 이동면 천리
이 영구(51세, 남, 농업)

몽고 장수와 사장터

남사면 아곡리 입구, 처인성 북쪽의 들판을 사장터라고 부른다. 이곳의 지명은 몽고장수 살리타이가 고려를 침공했을 때 승장 김윤후의 화살에 맞아죽은 자리였다고 전한다.

고려 고종 19년인 서기1232년 동방의 강국 고려를 정복하려던 몽고는 정부가 강화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항쟁할 기미를 보이자 그해 9월 살리타이(撤禮塔)으로 하여금 2차 침공을 감행해 왔다.

살리타이는 수주를 지나 중원경(中原京)으로 진로를 잡고 남하하던 중 군창(軍倉)이 있는 처인성을 지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때 일찌기 출가하여 도를 닦던 선승 김윤후는 진위현 남쪽 10리 지경에 있던 백현원(白峴院)의 한 절에서 시무하고 있다가 적군이 남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승병과 의병을 규합하여 40리 떨어진 용인의 처인성에 이르러 그곳 주민들과 합세하고 600여보에 불과한 처인성의 토축을 높이고 낮은 곳에는 목책을 쳤으며, 싸움에 미리 대비하여 얼마간 떡을 물과 양식까지 비축해 놓았다.

성내의 주민과 의병들은 도끼, 삽, 낫과 쇠스랑 같은 농구를 있는 대로 거둬들여 창이나 칼을 대신한 무기로 삼았고, 날씨가 싸늘해지자 토성에 물을 부어 얼게 하고 적군이 기어 오를 수 없도록 대비하였다.

그해 12월 16일 세계를 제패한 몽고의 강병들이 이곳에 이르렀다. 그 자리에는 원정을 책임진 총수 살리타이가 직접 출진하였으므로

적병은 최정에 부대였을 뿐만이 아니라 수천명의 기병을 갖춘 대병력이었다. 이에 맞선 김윤후 부대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오합지졸 임에 틀림 없었다.

그러나 의병들은 한 마음 한 덩어리가 되어 모두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로써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성을 방비하고 있었다. 살리타이는 삼이나 낮을 들고 덤비는 하찮은 의병들을 보고 오히려 동정하는듯 모두 나와서 순순히 항복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이들을 보고 울화통이 터졌으므로 부하들에게 단칼로 몽게버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런데 그렇게 용감한 자기의 군사들이 손바닥만한 성하나 무너트리지 못하고 성벽을 기어오르다가 여기 저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쇠스랑에 찍혀 죽고 할 뿐 좀처럼 전과가 오르지 않았다.

이를 본 살리타이는 참다못해 백마누상에 올라 금빛 투구를 번득이면서 총 공격 명령을 내리더니 몸소 선두에 서서 달려오고 있었다. 때를 기다렸던 승장 김윤후는 수우 각궁에 화살을 먹이고 미친듯이 달려오는 적장을 향해 시위를 당겼다.

바람을 가르며 소리와 함께 일직선으로 날아가던 화살은 보기 좋게 살리타이의 안면에 깊숙히 박히는가 싶더니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뒤따라 오던 수 많은 기병대가 물밀듯 하여 살리타이는 시신조차 알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말굽에 채였다. 이를 본 부장 철가는 후퇴하라. 장군이 전사했다고 소리질러 간신히 군사들 물리는 사이에 적장이 거꾸러지자 의기충천한 의병들은 채문을 열고 쏟아져 나와 무너지는 적군을 마음껏 무찔렀다.

이 싸움에서 대장이 비명횡사하자 적군은 부랴부랴 자기 나라로 퇴각하고 말았으니 몽고의 제 2차 침입은 용인의 처인성에서 화살한 대로 깨끗하게 물리친 바 되었다.

이 공으로 의병장 김윤후는 상장군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그 공을 함께 싸웠던 의병과 주민들에게 돌리고 다시 본연의 신분으로 돌아가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하였다.

그 후 처인성과 그 북쪽 안산 사이의 들녘을 몽고 장수가 죽은 곳이라고 하여 지금도 사장터라는 지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1972. 3. 14 남사면 아곡리

권 오석(56세, 남 농업)



마귀성과 핀돌

마귀성은 마고성(麻姑城)의 와전으로 보이며, 마고성은 마성(麻城)과 할미성(姑城)을 합쳐서 부른 명칭이다. 이 자료는 할미성에 관한 전설이 변형된 것으로, 마고성의 명칭이 마귀성으로 와전되면서 변색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 용안읍 유방리 상유곡(지장실) 한 골짜기에 남매가 살고 있었다. 마침 이 동네에는 홀로 사는 할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형색이 마귀 할멈을 방불케 하였다. 동네 사람들 모두 이 할멈을 이상하게 여기어 가까이하기를 두려워 하였다. 그러나 남매는 자신도 의지할 곳이 없는 터라서 무서움을 참고 함께 살고자 하였다. 그런데 할멈은 오라버니에게는 극진히 뒷바라지를 해주며 공부까지 시키면서도, 동생에게는 학대가 매우 심하였다. 동생은 오라버니가 잘 되는 일이 곧 자신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꼭 참고 견디었다. 어떤 일이라도 할멈의 명에 따라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할멈은 오라버니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뺑돌러 십리 정도의 성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에게도 성을 쌓는 일을 말하지 말고 남의 눈에 띄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오라버니를 훌륭하게 할 생각으로 동생은 기꺼이 승락하였다. 남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서 치마에 돌을 담아 나르며 성을 쌓았다. 하루라도 빨리 성을 쌓아 오라버니를 성공시킬 생각으로 자신의 몸은 돌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오라버니가 늦게까지 공부하다 동생이 잠자리

내용누락

p. 83-84

▣ 묘소·명당(名堂) 이야기

여 백

포은 선생의 묘소에 얽힌 유래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소는 현재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 선생의 제사를 받들고 있는 재실이 바로 앞에 있고, 멀리서 맞바라 보이고 있는 곳엔 충렬서원이 있다. 그리고 바로 옆엔 저현(擣軒) 이석형(李石亨)의 묘소가 나란히 있는데, 이 곳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아심을 갖는다. 다음 이야기는 이 같은 의아심을 풀어주는 적절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포은 선생의 묘소 옆에는 저현 선생의 묘소가 있는데, 원래는 현재 저현 선생을 모시고 있는 묘소가 포은 선생의 시신을 모시기로 정하였던 터라고 전한다. 포은 선생이 개성의 선죽교에서 타살되고 임시로 개성의 한 지역에 모셔진 다음, 고향인 영천으로 이장하고자 하였을 때의 일이라 한다. 개성에서 상여를 메고 영천을 향해 가던 중 지금의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명정이 벗겨져 날아 가버렸다. 때아닌 바람이 불고 명정이 벗겨져 길이라도 인도하는 듯 날아가고 있음을 본 후손들은 모두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 그 명정이 날아가는 곳을 끝까지 따라가 보았다. 그랬더니 지금의 저현 선생이 모셔진 곳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지관이 이곳에 이르러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이보다 더 훌륭한 명당은 없을 것이라고 감탄하였다. 후손들에게 이는 반드시 포은 선생께서 스스로 마련하신 명당 자리이니 마땅히 이 곳에 안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모두들 이 명당 자리를 보고는 감탄하였다. 이때 포은

선생의 증손녀인 저현 선생의 부인도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자리가 탐이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안장지로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여러가지 궁리 끝에 이 자리에 물을 길어 부어서 바닥에서 물이 솟아 나온 것처럼 한다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기리라 생각하였다. 거의 저녁 무렵에야 이 곳에 이르러 유택지를 마련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날은 광만 겨우 마련하고 다음 날 계속해서 일하기로 하였다. 이 틈을 노린 저현 선생의 부인은 남몰래 밤새도록 물을 길어다 그 광에 부었다. 다음날 아침 일을 계속하고자 나와보니 광 속에는 물이 행진하게 고여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지관과 후손들은 이 같은 일을 당하고 당황하다가 현재의 위치에와 보고서는 이곳도 역시 명당자리이니 여기다 모심이 어떻겠는가 하며 중론을 모은 끝에 나중에 정한 택지에 모시기로 하였다. 저현 선생의 부인은 이 사실을 자신만이 알고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죽자 맨 처음 명정이 떨어진 곳에다 묘지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저현 선생은 바로 포은 선생의 증손주 사위인 까닭에 아무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러서는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묻힌 곳을 나를 합장해 달라 그러면 우리 연안 이씨 집안에는 대대로 복록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이 같은 일이 있는 후로는 이명당 자리는 복 때문인지 연안 이씨 가문은 번성해졌다. 저현 선생 이후로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선생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문장가들이 모두 연안 이씨였음은 이를 말해 주는 한 예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반면에 포은 선생 이후로는 연일 정씨 문중에는 이렇다 할 유명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포은 선생에 관한 이 같은 이야기는 이조 말엽에까지도 비밀리에 연안 이씨 가문에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비밀이 연일 정

내용누락

p. 89-90

우생원지묘(牛生員之墓)

소가 안성의 청상과부와 용인의 할아버지와 인연을 맺어 주었다는 전설이다. 이 일이 있은 후 그 소가 죽자 땅에 묻어 주고 그 앞에(牛生員之墓)라고 새긴 묘비를 세워 소의 은혜를 기렸다는 전설이다.

조선 효종때의 일이었다고 전한다. 용인사는 서춘길이라는 사람은 가난하기는 했으나 단란하게 살았다. 기르던 황소 한마리가 이 집의 전 재산이었고 농사때 없어서는 안될 큰 몫을 했기 때문에 춘길의 내외는 이 소를 지극히도 정성스럽게 거두었다. 그러던 어느날 춘길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고 죽어 가면서도 소를 팔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결국 어린 자식과 남편을 두고 숨을 거두니 춘길의 상심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함께 살면서 그토록 살뜰했던 아내를 호강 한 번 못시켜 보고 고생만 시키다가 사별 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던 춘길은 없는 살림이지만 마지막 떠나는 아내의 저승길이라도 후히 보내려고 꽃상여를 마련하여 장례를 치루었다. 그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 소를 팔지 말라던 아내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용인 장날 소를 내다 팔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소를 사간 사람은 안성의 흥판서댁이었다. 이댁 별당에는 평택으로 출가했던 외동딸이 있었는데 시댁 사람들이 돌림병에 걸려 모두 죽었음으로 청상과부가 되어 친정에 돌아와 얹혀 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감댁은 늘 근심이었다. 생각끝에 대감 내외는 똑똑한 머슴을 불러 별당 아씨를 데리고 멀리 황해도로 가서 살도록 이르고 피륙과 전대를 신고갈 소

를 사오도록 했던 것이다. 삼돌이는 뜻하지 않았던 대감댁의 처분에 너무나 기쁘고 들뜬 나머지 떠돌이 전달 양달쇠에게 눈치채이게 되고 기분 좋아 취한 술짐에 이 비밀을 말해 버렸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튿날 밤 삼돌이가 별당 아씨를 소에 태우고 길을 떠나자 흥대감 댁에서는 딸이 자결하였다고 헛 초상을 치루었다. 밤길을 떠난 삼돌이는 나긋나긋 흔들리는 별당아씨의 허리춤을 훔겨거리면서 막힘준한 구봉산 고갯길을 넘어섰을 때 난데없이 전달 양달쇠가 나타나서 길을 막아섰다. 그리고 아씨와 돈을 가로 채려고 하자 둘은 엉켜 붙어 치고 받고 하다가 벼랑으로 함께 굴러 떨어진 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쇠등에 앉아 있던 별당 아씨는 어쩔수 없이 소가 가는 대로 내 맡겨져 실려가고 있었다. 동이 틀 무렵 소가 당도한 곳은 용인의 춘길이네 집이었다. 한편 새벽 잠결에 소 우는 소리를 들은 춘길이가 밖을 내다보니 장날 내다 판 자기의 소가 삼작 밖에 와 있지를 않은가. 그리고 잔등에는 미모의 여인네 하나가 타고 있는 것이다. 반감고 의아해서 나가보니 여인은 몹시 지쳐 떨고 있었으므로 우선 여인을 내려 놓고 외양간으로 소를 들인다음 자초지정을 듣게 되었다. 소의 내력, 아내의 죽음, 과부의 사연이 밝혀지고 이와 같은 기연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억세게 재수 좋은 춘길이는 그날부터 이 소를 일러 우생원이라고 하였다. 주인을 위해 복을 싣고 돌아온 이 소가 명을 다하여 죽었을 때 춘길은 뒷산에 묻어주고 그앞에(牛生員之墓)라는 묘비까지 세워 소의 은혜를 기리고자 하였다.

1981. 4. 10. 이동면 천리
양 옥순(70세, 여)

창두봉의 명당자리

용인군 외사면 근창리 소재 창두봉산의 명당을 놓고 조정승과 민정승이 경계 싸움을 하는데 양지현감이 불러가서 산의 경계를 표시하고 도망갔다는 전설이다.

예로부터 용인 땅은 금계포란지지 형상이기 때문에 명당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외사면 근창리 창두산의 호형은 그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었다. 두창리에서 동남쪽에 자리잡은 창두산을 바라보면 하나의 산봉오리 아래에 마치 여인의 앞가슴 처럼 웅기한 두 개의 돌출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권문 세도가들이 탐내는 묘자리로써 이 산의 소유자들은 당대에 이름 높은 두 정승들이었다.

산의 모양이 마치 큰 호랑이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고 호랑이의 양쪽 눈에 해당하는 두 돌출부가 명당이기 때문에 조정승과 민정승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정승과 민정승이 관할하는 산의 경계가 분명치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두 정승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중 한 정승이 지관을 불러들여 양지현의 창두산 명당 자리 중 좀더 좋은 곳을 선점할 수 있도록 묘자리를 잡아보라고 시켰다. 부탁을 받은 지관이 창두산을 바라보고 그 위치를 표시하려고 산에 오르고 보니 다른 정승이 보낸 지관 역시 그 곳에 올라와서 언저리를 더듬고 있었다. 각기 정승의 부탁을 받은지라 서로 좋은 곳을 찾아 묘자리를 정하려고 하다가 지관끼리 싸움이 붙었다.

우의정이 보낸 지관은 좌의정이 보낸 지관을 보고 나라에는 관위가 엄연하여 우의정이 우선이므로 우의정의 명을 받은 내가 먼저 명당을 고른 연후에 당신이 나머지를 고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라고 욱박질렀다. 그러나 좌의정이 보낸 지관은 좌의정이건 우의정이건 당신이나 내가 정승이 아닌 바에야 직위의 고하가 무슨 소용이나 같은 지관이라고 한다며는 연치로 보아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을성 싶으니 오히려 나에게 양보하는 것이 장유유서의 도리에 합당하다. 정승은 정승끼리의 법도가 있는 것이며 지관은 지관끼리의 예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대들었다. 두 사람이 산중에서 아웅다웅하다가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각기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정승을 찾아가서 그와 같은 사정으로 묘자리를 정하지 못했노라고 하였다. 두 정승은 서로 그놈의 방자한 지관을 당장 불러다가 혼썰감을 내고 싶었으나 각기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참을 수 밖에 없었다. 화가난 두 정승은 자신들이 직접 내려가서 명당을 잡아 놓으리라 마음먹고 양지 고을로 행차하였다.

막상 양지 고을에 도착하여 보니 좌의정 우의정이 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명당자리 다툼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없었기로, 두 정승은 거북하게 인사를 나누기는 했으나 내심 불쾌하고 찻찻 했다. 이때 좌·우 두 정승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게 된 양지 현감은 정승 행차 길에 문안들이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부랴부랴 예를 갖추어 그곳에 당도하였다. 현감의 문안을 받은 두 정승은 화풀이 할데가 없던차 이 현감을 보자 호통을 쳤다.

공은 어찌하여 정승인 내 산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려 해도 방치한다는 말이요 라고 하자 또 한 정승은 내 산 역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오늘에 이르렀거늘 지역의 관장이 좌우의 구분도 못한데서야 어찌 수령이라 하겠오 라고 호통을 쳤다.

세상에 난처하기가 이보다 더한것이 또 있으랴. 두 정승 특바구니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 현감에게 벼락치는 소리나 떨어졌다. 현감은 들으시오 내 산의 경계가 어디 쯤이요 저 산 위에 있는 좌우가 분명치 않으니 풍이 구분해야 할 것이 아니오? 이 말이 떨어지자 현감은 생각했다. 만일 자칫하여 한쪽에 치우치는 날에는 영락없이 모가지가 성치 않으리라 기왕에 목이 날아갈 바에야 우선 이 곤경부터 면하리라고 마음먹고 대답했다. 소관이 지금부터 저 산을 오를 것이옵니다. 제가 가는 곳이 곧 산의 경계가 될 것이온 즉 저의 오른쪽이 우정승 대감댁의 산이며 왼쪽이 좌정승 댁의 산이오니 여기서 바라보고 계십시요 라고 말한 다음 창두산의 한 가운데를 치달아 산 꼭대기에 오른 다음 걸음아 난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두 정승은 현감이 가는대로 눈짐작을 해 두었다가 산지세를 그림으로 그려서 경계를 담은 후 현감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두 정승은 어이가 없어서 껄껄 웃다가 우리 때문에 고을 수령만 달아났으니 다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화해하였다.

그 후 두 정승은 창두봉 호혈을 한쪽씩 차지하여 거기 묻혔으나 그 후손들은 범혈에 나타나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는 지세에 눌러보 앞에 성묘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망배만 올린다고 전하고 있으니 그것이 정말 명당자리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1984. 11. 8 원삼면 두창리

김수용(60세, 남, 농업)

포곡면 신원리의 명당 자리

용인은 예로부터 명당 자리로 유명한 곳이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명당에 관한 이야기가 전하는 데, 신원리의 명당 자리 이야기도 이 중 하나이다. 용인 이씨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또한 신원리인데, 이 명당 자리 이야기는 이씨 문중과 관련되어 있다.

용인 이씨는 용인의 대성 가운데서도 가장 번성한 성씨이다. 이 문중에 이장군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어떤 이는 이 장군은 바로 경흥 지역의 여진족을 물리쳤던 이 일(李鎰) 장군이라고도 하는데, 이야기가 분분하다. 이 장군은 어려서부터 기운이 세었고, 겨드랑이에는 작은 날개가 돋아 모두들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신원리에 현재까지도 서있는 선들은 이 장군이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 날랐다고 한다.

어느날 이씨 문중에 초상이 있어서 이 장군도 문상을 갔다. 마침 상가에선 장지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지관이 이 장군에게만 던즈시 신원리 근방에 명당 자리가 있어 훗날 큰 인물이 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 장군은 그 명당 자리가 탐이 나서 지관을 밖으로 불러 낸 다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 상가에는 그 자리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러고는 전국에서 가장 이름난 지관을 다시 불러다 정확한 위치를 알아 두려 하였다. 여러 곳을 수소문하던 끝에 유명하다는 지관을 찾아가 명당의 위치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지관은 자신은 왕능 자리나 보는 사람으로 하찮은 일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거절하였다. 여러번 청하였음에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장군은 화가 나서 그 지관을 강제로 말에 태워 신원리로 왔다. 하는 수 없이 신원리까지 끌려온 지관은 명당 자리를 찾아주겠노라고 겨우 승낙하였다. 지관은 이장군과 함께 산에 올라가 방향을 고른 다음 위치를 찾아 나섰다. 한참 동안 이곳 저곳을 찾아 다니다 명당 자리를 찾아서 아무도 모르게 표시해 놓았다. 명당의 위치를 알려 준 지관은 이 장군에게 덧붙여 말하기를, 이 자리는 훗날 임금이 날 자리임에는 분명하나 앞에 물이 적어 그 세운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장군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운도 오래 가게 할 수 있는가 물었다. 그랬더니 지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백보 앞쪽에 우물을 파 두라고 하였다. 지관의 말대로 이 장군은 여러 장정을 시켜 우물을 파고는 그저 가뭄을 대비해서 웅덩이를 파 놓은 것이라고 거짓 알려주었다. 일을 마치고 이 장군은 지관에게 후하게 대접하여 보냈다. 그런데 지관이 이 장군의 강제에 못이겨 명당 자리를 보아주긴 하였으나 옳게 가르쳐 주었을 리가 없었다. 대강의 위치는 비슷할 망정 가장 좋은 곳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우물을 파게 한 것도 사실은 보복할 생각으로 알려 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던 뒤 용인 이씨의 문중에는 흉사가 계속 뒤를 잇고, 이 장군의 집안도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만 갔다. 지금도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명당 자리가 우물 어디엔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감히 찾아나설 엄두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980. 5. 3 포곡면 신원리

이 영숙(65세, 여)

지장실의 명당자리

지장실은 용인읍 역북리에 소재한 자연 부락으로, 석성산을 배경으로 마을이 뺨 둘러져 있다. 이곳에는 산세가 높아 비교적 험한 곳이 많으며 예로부터 명당 자리 또한 많았다 한다.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라 한다. 어떤 고을의 군수로 있던 부친이 돌아가자 아들 삼형제는 명당 자리를 골라 여러 지역을 방황하다가 석성산 밑의 지장실에 이르렀다. 이곳에 다달아서 주변을 돌아 보니 어느 지역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명당 자리였다. 여기에 부친의 시신을 모신다하더라도 훗날 누군가가 이 자리를 탐내 빼앗을 것을 염려하였던 아들 삼형제는 여러 계책을 궁리하였다. 이들은 이 명당 자리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판 다음 부친의 시신을 묻고, 석자 정도 석에 빈판을 묻었다. 그같이 하여 몇 겹을 채운 다음, 봉분도 만들지 않고 자신들만 알게끔 표시를 해두고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이들 삼형제에게는 영화로운 일 만 생기고 가산도 나날이 늘어갔다. 그러나 한편으로 용인에서는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이 타죽고 굶기야는 식수마저 구하기 힘들게 되었다. 가뭄이 극에 달하자 지장실 마을은 물론 용인읍내 주민들 모두가 깊은 걱정에 빠지고 말았다. 마을의 어느 한 사람이 용하다고 하는 점장이에게 찾아가 왜 가뭄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지 그 까닭을 물었다. 그랬더니 점장이가 하는 말이, 지장실 어떤 곳에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서 구

하기 힘든 명당 자리가 있어 이 덕으로 용인 사람이 혜택을 입어 왔는데, 요근래 어떤 사람이 그 곳을 파헤쳐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곳에는 반드시 시신을 묻었을 터이니 그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곧 비가 내려 가뭄을 면할 것이다 라고 알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점장이를 앞세우고 명당 자리를 찾아 나섰다. 온종일 찾아 다녀 보았지만 지장실 부근에는 새로 세운 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장이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불평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점장이는 포기하지 않고 성산 주위를 수없이 헤매며 명당 자리를 찾아 나섰다. 며칠 동안을 혼자 헤매던 점장이도 기진하여 포기한 채 하산하려 하였다. 산꼭대기에서 잠시 쉬며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피던 점장이는 홀연 지장실 쪽에서 상서로운 빛이 발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곳을 찾아 보았으나 그곳에도 새 묘소는 없었다. 더욱 낙심한 점장이는 그만 풀 위에 주저 앉고 말았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자신이 앉아 있는 곳을 제외하곤 풀이라곤 거의 말라 죽었지 않은가. 흙 색깔도 유난히 기름져 보였다. 하도 이상해서 점장이는 마을 청년들을 불러다 그곳을 파보자고 하였다. 점장이로부터 일당을 받고서야 땅을 파기 시작하던 청년들은 한 석자 정도 파헤쳤을 때 관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쳤다. 점장이 말대로 관이 있었던 것이다. 서둘러 관을 열어 보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있어야 할 시체가 없었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자 청년들은 욕설까지 퍼부으며 하산하였다. 점장이는 반드시 이곳에 누군가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못하였다. 하는 수 없이 혼자라도 파볼 생각으로 연장을 잡았다. 며칠 동안이나 뚫을까 또 하나의 관이 나왔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빈 관이었다. 점장이는 이처럼 빈 관을 묻어둔 것

은 시신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파 들어갔다. 끼니를 잊은 채 땅을 파 내던 점장이는 기진해서 거의 죽을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

손톱도 다 달아서 손사이 마다 피가 엉겨져 있었다. 그럼에도 점장이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 파내어 12개나 되는 빈 관을 파 낸 다음 또 하나의 관을 들어 냈다. 이 관을 열자마자 하늘에선 별안간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산으로 달려와 점장이를 만나고자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다 올라와 명당 자리를 보니 위에선 밀이 보이지 않을 정도 깊게 파여져 있고, 그 곳에는 점장이가 기진한 채 죽어 있었다.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점장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하산하여 장례를 지냈다. 모두들 점장이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장례 일에 도왔다. 점장이의 장례가 끝나고 난지 며칠이 지났는 데도 비는 계속 내려 그간 말랐던 땅을 흠족하게 적셨으며, 물이 둔전에까지 흘러서 독을 쌓아 막았을 정도였다 한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도 그 명당 자리가 있음이 분명한데 여의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1980. 6. 용인읍 김량장리
홍종억(65세, 농업, 남)

Ⅳ 효행(孝行) 이야기

여 백

효부(孝婦) 이야기 (1)

용인 지방에 전하여지는 고유의 전설이라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전설은 본래는 구연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녹음기에 담아 전사한 것인데 여기서는 체제를 맞추기 위하여 다시 정리 하였다.

옛날 모현면 갈담리 부락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효행이 뛰어나 마을 주민 모두가 칭찬하곤 하였다. 이들 부부는 나이가 연로하신 아버지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았으며, 부친은 항상 장죽을 길게 빼물고 담배를 피웠다. 그런데 어느날 할아버지의 장죽을 갖고 놀던 손주가 그만 잘못하여 그 장죽에 목이 찢려 죽고 말았다.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미친듯이 울부짖으며, 장죽을 꺾어 버릴 생각으로 한 손에 잡고는, “내 아들이 이 담뱃대 때문에 죽었으니, 내 이를 꺾어 버리고 말겠다” 말하였다. 이를 지켜본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는 “여보, 우리는 젊으니까 또 나오면 자식입니다. 부모는 한 번 돌아가시면, 영영 그만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됩니다” 하며 같이 통곡하였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새삼 놀라면서, “과연 내 아내답도다. 한갓 담뱃대일망정 아버님의 것인데 감히 내가 마음 대로 꺾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슬퍼하고 있음도 오히려 아버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이니, 이래선 안되겠다”고 자책하며 눈물을 억제하였다. 마음을 가다듬은 부부는 아버님의 방을 찾아가 잘못을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다. 손주를 잃은 할아버지도 자식들의 이같은 정

성에 감동하여 울음을 터뜨렸으나, 자신이 울음을 보이면 또한 자식의 마음이 더욱 아플 것을 걱정하여 눈물을 감추려 애썼다. 이 같은 일이 있는 후 부부는 아버님을 더욱 정성스럽게 모셨으며, 이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더욱 아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땅히 윗사람에게 알리어 효부비라도 세워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1985. 5. 11. 모현리 갈담리
황 호선(70세, 남, 농업)



효부 이야기 (2)

옛날에는 전국 어느 마을에도 늑대나 여우가 많이 있어 깊은 밤에 길을 가는 사람을 해하던 일이 많았었다. 어느 마을에 시아버지만을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다 한다. 마침 남편은 부역을 나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장을 보러 가셨다가 밤 늦게 까지 돌아오지 않으셨다. 며느리는 집에서 기다리다 못해 어린 애를 등에다 업고 마을 입구까지 배웅 나갔다. 한참 동안 기다렸으나 오가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더욱 조바심이 난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가다가 고개 등성이에까지 이르렀다. 고개 등성이에 이르자 늑대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어 잡아 먹으려 하였다. 겁이난 며느리는 아이를 앞에다 안고 땅에 엎드렸다. 그랬더니 늑대는 만일 안고 있는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너의 시아버지를 잡아 먹겠다고 하였다. 며느리는 질색하며 아이를 더욱 꼭 껴안고 들은 채도 안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이 아이를 내주지 않으면 분명 시아버지를 해칠 것 같았다. 늑대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이 울부짖었다. 며느리는 독한 마음으로 품에 안은 아이를 내주며 제발 뒤에 오실 시아버지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다. 늑대는 알아 들었는지 아이만을 물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이를 잃은 며느리는 낙심하여 두발을 짝 뺨고 통곡하였다. 얼마를 통곡하였는지 한참 뒤에 시아버지는 고개 등성이를 올라 와 있었다. 며느리가 애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달래며 그 연유를 물었다. 며느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도 오열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한참을 묵념하 울다가 지친 시아버지는 자신의 늙은 목숨

하나를 건지기 위해 귀중한 손자를 버린 며느리를 꾸짖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아이는 또 낳으면 되지만은 아버님은 한 번 돌아가시면 다시 모실 수 없는데 어찌 아이를 버림이 그토록 마음 아프겠으니까 하며, 눈물을 억제하면서 시아버지를 위로해 드렸다. 며느리의 애원으로 겨우 집에 돌아온 시아버지는 잃어버린 손주 생각으로 식음을 전폐하였다. 며칠 동안 자신의 잘못을 탓하던 시아버지는 이제는 울음 조차도 말라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으며, 식음을 전폐했던 때문으로 기진하고 말았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다시 애원하였다. 아범도 집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무슨 면목으로 남편을 대하겠습니까 만일 시아버님이 이대로 돌아가신다면 저 또한 그 뒤를 따라 죽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제서야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딱하계 여기어 억지로 일어나서 음식을 들고 태연한 척 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 남편이 부엌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마당에 뛰어나와 반겨주어야 할 아들 녀석이 보이지 않았다. 하도 이상해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여기 저기를 찾아 보았다. 며느리는 차마 말을 못하고 부엌에서 울고만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그 연유를 듣고난 아들은 부엌으로 가서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렇게 처신한 것이 잘 된 일이라 하면서 위로하며 마음 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일이 있는 후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효부, 효부하며 칭찬을 마지 않았다고 한다.

1985. 5. 11 모현면 갈담리
황 호선(70세, 남, 농업)

효부 이야기 (3)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큰 난리가 났을 때 이야기라 한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피난을 하는데 워낙 급한 상황이라 양식조차도 갖고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어떤 한 집에 큰 집의 아들과 자기 자식을 기르고 있던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한 아이는 두고 가야 할 형편이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큰 집아이는 그냥 두고, 자기 자식만 데려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힐난하며, 큰 집아이는 우리 가문의 종손인데 만일 놔두고 간다면 필히 죽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가 끊기지 않겠는가 하였다. 누구 하나를 놔두고 가야 한다면 마땅히 자기 자식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고집하였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고맙기 이를 데 없다고 아내에게 말하며 자기 자식을 방 안 깊숙히 숨겨 두고 집을 떠났다. 조카를 업고 난리를 피해 다니던 이들 부부는 자기 자식 이상으로 정성스럽게 먹였으며, 잠시도 숨을 돌리지 못하였다. 난리가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이들 부부는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거의 다 타 버리고 본채 하나만 겨우 남아 있었다. 이 정도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부부는 방을 열고 들어갔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 난리를 피해 떠날때 숨겨 두었던 아이가 살아 있었던 것이다. 입에는 인삼 한 뿌리가 물려져 있었으며, 자신이 정성스럽게 먹였던 조카보다도 건강해 보였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는 필경 당신의 마음씀이 너무나 착하여 하늘이 도우신 것이다 하며, 이제 이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자고 다짐하였다.

이야기가 여러 마을에 전하여졌으며, 아직도 모현면 갈담리 지역에서는 자신의 집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1985. 5. 11 모현면 갈담리
황 호선(70세, 남, 농업)



아들의 목을 자른 효자

부친의 병환에는 15세 동자의 목을 잘라 삶아 드려야 한다는 탁발승의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의 목을 잘랐다. 후에 보니 아들은 살아 있었으며 그것은 동삼(童參)이었다는 효행 전설이다.

용인군 남사면 아곡리 매능 부락에 4대 효자 효부의 정려각이 있다. 정려각 맨 우측을 보면 김치복의 정려문이 있는 바 자(宇)는 유지(緩之), 호는 졸암(拙庵)이고, 숙종 을묘생(1675)이며, 벼슬은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중추부사(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어려서 부터 사친지도(事親之道)를 능히 알고 부모 공경하기를 극진 성실하게 하였다.

어느날 부친이 병이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모든 정성을 다하여 간병하였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아침 저녁으로 치성도 드렸고 무당 불러 굿도 하여 보았으며, 명산대찰에 불공도 드렸으나 부친의 병환은 날로 위중해 갈 뿐 아무런 차도가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 치복이 전전궁중 근심 중에 하루는 탁발승이 나타나 시주 하기를 빌었기로 아무소리 없이 쌀 한 되를 탁발승의 배낭속에 넣고 나자 탁발승이 한동안 치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시주님 덕에 필시 우환이 있는 듯 하오만 소승이 알아도 될 일이 온지오 하고 말한다.

치복은 부친의 환우 위중 하시어 갖가지 비방과 처방으로 구환코자 하였으나 정성과 공력(功力)이 부족한 탓인지 아무런 효험이 없

을 뿐 만이 아니라 불연이면 다시 일어나지 못 하실 것으로 보이니 이에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느냐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었다. 이의 사정을 다 듣고난 탁발승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시주님 부친의 환우를 퇴치 할 수 있는 한가지의 비방이 있기는 하나 어찌 사람으로서 해낼 수가 있을 것이오이까? 차라리 말 앓하느니만 못 할터인즉 … 관세음 보살 …

이 소리를 듣자 치복은 정신이 퍼뜩 들었다. 아니 스님 부친의 환우만 치유할 수 있다면 내 지옥인들 어찌 마다 하겠오이까? 제발 처방을 알려 주시요 하면서 간곡히 빌었다.

탁발승은 입을 열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여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을 희생 시켜야 하는 것이니 이 또한 불가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 어찌 말 할 것이며 그 죄업을 어찌 감당 하오리까? 관세음 보살 … 그래도 치복은 승려의 가사를 놓지 않고 비방을 알려 달라고 매달려 끝내는 방도를 알아 내기는 했으나 너무나 끔찍하여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부친의 병환은 날로 악화 되어 가고 있었으니 그의 안타까움은 이만 저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이를 눈치 챈 그의 부인이 연유를 묻자 치복은 말했다. “여보 부인 아버지의 병환에는 15세난 동자(童子)의 머리를 구하여 삶아 드려야 낫는다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요” 하고 탄식을 하는 것이다. 이의 말을 듣고 있던 부인은 남편에게 “여보 자식은 낳으면 또 얻을 수 있는 일이 오나 부모는 한번 가시면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오. 그렇다고 남의 집 자식을 죽여서 부친의 병환을 구한다고 하는 것도 이 또한 도리에 어긋 나는 일이 온 즉 마침 큰 애가 15세도 되고 하니 그 애를 죽여서라도 아버님 환우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렇게 의견을 물은 치복의 내외는 이튿날 서당에 가려는 아들에

게 하얀 쌀 밥을 지어 주고 깨끗한 옷 한 벌을 입혀 주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 오늘이 내 생일 인가요 이 처럼 쌀 밥도 지어 주시고 옷도 주시니 영문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듣는 부모의 마음인들 얼마나 아팠겠는가? 좋아라 하고 서당으로 뛰어가는 자식의 뒷 모양을 보고 처부의 내외는 오열 하였다. 아들이 돌아 올 때 짚이 되자 처부는 부엌 칼을 시퍼렇게 갈아 가지고 아들이 돌아 오는 서낭당 고개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그의 아들이 고개를 넘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고개마루에 다닫자 아비를 본 아이는 소리치면서 아버지가 웬 일로 여기와 계시냐고 반갑게 달려 오지를 않는가? 처부는 서낭당 아래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찌른 후 황급히 그 목을 잘라 보자기에 썸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것을 부인에게 건네 주었다. 부인 역시 그것이 자기 아들의 머리인 것을 알았음으로 펴 보지도 못하고 보자기채 솥에 넣고 불을 뚫다. 한편 아침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받아 입고 서당에 온 그의 아들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하였다.

점심 때가 되었는데 각자 싸운 밥을 먹으러 학동들이 몰려 나간 후 서당의 훈장은 장침에 머리를 고이고 잠시 잠이들었는데 비몽사몽 간에 도인이 나타나서 오늘 저아무개는 집에 돌려 보내지말고 내일 그 부모가 오거든 보내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훈장은 하도 꿈이 역역하여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 하였음으로 글 공부가 파했을 때 그 아이를 불러다가 물도 길게 하고 불도 때게 하다가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처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아들의 머리를 삶아서 그 국물을 떠다 부친에게 드리고 난 후 이제 부친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였으니 목 없는 자식의 시신이라도 거두어 묻어 주자고 하여 처부의 부부는 그날 새벽녘 시체를 수습할 면포를 가지고 서낭당 고개를 갔다. 그런데 이상

하계도 嶽 근처에 있어야 할 아들의 시체가 눈에 띌지 않았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이요 분명 이곳에서 그 놈의 목을 뺏는데 시체가 없다니 ... 하면서 두 내외는 해가 뜨는 줄도 모르고 언저리를 헤매고 있었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치복의 내외는 아이가 다니는 서당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뛰쳐 나오면서 예구 아버지 어머니 용서 하세요 훈장님이 어제 서당 심부름을 시키셔서 집에 못 갔는데 예까지 찾아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치복의 내외는 뭐가 어찌된 영문인지 종시 판단이 서지 않았으나 분명 죽은 줄로 알고 있던 아들이 눈 앞에서 말을 하고 서 있으니 참으로 놀랍고 반감기만 하였기로 두 내외가 아들을 붙들고 목 놓아 울었다. 아들은 어머니 다시는 안그렇게요 용서 하세요. 이려지 마세요 하며 집에 돌아가지 않아서 그리는 줄 알고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보고 있던 훈장은 안으로 오르게 하여 꿈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내지 아니 하였오 하며 미안한 안색을 짓는다. 그때서야 치복의 내외는 저간의 사정을 털어 놓았다. 그렇다면 어제 죽인 아들은 누구란 말인가 하면서 아들 훈장 치복의 내외가 함께 집에 돌아와 솔 뚜껑을 열어 보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던가 그 솔 속에는 커다란 동삼(童蔘) 하나가 삶아져 있는 것이었다.

치복은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서 신령님이시다 하면서 정한수를 떠다 바쳐 놓고 예배를 드렸다. 그후 부친의 환우는 씻은 듯이 낳았으며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산신령이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동삼으로 하여금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게 한 것이며 또한 그의 효성을 다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의 소문이 원근에 퍼져 나가자 사림이 쟁침하여 조정에 알렸음으로 순조 신미년(1811)에 정려문을 내렸다고 전한다.

1985. 4. 15 완장리 매능동 거주

김 치복 8대 방손

호랑이의 도움받은 효자 김상술(金相述)

내사면 대대리 한터 부락에 있는 김상술(金相述)의 효자비에 얽힌 효행담이다. 이 설화를 구연하신 정명림 할머니가 어렸을 적에 들었다고 하나 명심보감에 있는 도씨(都氏) 효행담과 유사하다.

효자 김상술은 편도 슬하에서 몹시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나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숲도 구어 용인장에 내다 팔아서 노모에게 늘 고기국을 끓여드렸다. 그날도 부지런히 숲 한 짐을 지고 20여리나 되는 김량장에 나왔으나 저녁이 되도록 숲을 팔지 못했으므로 짐을 지고 일어나려고 할때 마침 부자 어른에게 후한 값을 받고 팔 수 있었다.

상술은 흥이 나서 얼른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꿩 끈으로 묶어 지게 꼭지에 매달고서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난데 없이 커다란 술개 한 마리가 지게 꼭지에 매어둔 고기를 나뉘채 가버렸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끓여 드리려던 고기를 빼앗긴 상술은 안타까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수 없이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집에 다다른 상술이 마당권을 들어섰을 때 아까 술개가 채간 고기가 거기 떨어져 있었기로 희색이 만면하여 고기국 끓이는 것을 거르지 않게 되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남달리 깊은 그의 효심 때문에 술개도 탐하지 않았다고들 하였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세월이 가서 어미의 나이 많아지므로 기운이 쇠하여 병을 앓게 되었는데 상술은 모친이 먹고싶다고 하는 것은 무

엇이든지 구하여 드렸다.

그러던 어느날 시절은 춘삼월이었는데 그의 모친이 원하기를 말랑 말랑한 연시나 한 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상술은 울면서 감나무 있는 골짜기에 찾아가서 혹 감이 있거나 없을까? 하고 해가는 줄도 모르고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때아닌 홍시가 어디 있었겠는가. 산중을 헤매던 상술은 날이 저물어 길을 잃게 되었는데 갑자기 황소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앞을 막아서더니 등에 타라고 하는듯 하여 그 잔등에 탔다.

호랑이는 나는듯이 어둠속을 달려가더니 어느 지경인지에 당도하자 상술을 내려놓았다. 캄캄한 밤중에 지척을 분별키 어려운 산중인 것 같은데 사방을 둘러보니 반짝반짝 불빛이 보였다. 상술은 불빛을 바라보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 밤중에 호랑이 등에 탔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왔으니 하룻밤 재워 달라고 하여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집에는 마침 집 주인의 부친 제삿날이어서 제사를 끝내려던 참이었는데 쟈상 위를 보니 홍시가 가득히 담겨 있지를 않겠는가? 기이하게 여긴 상술은 제철도 아닌데 어인 감이 쟈상에 있느냐고 묻자 집 주인이 말하기를 내 부친이 생존하셨을 적에 홍시를 꺾이나도 좋아 하셨는지라 내가 이를 잊지 않고 가을이 되면 성한 홍시 백여개를 골라서 깊은 굴속에 저장하고 입구를 막아 놓았다가 오늘처럼 제삿날이 되어서야 굴속의 홍시를 꺼내게 되었도이다. 그런데 예년에는 백개를 넣어 두면 성한 감을 겨우 대여섯개 밖에는 구하지를 못하였는데 오늘은 작년 가을에 넣어둔 감이 무려 오십여개나 온전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토록 싱싱한 감을 쟈상에 올릴 수 있었으므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터라고 하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듣자 상술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씨는 부친의 제사모시는 일에도 저렇듯 각별하신데 이 높은 병환중에 계시는 모친에게도

드릴 감을 예비치 못하였으니 이런 불효가 또 있겠습니까?

실은 이놈의 모친께서 홍시 하나 얻어 잡수시기를 원하시므로 내 감나무 밭을 오가며 탄식하던중 저 호랑이를 만나 이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면서 호느꼈다.

이 소리를 듣던 주인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 일이 어찌 효행일 수가 있겠오. 지금 생각컨대 전에 얻을 수 없었던 많은 양의 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신령님께서 형씨의 효심을 생각하시어 그리하신 것이 분명한듯 하니 어서 이 홍시를 거두어서 모친께 드리도록 하시오 하면서 오십개의 홍시 반을 나누어 주었다.

상술은 기뻐서 주인에게 큰 절을 한 후 얻은 감을 소중히 들고 문밖을 나섰더니 그때까지도 호랑이가 문밖에 있었다. 다시 타라고 하는 것 같아 또 올라탔더니 역시 나는듯 하다가 멈추었기로 정신을 차려보니 상술이 사는 집 앞이었다.

상술이 감을 구하려는 효행을 보고 산신령이 감동하여 감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온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본받게 하고자 효자비를 새웠다고 전하며 그후 상술의 모친 병도 완쾌되어 천수를 누렸다고 전한다.

1985. 2. 4 용인읍 고림리 단사
정 명길(80세, 여)

호랑이도 감복한 김진사의 효행

용인읍 남리 평옥에 있는 효자 정문에 얽힌 이야기로, 정려의 기록에 '효자 성균 생원 동몽교관 조봉대부 경주 김 영희지문(孝子成均生員童蒙教官朝奉大夫慶州金永喜之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김 진사는 바로 김영희이다. 경주 김씨의 자랑거리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전설이다.

효자 김 진사는 어려서부터 효행이 두터웠다고 한다. 아버지가 밥을 들면 그 옆에 반드시 앉아서 찬을 올려드렸으며, 출타하실 때에는 먼데까지 전송해 드린 다음, 돌아오실 때 다시 나아가 배웅하였다. 이처럼 효성스럽게 봉양해드렸어도 천명을 다하고 세상을 마친 아버지의 목숨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던 김진사는 밤낮으로 제사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3년 동안 시묘를 한 번도 결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장마가 져서 묘소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다. 김진사는 불어나는 물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애를 태웠다. 이 때 어디선가 큰 호랑이 한마리가 나타나 김진사의 앞에 엎드리면서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김진사는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두려움도 없이 그 호랑이 등 위에 올라 앉았다. 호랑이는 단숨에 물을 건너 아버지의 묘소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호랑이 덕으로 무사히 일을 마친 김진사는 또 걱정이 되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도 비가 멎지 않았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돌아가려고 내려온 김진사는 호랑이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돌아올 때에도 호랑이 덕을 본 김진사는 집에 당도하여 잠에

기르고 있던 개 한마리를 호랑이에게 던져 주었더니, 호랑이는 고맙다는 듯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라졌다. 이 일이 온 동네에 알려지고, 나라에까지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정려의 은전을 내렸다고 한다.

1978 5. 10 용인읍 남리
이 윤순(71세, 여, 농업)





송지겸(宋之兼)과 정문동

내사면 송문리의 정문동(旌門洞)은 이곳에 효자 송지겸(宋之兼)의 정려문이 서게 된 뒤 그렇게 불리워졌다는 지명 전설과 함께 전해오는 효행담이다.

송지겸의 본관은 야성(冶城) 이고 자는 희주(希周)이며 영조 45년 기축(1769) 11월 27일 용인에서 출생하였다.

송지겸은 9대째 내려오는 외독자였으며 천성이 지효하고 영특하였다. 또한 그의 부친인 송표(宋杓)로부터 의술을 전수받아 명의(名醫)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루는 궁중에 초치되어 왕의 진맥을 보았다. 궁중에도 유명한 전의가 있었으나 그의 명성이 크게 알려져 있었으므로 불리워졌던 것이다. 진맥을 마친 송지겸은 궁궐을 나와 급히 탕제를 지어 입궐하였을 때 임금께서는 이미 붓어하셨기 때문에 임금의 환우를 고치지 못했다는 불충죄를 면할 수 없었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다. 부친의 생존시에는 조석으로 문안하였고 겨울에는 행여 방이 찰새라 군불을 지피 항상 따뜻하게 하였으나 하인을 시키지 않고 반드시 손수 하였다.

부친이 와병하자 집에서 20여리나 떨어진 타동에 피첩처를 정하여 정양케 하였으며 매일 탕제를 올리기 위해 20여리를 왕복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 늦어 길을 잃었을 때에는 벌이 나타나 길을 밝혀 주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끝내 부친이 별세하자 3년동안 묘막에

시 시묘(侍墓) 살이를 했고 거상중에는 소식으로 먹는것조차 삼가하였다.

그의 효행이 부친의 생존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으므로 유생들이 이를 흠경하여 조정에 다투어 상소하였기 정조 즉위 15년, 즉, 1791년에 효자 정문이 내려졌다.

순조 을유년(1815)에 수 53세로 졸하였으나 그에게 내린 효자 정문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곳을 정문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985. 8. 17 용인읍 김량장리

송 재권(44세, 남, 상업)

효자 어운해(魚運海)

삼대 효자를 배출한 함중어씨 일가에 전해오는 효행담으로, 부친의 등창을 입으로 빨아 치유한, 사친의 도를 일깨우는 전설이다.

효자 어운해는 함중어씨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가선대부 호조참판으로서 고종 갑자년(1864)에 효자 정려문을 받았고, 부친 어사량은 영조 무신생(1728)으로서 소학(小學) 일부를 평생의 근본으로 삼아 학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행함을 신조로 하고, 사친지도를 궁행함으로써 정려문이 내려졌다.

승습세효(承襲世孝)한 가통을 이어받은 어운해 역시 부모 섬기는 일에 진충갈력 하였다.

어느 여름날 부친 어사량이 등창이 나서 몹시 고초를 당하였다.

붉은 환부는 점점 커져가고 부친은 날로 쇠잔하여 식음을 전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모든 치료약과 갖은 비방을 다하여 치유코자 노력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마침내 등창이 끓아터져 피고름이 흐르자 어운해는 숨으로 짜냈으나 깊숙한 환부의 응어리를 짜낼 수가 없었으므로 광술불을 밝히고 입으로 종기를 흡착하여 고름을 빨아내고 있었다.

이때 마침 지방을 순행하던 어사가 그 집앞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젊은 놈이 늙은이의 등을 물어 뜯고 그럴때마다 늙은이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 참으로 괴이하게 생각되었다. 어사는 종자를 돌아다 보면

서 아니 저렇게 불효망척스러운 일이 있겠느냐 어찌 늙은 놈이 늙은이의 등을 물어 뜯는다는 말이고? 하고 그 쪽을 가르켰다. 종자 또한 유심히 바라보니 늙은이의 등을 물어 뜯을 때는 비명을 지르다가도 입에서 피를 뱉아 내면 어이쿠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꼴을 볼 수가 있었다. 나으리 필시 저 불한당이 늙은이를 물어 뜯는가 보웁니다. 라고 하자 어사는 노기가 충천하여 저런 천하에 둘도 없는 불한당을 당장잡아 틀이라고 호령하였다. 명을 받은 종자 두엇이 사립 짝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서며 네 이놈 멈추어라 너는 어찌하여 저렇듯 쇠잔한 노인의 등을 물어 뜯고 있었느냐 당장 내려와 대죄 하려다 하고 어운해를 끌어 내렸다. 어사앞에 꿇린 어운해는 무슨 영문지 몰라 왜 나를 속박하시요 라고 묻자 어사는 노기뻔 목소리로 꾸짖었다. 네 이놈 어이하여 늙은이의 등을 물어 뜯고 있었는지 그 연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하였다.

어운해는 꿇어앉아 시생의 부친이 등창으로 고생 하시는 중에 마침 파종이 되시어 하는 수 없이 입으로 피고름을 흡착하고 있었아웁니다. 가세가 곤궁하여 의원 한번 모시지 못하옵는 이 불효를 단죄하여 좁소사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을 들은 어사는 진정 그게 사실이더냐 면서 그의 부친 등을 보니 환부가 여간 위중한것이 아니었다.

어사는 운해의 등을 두드리면서 어찌 이럴수가 있더라 말인가 부친의 등창을 입으로 빨아 내다니 참으로 기특한 효자로구나 라고 하면서 탄복 하였다.

그 이튿날 것처럼 위중하던 부친의 병세는 확연히 차도가 있었으므로 운해는 날마다 등창을 흡착하여 피고름을 짜 냈음인지 부친의 등창은 얼마 안있어 치유 되었다.

어사는 이와 같이 탁이한 효행을 상감께 아뢰었기로 이동면 송전

동 여현 고개에는 3대에 걸쳐 중복된 정려문이 서게 되었다.

또 모친의 간병시에는 황작이 날아 들었고 설중에 생대추를 얻어 봉양하였으니 이 모두는 감천지성(感天至誠)의 효심 때문이라 하였다. 뿐만이 아니고 모친의 병세를 알기 위해서 매일 같이 변을 받아 맛보았고 탕재를 끓이고 다리는 일은 만드시 손수 하였으며, 모든 음식은 먼저 맛보아 모친의 구미에 맞을 것인지를 검증하여 올리니 이의 효행을 보고 인근의 백성이 흠경하고 다투어 칭송하였다.

1985. 6. 13 이동면 송진리
함조어씨 종친회장

노비 이상(李尙)의 효행

호환을 당하여 죽은 어미의 시체를 빼앗은 어린 이상의 효행으로써 용인읍지의 기록에도 전한다. 맹호도 '효행에 감복하여 어린 이상을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 효행 전설이다.

이상의 나이 7세 때였다. 그의 부친은 전사택 머슴살이를 하였으나 생활이 빈천하였으므로 그의 어머니 역시 이웃집 허드레 일도 도와 주거나 빨래와 침선 길쌈등을 해가면서 살림을 꾸려 나갔다. 이상의 나이 어리 빈집에 두고 나돌아 다닐 수 없었으므로 그의 어머니는 늘 아들의 손을 잡고 이웃으로 마을로 함께 다녔다. 아버지는 자고 나면 전사택으로 일하러 나갔으므로 집에 남았던 상(尙)은 어머니를 따라 다니며 길쌈 일을 도왔다. 부지런히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 끼니를 여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한가할 때가 없는 고된 생활이었다.

그 날은 마침 뭇감이 떨어졌으므로 그의 어머니는 대치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야 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상의 손을 이끌고 함께 산에 들었다. 그런 다음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아 상을 있게 하고 숲이 우거진 골짜기를 향해 내려갔다. 부지런히 청솔 가지를 쳐고 솔잎을 끊어 모으고 있을 때 난데 없이 황소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그의 어머니에게 달려 들었다. 이 때 그의 어미는 크게 놀라면서도 어린 상을 보고 빨리 달아나라고 소리치면서 갈퀴로 호랑이를 쫓았으

나 결국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이를 본 어린 상은 달아나지 않고 어미의 시체를 물어 가려는 호랑이를 쫓아갔다. 목 뒤를 물어 끌고 가는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은 상은 울면서 소리쳤다. 이 늑의 호랑이야 너 같은 짐승이 우리 엄마를 죽이고도 어디로 끌고 가려느냐 당장 우리 엄마를 내놓아라 라고 하면서 호랑이의 꼬리를 놓지 않았다. 이 어린 아이의 효행에 감복했음인지 호랑이는 그의 어미 시체를 두고 어슬렁 어슬렁 숲 속으로 사라졌다.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어미의 시체를 부등켜 안고 소리쳐 울자 지나가던 사람이 듣고 이의 사실을 마을에 알려 시체를 수습하였다.

7세의 어린 아이가 호랑이로 부터 어미의 시체를 빼앗아 낸 일이 상감께 알려져 그해 갑술년 효자정문이 내려졌다. 그후로는 대치산에 호환이 없었다고 전한다.

1981. 4. 17 용인읍 역북리
이 상창(40세, 남, 상업)

충노(忠奴) 무작금(無作金)

하루 아침에 고아가 된 상전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양육하여 등과시킨 중부 무작금의 충직스러움과 그 은공을 잊지 않고 종의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 주었다는 주종간에 얽힌 이야기이다.

용인군 의사면 장평리 조비산 아래의 외초동(外草洞) 마을에 진사 정시익(鄭時翼)이 여덟살 나던 해에 양 부모가 역질에 걸려 일시에 죽었다. 따라서 시익은 하루 아침에 천애 고아가 되었는데 인근 동리 사람들은 역질(전염병)로 죽은 집 아이를 돌보기 조차 꺼려 했으며 비부들도 모두 도망가고 말았다. 그러나 선대로부터 시익의 집 안에서 살아온 종 무작금은 목천(木川)에 살고 있던 시익의 외삼촌댁에 부음을 알리고 딱한 처지를 말 하였으므로 그 외삼촌이 장례비를 마련해 주어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무작금은 제구(祭具)를 마련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삼년 상을 마치도록 돌보았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무작금은 어린 시익을 등에 업고 산과 들에 피난하여 갖가지 고생을 겪으면서도 무사히 보호했다. 뿐만이 아니고 무작금은 지필묵을 마련해다가 글씨를 배우고 익히도록 하였으며 시익을 업고 다니며 서당의 훈장에게 글을 배우도록 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시익은 글 읽기를 게을리 하고 때로는 악동과 어울려 말썽을 이트키는 일도 있었다. 이를 보고 마음 아파하던 무작금은 시익을 끌고 사당에 들어가 시익의 부모 신위 앞에 꿇어 앉게 하였다. 그리고는 영전에 고하기를 종이 주인을 때리는 일이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오나 주인 양주가 세상을 떠나시고 도련님 혼도를 못 하옵는 것을 아신다면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인 나리의 혼령이 계시다면 이 종놈의 손을 빌어 도련님을 혼도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고한 다음 그 신위 앞에서 시익을 매질하였다. 그런 다음 도련님께서 성년 하시거든 이놈에게 벌을 내리시라고 말하고 대성통곡 하였다. 비록 나이 어린 시익이기는 했으나 어찌 감동치 않았으리요 불철주야 학문을 뒤야 마침내 과거에 급제 하고 현감부가 되었다. 또 강가를 들어 가정이 되었고 왜란을 겪으면서 잃었던 부친의 모든 땅을 되찾아 가문을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이 무작금의 성충근독(誠忠勤篤) 한 정성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임금께서는 충노 무작금에게 특별히 정려(旌閭)의 은전을 내리셨다. 후사가 없는 무작금이 세상을 떠나자 그 손에서 자란 시익은 종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당을 짓고 무작금이 죽은 날과 절일(節日)에 제사를 지내 주었다. 그후 정시익 후손 들은 대를 이어 무작금의 사당을 수호하여 내려 왔으며, 문헌에는 폐지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으나, 지금은 한낱 전설로써 전해오고 있을 뿐이다.

1984. 10. 21 용인군 내사면 식금리

박 용익(55세, 남, 농업)

제 2 부 전래동화(傳來童話)

여 백

학동어사(學童御使)의 판결

백성들이 제소한 까다로운 문제의 처리를 놓고 고민하던 현감이 어느 서당 앞을 지나고 있었다. 이때 어사 놀이를 하고 있는 학동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제소한 문제를 이야기 하던터니 아주 명쾌한 판결을 내려 줬다는 이야기로서 용인읍 운학리에 전한다.

조선 숙종때의 일이라고 전한다. 충청도 보은 땅에 살던 한 선비가 양지 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초임지 이기도 하였지만 지방 수령으로써 백성들을 다스림에 모든 정성을 쏟아 선치 하였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 해 주려는 현감으로 점점 알려져 칭송하는 소리가 널리 퍼져 나갔다. 여러가지 송사도 있었으나 우매한 백성들의 엉뚱한 문제에 접했을 때는 여간 한 곤역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중에는 어느 꿩 사냥꾼의 딱한 사정도 있었고 복 받기 위하여 경작하던 논밭을 절에 시주 했다는 농부등의 탄원도 있었다. 그것이 비록 하찮은 일일 지라도 백성들의 생활이며 그들 스스로 해결짓지 못하고 찾아오는 일이므로 박정하게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꿩 사냥으로 먹고 산다는 백성이 사냥 매를 잃어 버리고 이를 찾아 달라고 애걸 하는데 아전들은 눈살을 찌프리며 겁이나 주어 쫓아 버리자고 하였지만 이 현감은 그 사정을 참고 들었다. 그러고는 강구해 보겠으니 돌아 가라고 하였다. 이 사냥꾼이 나가자 이번에는 한 농부가 찾아와 억울한 사정을 탄원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농부는 살기가 궁하고 농사짓기가 하도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먹고

살까? 하는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때 한 탁발승이 찾아 왔음으로 시주를 하면서 그런 방도가 없겠느냐고 하였더니 부처님께 공덕을 쌓고 복을 받으면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공덕을 쌓아야 하느냐고 하였더니 힘들여서 농사짓고 있는 전답을 절에 바치면 그것이 공덕이고 농사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산역이 편하게 되며, 또한 복을 받을 것이니 잘 살 수 있을게 아니냐고 하였다. 꼼꼼히 생각하여 보니 이보다 쉬운 일이 없을 것 같음으로 죽석에서 전답을 절에 바쳤다는 것이다. 그 후로는 농사철이 되어도 심고 거두는 걱정은 없었으나 복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나마 죽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농사일을 하지 않으니 입에 풀칠 하기조차 힘에 겨웠는지라 한해가 지나서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절을 찾아가서 그 탁발승을 만나 절에 바친 전답을 도루 내어 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은 복을 아직 못받고 있는 것은 공덕이 부족한 탓이려니와 한번 바친 전답을 도루 내어 놓으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서도 온당치 못하며 만일 도루 찾아 간다 하여도 그 죄업을 어찌 감당 하겠느냐고 하오니 어찌하면 좋으냐는 농부의 딱한 사정이던 것이다. 아전들은 이 어리석은 농부를 나무라면서 한번 주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준 것을 또 내노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였다. 현감은 백성의 사정도 그리하려니와 불심공덕이 부족했다면 그 또한 이유가 되리라 생각하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질 않았다. 그러던 차 고을을 순행할 일이 있어 어득운리(魚得雲里: 現 龜仁邑 雲鶴里의 옛이름)를 지나는데 서당에서 학동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모양을 보게 되었다. 노는 양을 보노라니 한 아이가 어사가 되어 일을 처리 하는데 사리와 법도가 제법 하므로 호기심에 이끌리어 그 앞으로 나아 갔다. 현감이 닦아서는 것을 본 이 학동 어사는 하던 놀이를 멈추지 않고 현감을 가르키면서 내 비록 등과하지 못한이기는 하

나 지금 이 서당에서 여러 학동이 추대한 어사인고로 서당 안을 들어 오는 자는 이 어사의 신분을 존중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맹랑 하였다. 그러나 현감은 짐짓 고명하신 어사님께 탄원이 있어 이곳까지 왔노라고 말하고 사냥꾼이 잃어버린 매를 어찌하면 좋으냐고 하였다. 학동 어사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판결 하는 것이다. 그때를 청산에서 잃었으니(失於靑山) 청산에 가서 매가 어디 있는지 물어 보라(問於靑山) 만일 산이 대답하지 안거든(問之不答) 그놈을 묶어 여기 대령하거라(執擧捉來) 하- 과연 그렇구만요 그이상 더 좋은 방법이 또 있겠아옵니까? 현감은 다시 묻는다. 이 우매한 백성에게 또한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온즉 부디 하교하시지요 라고 말한 후 농토를 절에 바친 농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어찌 하오리까? 말이 떨어지자 마자 어사는 판결을 내린다. 그것은 일년이 지나도록 서로 약속을 지킨 바가 되지 못하느니라 부처가 복 내리기를 더디한 것이나 공덕이 부족 했음이라 피차 일반 이므로 복은 부처에게 돌려 주고(復歸佛) 논밭은 속히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라(沓歸主) 짧고도 명쾌하게 처절했다. 현감은 돌아가서 그대로 시행하였다. 그리고는 말했다. 나라의 장래는 무궁하도다 어찌 어리석은 백성만이 있을 것인가 라고.

1983. 4 용인읍 운학리
이 종태(60세, 남, 농업)

용인에 와서 무릎 꿇은 죽산 자린고비

죽산에서 자린고비로 통하는 노랑이가 파리다리에 묻은 장을 찾으려고 용인까지 왔다가 용인 자린고비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자린고비 이야기로 용인의 어정과 아차지내 메주고개의 유래를 남겼다는 전설과 같은 모티브이다.

이른바 죽산에서 자린고비로 통하는 샌님이 장을 담았다. 그런데 쉬파리 한마리가 앞 뒤 옆다리에 장을 묻혀 가지고 다라났다. 이것이 아까워서 파리채를 들고 뒤 쫓아와 용인현에 이르렀다. 도망가던 파리가 지쳐서 구룡천 상류 개울가에 내려 앉았는데 돌맹이가 많아서 쉽사리 찾지 못하고 어정어정 아래 위로 찾아 다니다가 끝내는 발견하고 파리채를 내려 쳤으나 헛 치고 말았다. 또 도망가는 파리를 쫓아 고개 하나를 넘었는데 마침 개울에서 징검 다리를 타고 앉자 빨래하던 아낙이 있었다. 너무나 지친 파리는 그만 내려 앉는 것이 그 여인네의 엉덩판이었다. 오직 파리 잡기에 골돌했던 자린고비는 이것 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파리채를 내리쳐 엉덩판을 때리고 말았다. 느닷없이 엉덩판을 얻어 맞은 여인이 백주에 희롱당한 것을 분하게 여긴 나머지 들고 있던 빨래 방망이로 자린고비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이 경황 중에도 죽은 파리를 쫓아 들고 도망가던 자린고비가 금령고개에 이르러 잠시 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안장다리 갈자자 거름으로 지나 가는 것을 보고 하 피이 적어 그 연유를 물어 보았더니 하는 말이 똑바로 서서 걸자면 옷 것이 서로 닿으면 옷이 쉬이 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는 것 이라고 했다. 가

만히 생각해 보니 판은 그러했다. 죽산 자린고비는 오직 파리 다리에 묻은 아까운 것만 생각 했지 옷 헤지고 집신 떨어지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타관에 와서 아낙네에게 빨래 방망이로 얻어 맞아 골통이 깨지는 망신까지 당했음을 생각하니 분하고도 억울 했기로 들고 있던 파리를 발아래에 팽개쳐 매주 밟듯 뭉개고 또 뭉겠다. 이 일이 있는 후로 사람들은 이 고개를 메주고개라 불렀고 또 파리를 찾아 어정거리던 곳이라하여 그곳을 어정이라 하였으며 여인의 엉덩판을 때리고 아차 실수했다 하여 여인이 빨래하던 그 개울을 아차지 내(川)라 하였다 한다.

1982 3 3 구성면 중리

홍 종길(32세, 남, 교사)

재치 있는 어린 신랑

민머느리 제도가 성하였던 시대에 생긴 이야기라고 하며, 이 이야기는 용인 어느 지역에서든 들을 수 있는 자료이다.

옛날에 나이 많은 색시가 나아가 어린 신랑에게 시집을 왔다고 한다. 색시는 신랑이 나아가 어리기 때문에 남이 안보는 데서는 우습게 여길 뿐 아니라 구박도 서슴치 않았다. 하루는 어린 신랑의 성화에 화가 나서 색시는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궁리하던 끝에 지붕 위에 올려 놓고는 내려주지 않으면 속이 타겠지 하였다. 색시는 어린 신랑을 멀리 있는 곳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지붕 위에 올려 놓았다. 지붕에서 한참 동안 사방을 구경하던 신랑은 이제 무서워서 내려 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색시는 들은 척도 안했다. 신랑은 지붕 위에서 소리치며 야단이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와 소리나는 쪽을 쳐다 보았다. 그랬더니 지붕 위에서 어린 자식이 소리치고 있지 않은가. 시어머니는 왜 지붕 위에 올라가 그토록 소리치는지 물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색시는 안절 부절하였다. 만일 어린 신랑이 있는 그대로 일러 바친다면 자신은 쫓겨나갈 판이었다. 어린 신랑은 색시의 안절 부절하는 모습을 보고는 “뭐하고 있어. 바늘을 올려줘야 박이 굳었는가 안굳었는가 보지” 하였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어린 신랑이 박을 따러 지붕 위에 올라갔나 보다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제서야 색시는 안도의 숨을 쉬고 급히 신랑을 내려 놓았다.

또 하루는 색시가 마루 위에 있는 가재를 청소하다 접점이 쌓아 놓은 그릇을 잘못 건드려 모두 깨뜨리고 말았다. 그릇 깨지는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는 놀라서 달려왔다. 이에 색시의 난처한 모습을 바라보던 신랑은 자신이 장난치다 그만 깨뜨린 것이라고 말하였다. 시어머니는 그 속사정을 알고서도 그렇게 감싸주는 넓은 아량을 가진 자식이 대견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색시는 신랑을 껴안고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신랑은 색시를 위로하며 이제 부터라도 사이좋게 살자고 하며 손을 잡아 주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부터 색시는 어린 신랑을 아주 공경스럽게 대했으며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한다.

1985. 5. 11 모현면 갈담리

황호선(70세, 남, 농업)

둔전 갑부의 의리

둔전은 포곡면에 소재한 자연 부락으로 옛날 이 곳에 군사들이 주둔하였었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이 마을에 천석꾼이나 되는 갑부가 살았다고 하는 데 인정이 많아 오랜 시일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한다.

둔전 마을에 천석꾼인 부자가 살고 있었다. 이 부자는 물려받은 재산을 잘 관리하였을 뿐만아니라, 남들보다도 부지런하고, 검소하였으며, 인심 또한 후하였기 때문에 주변엔 친구들도 많았다. 마을 사람들도 이 부자의 일이라면 서로 나서서 할려고 할 정도로 덕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가 부자인 것을 널리 알고 있는 터이라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은 적지 않게 찾아와 도움을 청하곤 하였다. 이 부자는 그같은 청을 하나도 귀찮은 표정을 하지않고 들어 주었다. 한번 도움을 받은 친구들은 다시 도움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대해 주었던 것이다. 부끄러움을 억제하고 다시금 돈을 빌리러 온 친구는 자신이 먼저 차용증을 써 놓고 도움을 청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친구들에게 후하게 대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하나씩 멀어져 갔다. 이 부자를 보면 일부러 피해 갈 정도였다. 이 부자는 혹 자신이 그들에게 잘못을 하지나 않았는가 하는 마음으로 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가 자신의 집에 놀러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다 쓴 친구들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자네의 돈을 마구

빌어 쓰고는 미안해서 그런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이 부자는 집에 돌아와 앉는 즉시 친구들로부터 받아둔 차용증을 불태워 버렸다. 아내는 놀라서 그 까닭을 물었다. 이 부자는 돈은 앞으로도 더 벌 수 있고, 그 친구들 돈을 벌게 되면 언제고 간에 갚을 터이니 이 차용증이 될 필요하겠는가. 돈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친구는 다시 찾을 수 없을걸세 하였다. 아내는 남편의 이같은 아량에 감동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부자의 이같은 행동을 들은 친구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 되었음을 크게 깨우치고는 예전대로의 정의를 나누고자 몰려 들었다.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 돈을 빌던 친구들은 더 이상 돈을 빌지 않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였으며, 차용증도 없는 돈을 갚기까지 하였다. 이 부자가 세상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은 자신의 일처럼 장례를 돌보았고, 그의 인덕을 영원히 전하고자 비석을 세워 칭송하였다 한다.

1978. 6. 10 포곡면 둔전리

김 상철(18세, 남, 학생)

범인은 남편 친구

산삼을 캐러 나간 후 행방불명된 사람의 부인이 어린 아이의 기지로 범인을 잡아 남편의 원수를 갚았다는 이야기로서 원삼면 지역에 전해오고 있다.

한 동리에 살아온 최서방과 박서방은 펍 다정한 사이였다.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었고 농사일도 함께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구봉산으로 산삼(蔘)을 캐러 가기로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

산에 당도한 이들은 먼저 산신령에게 기도를 드렸다. 제발 오래 묵은 산삼을 캐 수 있도록 해주고 무사히 하산할 수 있기를 빌었다.

그리고 난 후에 두 사람은 각기 헤어져 삼을 캐 다음 해가 산을 넘을 때쯤 그곳에서 다시 만나 접으로 가자고 하였다. 서로 헤어진 이들은 험준한 산을 오르내리면서 삼을 찾아 헤메었다. 그 중 최서방은 벼랑 밑에서 오백년이나 된 커다란 산삼 하나를 캐다. 최서방은 대단한 횡재를 하여 희색의 만면하였다. 이놈만 팔면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겠지. 어서 가야지 하면서 산을 내려오다가 박서방과 약속한 장소에 먼저 가 있었다. 해가 서산을 넘을 무렵 박서방도 그 자리에 돌아왔으나 빈 손이었다.

최서방은 자기가 캐 산삼을 보여주면서 한 오백년은 묵은듯 하니 우리 세 식구 먹구 사는 일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박서방이 그렇게 큰 삼을 못찾아 낸 것이 못내 서운하였다. 내가

이 친구만 아니더라도 저 삼은 내가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자 앞서 가는 최서방의 머리를 돌로 때려 실신케 한 다음 깊은 버랑으로 밀어버렸다. 박서방은 최서방이 캔 그 산삼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내려와 벽장 깊숙히 감춰두었다. 그러나 혹시 최서방이 살아서 내려오면 어찌하나 하고 근심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로 한밤중에 최서방내로 가서 “옥랑이 어머니, 옥랑 어머니 잠드셨우 옥랑 어머니” 하고 세 번을 부르자 그때서야 최서방의 아내인 옥랑 어머니가 나왔다.

그 아내는 박서방을 보더니 아침에 함께 간 남편은 어인일로 아직 까지 돌아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서방은 시치미를 뚝 떼고서 아니 나보다 먼저 집에 간다고 한 사람이 아직 안 돌아왔우? 한다 집에 돌아오지 못한 것을 확인한 박서방은 안심하고 집에 돌아왔다.

한편 삼을 캐러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던 최씨의 아내 옥랑 어머니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확증을 잡을 수 없었다. 박서방내는 그날 산삼을 쫀다고 하며 아주 오래된 것이라서 많은 값을 받고 팔아 한동안 잘 살고 있음도 알았으려니와 박서방은 남편이 있을때 보다는 더욱 친절하게 여러모로 어려운 일도 보살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서방 아내는 웬지 그것이 달갑게 여겨지지도 안았을 뿐만이 아니라 필시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남편의 행방을 알아 달라고 고을의 원에게 진정하였다.

그때마다 원은 너희 남편이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낸들 어이하라 하고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다. 최서방 아내는 함께 갔던 박서방이 알것 같으니 그를 불러 알아보라고 하였으나 끝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최서방 아내는 고을 원이 갈릴때 마다 누차 탄원하였지만 그때마다 쫓겨 나고 말았다.

필연 곡절이 있을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최서방 아내가 어느날 어느곳을 가노라니 어린 학동들이 나무밑에서 원님 놀이를 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들의 하는 말이 하도 의젓하고 법도가 있었기로 한참을 서서 보던 끝에 원 노릇을 하고 있는 아이한테 다가가서 그간의 사정을 털어 놓았다. 원 노릇하던 학동이 한참 듣더니 남편이 집을 나가고 돌아 오지않던 그날 찾아온 사람은 없었오이까? 하고 물었다.

여인은 있었읍니다. 한 밤 중에 박서방이 오더니만 옥랑 어머니 옥랑 어머니 하고 세 번을 불렀지요 그때서야 선배가 나가 보고 애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먼저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 했읍니다. 말을 쪽 듣고 난 학동 원님은 종이에 <三招玉娘母 是之家中無丈夫也> 라고 써서 최서방 아내에게 내밀었다.

글의 뜻을 알리 없는 최씨 아내는 이게 무슨 말이나고 다시 묻자 그 글을 원께 바치면 필시 아주머니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뜻을 몰랐으나 학동 원님이 내려주신 글이므로, 또한 남편의 행방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관아 대문을 지키는 포졸들이 들이지 않았으므로 정 원님을 만나게 해 줄 수 없다면 이 글이라도 바쳐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를 받아온 원님은 삼초옥랑모하니 시지가중에 무장부야라. <三招玉娘母 是之家中無丈夫>, 오호라 그렇겠군 놀라운 기색을 하던 원님은 당장 그 여인을 들이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아낙에게 묻는다. 그날 너희 남편이 돌아오지 않던 첫날 너희 집을 찾아온 사람이 있으렸다. 그렇다고 하니 그 사람이 누구며 누구를 찾던고? 예 함께 삼을 캐러 갔던 박서방이 온데 밤이 늦었는데 찾아와서 옥랑 어머니, 옥랑 어머니 잠드셨우 하였어웁니다. 라고 그 날밤의 일을 아뢰었다. 이를 듣고 있던 원님은 병방을 불러 곧 저 여인의 이웃에 사는 박서방

을 포박하여 오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박서방이 붙잡혀 왔다. 불문곡직 형틀에 매어놓고 이실직고 하라고 죽치자 사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원님은 벼랑에 떨어져 횡사한 최서방의 유해를 수습하여 장사지내도록 하는 한편 친구를 죽인 박서방은 부사에게 고하여 처형토록 하였다. 이로써 남편의 원수를 갚은 여인은 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원님은 글의 뜻을 말했다. 즉 밤중에 세 번씩이나 옥랑의 어머니를 불렀으니 이는 곧 그 집에 남자가 없음을 알았음이니라 박서방은 그대의 남편이 먼저 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최서방을 찾던가 옥랑 아버지를 찾았어야 했거늘 그자의 뇌리에는 그 아비 없음을 전제하여 어미를 찾은 것이니 이로써 있고 없는 것을 아는 자가 곧 죄인이라는 뜻이니라. 현대 이 글을 적어준 어른은 누시더란 말인가? 하자 길을 가던중 나무 아래에서 원놀이를 하던 학동이 적어준 것이라고 말하자 모두 놀랐다.

그 후에 원수를 갚도록 글을 적어준 은인을 찾아 사례하고 옥랑 남자와 혼인시켜 대대로 잘 살았다고 전한다.

1983. 원삼면 고당리

오 회영 (66세)

감투쓰고 소가 된 농부

일하기 싫어하며 부귀와 권세만을 부러워하던 사람이 양반들이 쓰는 감투라도 한번 써보고 싶어 내기를 했다가 소가 된 후 마음을 고쳤다는 전설로써 모현면 농원리 우명동(牛鳴洞)에 얽힌 이야기이다.

한 농부가 살았었다. 그 사람은 농사를 짓다가도 어떤 놈 팔자 좋아 말타고 한양가서 과거하는데 이 놈의 신세는 하릴없이 땅만 파니 부모 잘못 만난 것이 원수로다 하면서 푸념을 하였다. 그러면서 나도 글줄이나 배웠더라면 과거라도 보련만은 검은 것은 먹이요 흰 것은 종이이니 이런 청맹판이는 언제 한번 양반 탕건을 써보려나 하면서 지체높은 양반들이 쓰고 다니는 정자관을 한번이라도 써 보는 것이 늘 소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용인점(龍仁店)을 가려고 대치(大峙) 고개를 넘으려는데 한 노인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둑판을 앞에 놓고 우두머니 앉아 있었다. 이 농부는 다리도 좀 쉬어갈 겸 그 옆으로 갔더니 노인이 먼저 말을 건넸다. 자네 한가하거든 나와 바둑이나 한수 두세 그려 하고 권하자 이 농부 역시 바둑이라면 별투 두려운게 없을 정도의 실력임을 믿고 내기 바둑을 두기를 청하였다. 노인은 이를 쾌히 승락하면서 만일 내가 절 것 같으면 내 머리 위에 있는 정자관을 주려니와 자네가 진다면 술 한 잔만 받아 오게나 한다. 농부는 이것이야 말로 양수 겁장이라고 생각했다. 진다손 치더라도 연치로 보아 훨씬 윗분이고 게다가 양반 어른이니 별로 자존심

상할 것 없는 일이고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고작 막걸리 한잔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며 반면에 백두 서민이요 농사나 짓고 사는 젊은 자기가 그 늙은 양반 노인을 이긴다면 양반의 상징인 정자판을 얻을 수 있으며 양반이 상것에게 내기를 하여 정자판을 빼앗았다면 그 얼마나 수치스런 일이 되겠는가? 이러나 저러나 밑질 것 없을 것 같으므로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노인이 놓는 바둑을 보니 포석이 정석이 못되고 행마도 제걸을 택하여 놓지를 못하고 있었기로 한 수 위의 실력을 발휘하여 단판으로 불계승을 거두었다. 회색이 만면한 농부는 약속대로 정자판을 내 놓으시지요 하자 노인은 선선히 벗어놓았다. 농부는 영감의 실수이니 나를 원망치 마시요 하면서 판을 머리에 썩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이나 갑자기 몸에서 황소 털이 돋아나고 머리에 썼던 정자판은 쇠뿔이 되어 머리에 들러붙었다. 그 뿐이 아니라 육신이 점점 커지더니 네 발로 서야만 몸을 가눌 수 있었다. 농부는 갑자기 커다란 황소가 되었는데 노인이 느닷없이 고삐를 썩워 버리는 것이다. 소가 되고 고삐가 썩워지자 움짱 못하고 노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걸가는 사람을 보고 좀 구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입에서는 음메 - 소리 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할 일 없이 소가 되어 용인장 (그때는 구성면 이었다)으로 끌려가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처량하기가 이룰 데 없었다. 청덕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이르자 소가 된 농부는 목놓아 울었다. 그때마다 울음 소리는 소 우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는데 영문도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웬 소가 저모양으로 극성스럽게 우냐고 하였고, 그 소리가 여찌나 크게 들렸던지 사람들은 소 울음소리 나는 곳을 우명동이라고 불르게 되었다. 한편 소가 되어 장애 끌려온 농부는 어느 사람에게 팔려가게 되었는데 노인

이 소를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이 소는 절대로 무밭 곁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만일 무를 먹으면 그때 부터는 소를 부리지 못하게 되오이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소가 되어 낮 모르는 사람에게 팔려간 농부는 밤낮 고된 일에 시달리고 있었다.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짐도 나르며 그러다가 조금만 꿈지럭거리면 회초리로 얻어맞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기를 이 삼년 동안 견뎠으나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었으므로 빌어먹을 무나 먹고 죽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무밭으로 가려고 해도 노인이 미리 단속을 해 두었으므로 그도 맘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해 가을 김장철이 되어 무우를 마당 한 가운데에 잔뜩 쌓아놓았다. 소가 된 농부는 밤이 되자 천신만고 끝에 외양간을 빠져나와 마당에 쌓아둔 무를 밤새도록 먹어 치웠다.

새벽녘이 되자 머리에서 뉘가 툭 떨어지는 것이 있어 내려다보니 노인과 바둑돌 때 얻어 쓴 그 정자관이었다. 그것이 벗어지니 신기하게도 본래의 인간 모습을 찾게 되었다. 농부는 그 저주스런 정자관을 갈갈히 찢어던지면서 이놈의 감투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때 소가 되어 울던 고개 아래는 지금도 우명동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에 알맞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는 전설이다.

1980 4 5 용인읍 역북리

김홍순(남, 작고)

돌이와 두꺼비

짐승의 말을 알아 들을 수 있는 재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날짐승의 말을 알아낸 일로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죽을뻔 했으나 자기의 이름 덕에 목숨을 건진다. 너무 아는체 하는 사람들에게 경중으로 돌려주던 설화이다.

이름하여 돌이와 두꺼비라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얼마쯤 가노라니 까마귀가 까악까악 울고 있었다. 두꺼비라는 사람이 길을 멈추고 돌이라는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까마귀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고목나무 아래에 사람이 하나 죽었다고 떠드네 한번 가보지 않겠나? 하고 말했다. 그러자 돌이는 사람이 어찌 날짐승이 말하는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겠느냐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두꺼비는 틀림없이 자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 믿어지지 않는다면 함께 가보면 알게 아니냐 면서 엽전 한 냥을 내기로 결했다고 제의했다. 돌이는 내기를 받아들였다. 함께 고갯마루 아래에 이르렀을 때 정말로 타살된 시체를 발견하였다. 두꺼비는 득의만만하여 그것 봐라 내 말이 틀림 없지 않으나면서 내기에 이겼으니 약속대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엽전 한냥을 받았다. 그랬지만 돌이는 어찌 사람이 짐승의 말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고 의심하면서 더우기 돈까지 빼앗긴 것을 매우 분하게 생각했다.

그 놈이 필시 사람을 죽여놓고는 내 돈을 갈취하려는 수작임에 틀림없다 라고 생각하고 즉시 고을 원님에게 고변하였다.

관가에 붙들려간 돌이는 왜 사람을 죽였는지 이실직고 하라면서 주리를 틀었으나 두꺼비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 만이 아니라 틀림없이 까마귀들이 하는 말을 알아냈을 뿐이라고 호소하였다.

원님은 이 놈이 정말 짐승의 말소리를 알아듣는지 시험해 보기로 하고 두꺼비 몰래 동헌 처마둥지 속에서 제비 새끼를 꺼내어 숨겨놓고 지금 저 제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두꺼비는 네 피 불용육불식(皮不用肉不食)이라 하옵니다. 가죽도 못쓰고 고기도 먹지 못하는 내 새끼를 누가 데려 갔느냐고 하는 소리 같읍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과시 틀림없도다. 그러나 네가 한 말은 우연일 수도 있으므로 이대로 방면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확증이 잡힐 때까지 옥에 가두어 두라고 하였다. 그 놈이 제비의 일을 알아내는 것으로 보아서는 거짓이 아닌 듯도 하였으나 사람이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소리도 일찌기 들어 본 일이 없으므로 원님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마침 날이 꺾으려는지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동헌의 댕돌 아래에 나타났다. 이를 본 원님은 나줄을 시켜 그 두꺼비를 잡아다가 멧돌로 눌러놓고는 옥에 있는 죄인 두꺼비를 당장 끌어오되 검은 천으로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옥리들은 시키는대로 다짜고짜 두꺼비란 죄인의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린 다음 용수를 씨워 밖으로 끌고 나왔다. 두꺼비는 아이고 이제는 대벽(사형)을 당하는구나 생각한 나머지 애고 돌이놈 때문에 두꺼비만 죽는구나 라고 소리쳤다.

돌이란 놈이 무고하여 할일 없이 죽게 되었음을 원망하는 소리였다. 원님 앞에 끌려오면서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애고 돌이란 놈 때문에 두꺼비만 죽게 되었오. 애고 나죽소 라면서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다.

원님은 죄인이 끌려오면서 하는 양을 보고 정말로 탄복했다. 허허
어찌 그리도 신통하게 맞아맞춘담 정말 댕돌 아래의 두꺼비만 돌에
눌러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꺼비는 두꺼비대로 살려보내고
죄인 두꺼비도 틀림없이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것을 인정하여 방면
하였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세상 일을 너무 아는 것도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똑똑한 것도 때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
(過不及)고 하여 자만을 경계하는 이야기로 용인읍 운학리에 전해
오고 있다.

1983. 4 용인읍 운학리
이 종태(60세)

· 은혜 갚은 사동(巳童)

사람에게나 미물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덕을 쌓으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는 교훈적 이야기로써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 용곡부락의 백설(배매실)에 얽힌 전설이다.

착하고 선량한 선비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불쌍한 사람만 보면 자기 일 보다는 더 성실하게 돌보아 주었고 비록 하찮은 벌레라고 할찌라도 결코 함부로 해치는 일이 없었다. 그런 선비가 충북 음성에 갔다가 부친이 작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한양 본가로 향하고 있었다. 좌전고개를 넘어 양지 접경을 접어들자 한 초부가 커다란 구렁이를 칠히로 묶어 작대기에 매달아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이를 본 선비는 급히 가던 길걸음을 멈추고 초부(草夫)를 불렀다. 여보시오, 그리도 큰 구렁이를 어쩌다 잡으셨오 하고 말을 건네자 나무를 다해 가지고 막 돌아서려든 차에 이 놈이 길을 가로 막지 않겠오? 이 작대기로 눌러서 간신히 묶었읍쪄 혹 약이라도 쓸 일이 있을까 하여 끌고 가는 길이외다. 라고 대답한다. 이를 측은하게 여긴 선비는 엽전 한 냥을 줄테니 팔지 않겠느냐고 하자 초부는 선선히 구렁이를 내어 주었다. 구렁이를 사게 된 선비는 목을 맨 칠히를 풀어서 살려 보냈다. 이러노라 길이 늦었으므로 지름길을 잡아 산고개를 넘을 즈음 뒤에서 누가 선비를 부르고 있었다. 발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여나쁜살 되어보이는 어린 동자였다.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느냐고 하자 동자는 혼자 산 길을 가자하니 적적하여 선비

님을 의지하여 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갈 길이 바쁘기는 했으나 이를 기특하게 생각한 선비는 그 학동(學童)과 길동무가 되어 주었다 얼마 동안은 함께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다. 그러자 학동은 가까운 곳에 당집이 하나 있으니 그곳에 가서 잠시 비를 피하자고 하면서 손을 이끌었다. 그 곳에 이르러서 비를 피하고 있던 선비는 무심히 섬돌 아래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다가 누렇게 빛나는 황금 덩어리 하나를 발견하였다. 황금을 얻은 선비는 함께 비를 피하던 동자를 찾아 보았으나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았다. 암만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는 수 없이 가던 길을 갈 수 밖에 없었다.

한양에 도착한 선비는 용인 지경에 묘 자리를 정하고 장사를 치루려고 할 때 길에서 만났던 그 동자가 나타났다. 선비는 동자를 보고 길을 피하다가 어디로 갔었느냐면서 장례가 끝나면 낫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하였다. 그러마고 하던 동자는 갑자기 상주의 귀를 잡아 다니고서 작은 소리로 말한다. 선비님 부친의 묘 자리가 좋지 않습니다. 깜짝 놀란 선비는 그 연유를 물은 즉 지금의 광증을 한치만 더 파 보시면 알게 된다고 하였다. 어린 아이의 말이기는 했어도 좋지 않다는 곳에 곳이 묘를 쓸 수가 없으므로 시키는대로 한치 정도를 더 파더니 바로 그 아래에 수맥이 있어서 붉은 황토물이 솟아 올랐다. 이를 보고 깜짝 놀란 선비는 정말 묘자리를 잘못 잡았음을 알고 근심을 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동자는 파놓은 묘자리 바로 아래의 웅덩이를 가르키면서 그 곳에 묘를 쓰라고 하였다. 선비는 시키는대로 웅덩이 가운데를 파 내려 가자 고였던 물은 없어지고 묘를 쓰고 보니 천하에 둘도 없는 명당 자리임을 알 수 있었다. 선비는 동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돌아가자고 권하였다. 이때 그 동자는 선비의 옷 깃을 이끌어 한 칸으로 가더니 자기의 옷 깃을 풀어 헤치고 목 뒷덜미를 내밀었다 자세히 보니 끈으로

뫼었던 명든 자욱이 선명하였다. 선비님 이 사람은 바로 선비님이
살려 보내주신 사동(巳童) 이온데 선비님의 은혜를 만분지 일이라도
갚고자 하여 변신한 것이니 허물치 말아 달라는 말을 남기고 숲 속
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선비는 그 황금도 사동이 얻게 해 준 것임을
알고 사동의 은혜를 잊지 못했으므로 매년 뱀을 노아 준 곳을 찾아
가 감사를 드렸다. 이 일이 점차 알려진 후 사람들은 그곳을 뱀실,
또는 뱀의 실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배매실로 불리지고 있다. 그로
부터 사람들은 그곳의 뱀을 삼가하고 잡는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지
금도 그곳은 뱀이 많다고들 말하고 있다.

1984. 5. 10 용인읍 김량장리
정 양화 (31세, 남, 교사)

미룩뜰 사람도 먹은 공은 안다

원삼면 미평리를 속칭 미룩뜰이라고 한다. 돌미룩이 지금도 남아 있음을 보면 이것에 연유해서 생긴 지명인 것 같다. 돌미룩의 축조 연대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이야기이다.

현재에도 미룩뜰 지역에는 “미룩뜰 사람도 먹은 공은 안다”는 말이 돌려지는 데, 이 말은 예전에 미룩뜰 사람과 다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내기를 하여 보리 흉년 떠넘기기를 한 데서 유래하였다 한다. 어느해, 정월 보름날에 윷놀이를 하여 지는 편이 보리 흉년을 떠맡기로 하였다 한다. 미룩뜰에선 윷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어 매년 이겼으므로 다른 마을 사람들이 보리 흉년을 떠맡아 오곤하였다. 따라서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번 내기에선 꼭 이가고자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미룩뜰의 윷놀이꾼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러 자기네 편을 위하여 겨주면 많은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다. 뇌물을 받은 미룩뜰의 윷놀이꾼은 그들의 말대로 일부러 겨주었다.

그래서 그 해에는 보리 흉년을 미룩뜰에서 떠맡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다른 마을 사람들은 미룩뜰 사람은 미련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고는 아무리 미련한 미룩뜰 사람이라도 먹은 공은 알기는 알더라라는 뜻으로 “미룩뜰 사람도 먹은 공은 안다”는 말을 해왔다.

본래 미룩이란 말은 말이 없고 미련한 사람을 비유해서 쓰인 말이기도 하여 이같은 뜻을 갖고 발생된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미룩뜰 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정성껏 빌면, 그 공덕으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1980. 10. 11 원삼면 맹리
허 숙(60세, 남, 농업)



안수버니(숲원이)의 땅에 물이 많이 나는 이유

내사면 주북리와 용인읍 고림리 사이에 수버니(숲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땅에서 물이 많이 난다고 한다. 현지에 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성질이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이라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내용은 용고집전에서 볼 수 있는 학승(獾)모티브라 할 수 있다.

옛날 명씨 성을 가진 한 농부가 살았는데, 아내와 함께 홀어머니 만을 모시고 있었다. 일찌기 외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한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는 며느리를 얻는 날 이후로 한 번도 며느리에게 잘 대해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참고 견디며 더욱 정성스럽게 대해 드렸다. 그러던 어느날, 한 늙은 중이 시주를 구하고자 찾아왔다. 며느리는 곧 부엌으로 달려가 양식 항아리 가운데서 한 되 정도의 쌀을 퍼다가 주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어머니는 아연 질색하면서 방에서 달려 나와 중의 바릿대를 빼앗아 내동댕이 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며느리에게도 가혹한 매질을 하며 욕하였다. 때마침 일터에서 돌아오다 이를 본 남편은 아내의 모습이 처절함에도 불구하고 차마 동정의 뜻을 펼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뒤에야 아내를 위로해 주면서 자신과 함께 노승이 머물고 있는 절에 찾아가 잘못을 빌자고 하였다. 그날 밤 꿈이었다. 낮에 찾아온 노승이 다시 찾아와 시주를 구하였다. 남편과 함께 낮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 다시 시주를 하였다. 그랬더니 노승은 '내일 아침에 야궁이에서 물이 솟아 나올 것이며, 지핀 불은 못

된 어머니를 징벌할 것이다' 말하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난 부부는 서로의 꿈이 똑같은 데 대해 놀라며 어머니를 살릴 길이 없을까 고민하였다. 며느리는 자신이 그 벌을 대신 받겠다고 하였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그 안쪽을 들여다 보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분명 불이 타고 있음에도 바닥에선 물이 괴기 시작하였다. 불 기운이 세지자 물이 솟구쳐 나와 순식간에 마당에 서있던 어머니에게 옮겨 불고,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는 그 불에 타죽고 말았다. 아궁이에서 솟구쳐 나온 물은 온 마을에까지 흘러 나와 장마를 만난 때와 같았다. 한참 뒤에야 물이 잦았는데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그 터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아궁이에 불은 붙일 수 있어도 물이 계속 난다고 하며, 안수버니 전체도 다른 지역 보다 물이 많이 난다고 한다.

1978 7. 20 용인읍 고림리

윤 희열(70세, 남, 농업)

장에서 바뀐 사돈

김량 장날 양 사돈이 소를 서로 바꾸려다가 오히려 소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로써 술이 빚게한 실수를 풍자한 희화이다.

각종 일용 물종과 잡화가 넘치고 팔고 사려는 사람들이 골목을 메우며 싸구려를 외치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 설새없이 터져 나와 멈추고 기웃 거리는 아낙들의 발거름을 더디게 하는 장날 깔았던 자리라도 들고 간다는 장날은 새롭고 신기한 구경거리와 눈요기 감도 심심치 않아 앓가고는 못배기는 장 끝들도 있는 것이다.

고추, 감자, 마늘, 채소류의 농산물 감, 대추, 꽃감 같은 과일 등이 계절따라 주종을 바꿔 가며 팔려 나갔고 생선 어물 두툼을 지켰다리에 매달아 돌아가는 장날의 논두렁 길은 뉘엿뉘엿 석양의 노을이 비친다.

장날이면 한적하던 신작로가 새벽부터 부산하다.

자갈길을 구르는 마차바퀴 소리에 곁들여 들려오는 장 끝들의 떠드레한 목소리 중에는 혼사, 제사, 학비, 갯돈 아니면 빚진 돈 갚을 얘기하며 대추나무 열거리듯 엉클어진 잡다한 이웃들의 사연들이 떠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시골 장날은 장 또막에 미루어 졌던 각계 사정들의 매듭이 풀려 나가는 해결의 장(章)이며 순환의 통로이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용인 쇠전은 광주, 이천, 안성, 평택, 수원 등지에서 몰려오는 소몰이 끝과 흥정끝 개평끝 구전끝 등으로 혼잡했으며, 거액의

현금이 유통되고 있음으로 소를 팔고 사러 오는 사람은 든든한 이웃 서넛은 함께 있어야 했음으로 더욱 붐볐다.

옛날 포곡 둔전쯤 사는 황서방과 이동 천리쯤 사는 박서방이 있었다.

황서방은 황소를 길렀고 박서방은 암소를 길렀다.

황소를 기르던 황서방은 암소를 사려하였고 암소를 기르던 박서방은 황소로 바꾸기 위해 용인 쇠전을 나왔다.

황서방과 박서방은 사돈 지간으로써 맘에 드는 소를 고르려고 서로 기웃 거리다가 한 곳에서 마주 쳤다.

오랜만에 만난 양 사돈은 그동안 격조했던 터라 아들 딸들이 잘 사는지 궁금도 하여 집안 사정을 물은 다음 어쩐일로 쇠장을 나왔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박서방은 암소만 길렀더니 송아지 낳는 뒷바라지도 귀찮아지고 해서 씨익 씨익한 숫소를 먹이려고 한다 하였고 또 황서방은 숫소만 길렀더니 송아지 낳는 이웃이 부러워 바꾸러 왔다는 것이다.

피차 원하는 입장에서 각기 필요로 하는 소를 가지고 나왔으니 흥정꾼 붙이고 구전주고 할것없이 서로 믿는 사돈끼리 소를 바꾸면 될 것 아니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래도 황서방은 새끼낳는 암소가 더 비싼듯하니 웃돈을 받아 가시라고 하면서 돈을 내려 하였고 박서방은 힘세고 일 잘하는 숫소가 더 비싼듯 하여 웃돈을 내려 하였으나 사돈 지간에 그러면 안된다고 서로 사양 하였다.

‘그렇다고 머쓱하니 헤어질 수도 없어 서로 술이나 한잔 나누자는 데는 이의가 없었음으로 이 사돈이 한잔 사고 저 사돈 한잔 사고 서로 권하며 먹고 마시다 보니 사람이 술먹은 단계가 지나 술이 술을 먹고 종내는 술이 사람을 먹는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끝장이 났다.

내용누락

p. 157-158

명운일랑 복대로 누려라

아이를 점지 해주는 삼신 할머니와 삼신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부자 집 영감이 아들의 복록을 위해서 백정의 딸과 결혼 시켰으나 타고난 복은 어쩔 수 없다는 교훈적 설화이다.

서리 덕곡은 하씨라는 부자가 덕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이 음덕을 입었다고 하여 생긴 지명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부자는 손(孫)이 없었으므로 명산대찰에 가서 삼신에게 아들 하나 점지 해 줄것을 열심히 빌었다.

이의 공력이 있었음인지 60여세가 다 되어 부인이 회임을 하였음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또 빌었다.

그날도 심산 유곡에 들어가 치성을 드린 후 어둠이 드리울 무렵 자리를 떠서 하산 하다가 자칫 길을 잘못들어 산간을 헤메다가 지친 나머지 커다란 고목 밑에서 쉬고 있었다.

밤은 더욱 깊어 가는데 별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여 날이 새면 하산하리라고 마음먹고 잠시 눈을 붙혔다.

잠이 들었는지 비몽사몽 간에 호호 백발의 두 노인이 지나 가면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탁탁 치면서 내가 오늘 간 집에는 아들을 점지하여 주었는데도 삼신밥에 구렁어와 바위를 집어 넣었지를 않겠우. 또 밥을 짓는 것을 보아하니 뿔감두 넉넉한데 하필 변소간에 있는 짚을 베어다 불을 때어 밥을 짓길래 한 술도 뜨지 않았우. 그래 하도 께쌌하여 아이에게는 복도 명도 주

지 않고 오는 길인데 이제 시장끼가 드는 구로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삼신 할머니는 에이 영감의 심통두 심하시우. 그제 무에 그리 섭하셨오. 잘못이야 산 바라지 하는 사람들이 한 것 아니겠우. 그제 어린 것에게 벌을 씌우는 것은 너무하셨우 그런데 내가 간 집은 제집 아이인데 천민의 딸로 태어나는게 안되어서 복도 많이 주구 오래 살도록 점지 했우. 게다가 없는 집 형편인데도 어찌나 산밥(産食)을 정갈하고 맛있게 지어주는지 아주 잘 먹었우.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부자가 생각해 보니 바로 그날이 자기 아내가 해산할 날인 것을 알았다.

어찌나 똑똑히 들었던지 도무지 꿈 같지가 않았기로 천신만고 끝에 집엘 찾아와 보니 아나나 다를까 대문에 금줄이 놓여졌는데 고추가 매달린 것을보니 틀림없이 아들이었다.

다음에는 문간에 지어 놓은 산밥을 헤치면서 자세히 보니 정말 머리카락과 돌이 섞여 있었다. 또한 무엇으로 산밥을 지었는지 알아보니 정말 뒷간에 쌓아 두었던 짚으로 불을 때어 밥을 지었던 것이다.

부자는 아뵘사 늦게둔 자식의 명운과 타고난 복이 없으니 이 노릇을 장차 어찌하랴 하고 탄식하다가 아랫 동리에 사는 백정의 문간을 가보니 그집 금줄은 고추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틀림없이 여식을 얻은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가만히 금줄 아래의 산식을 보니 역시 꿈에 들은대로 음식도 정갈하고 차림새도 단정하여 정성을 쏟은 모양이다.

부자의 낙심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자식하나 얻으려고 명산대찰에 기도하고 온갖 정성 다 쏟아 빌고빌어 얻은 자식을 다만 삼신 할아버지 잘못 접대한 실수로 명운을 망치게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이미 때가 늦은 고로 여러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르게 되었다.

그렇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더냐. 비록 백정의 딸로 태어나기는 했다만 삼신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복과 명운을 두터히 하였으니 이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 화복과 길흉이 반반이다. 이것이 서로 상쇄된다면 더도 덜도 중간의 복록은 누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부자는 무릎을 치면서 기뻐하였다.

그 길로 부인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듣고 본대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묘한 생각을 말하였더니 걸개 탄식하던 부인도 남편의 생각을 좃기로 하였다.

부자는 이튿날 백정의 집으로 찾아가서 여보게 사람이 태어날때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던가? 하늘이 내린 명운은 부자나 양반이나 천민이 다 같다는 이치를 내 비로소 깨달은바 있음으로 자네의 여식을 장차 내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데 의향이 어떠한가 하고 물었다.

백정이 생각할 때는 덕망있고 돈 많은 부잣집 영감이 어디 며느리 얻을 재원이 없어서 하필 자기와 같은 천한 신분을 두고 사돈을 맞자고 하는가 라고 의아하여 영감, 세상에 영감 같으신 어엿하신 분이 그래 아들을 두셨다고 나같은 상것이 계집아이 얻은 것을 희롱하십니까. 세상에는 법도가 있고 귀하고 천한것이 엄연한데 어찌 그와 같은 언사를 입에 담으시오 라고 대답하면서 이의 청혼을 오히려 섭섭하다고 사양하는 것이다.

부자는 놀리는 것도 거짓도 아닌 진심에서 하는 말이라고 여러모로 설득한 끝에 영감하시는 일이 망녕이시더라도 어찌는 수 없구료 라면서 허혼하기로 작정하였다.

그후 사돈이 될 백정의 어려운 살림도 도와주면서 애들이 장성할 때를 기다렸다가 성례를 시켰으므로 부자는 백정의 며느리를 두게는 되었으나 일말의 근심은 덜어 놓게 되었다.

그러나 신랑 친구들, 부자의 속사정을 알리 없는 신랑의 친구들은 원 세상에 지체 높은 양반의 자손이요, 60여에 늦게 얻은 부자집 외 아들이요, 굴 께나 읽었다는 선비가 어디가면 제대로 생거먹은 규수 하나 못얻어서 하필 백정의 사위라더냐 하면서 이런 덜 떨어진 친구와 서로 사귀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여 장가든 다음 부터는 친구도 찾아오지를 았았다.

마을의 우물 곁을 지나칠때면 저 신랑은 천치라거니, 물건이 없는 내시일거라느니 손가락질하면서 깔킬거리는 소리를 듣자 자존심 상하는 것은 둘째치고 늘 열등감에 짓눌려 기를 펴지 못했다.

부모가 있을시는 어찌할 수 없었으나 그의 엄부가 돌아가시자 아내에 대한 학대가 자심하였다. 그럴때 마다 백정 장인이 찾아와서 사위 어른, 그러시면 아니되오, 낸들 어찌겠오, 선친께서 그리하셨으니 낸들 어찌하겠오 하면서 만류하였다. 그러나 끝내는 아내를 내쫓고 달았다. 그러자 가세가 날로 기울어져 가고 몸이 쇠약하여 지더니 종래에 가서는 거지 신세가 되어 죽었더라는 것이다.

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복록은 하늘이 내려준대로 누릴것이며 세상은 순리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전해져 왔다는 전설이다.

1982 2 9 이동면 서리 하반
오 수영(68세, 여)

옛날 이야기로 도적 쫓은 부부

할머니가 옛 얘기를 무척 좋아했다. 남편에게 매일 얘기를 사오라고 졸랐기 때문에 얘기를 사러 가다가 눈에 있는 황새의 하는 양을 보고 전해준 얘기로 도적을 쫓아다는 설화로서 외사면 석천리 황새울에 얽힌 이야기이다.

한 부부가 살았다. 아들도 딸도 없이 두 내외가 살았는데 그 아내는 옛날 이야기를 무척 좋아 하였다. 저녁만 먹고 나면 남편을 졸라 무슨 이야기든지 꼭 한가지씩 듣고야 잠이 들었으므로 그의 남편은 이야기 거리 마련 하기에 참으로 많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마침내 얘기 거리가 바닥이 낮음으로 할 얘기가 없다고 하자 부인은 성을 내면서 정 그러다면 내가 무명 한 필을 줄것이니 죽산 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사오라고 하였다.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이튿날 죽산 장으로 얘기를 사러 길을 떠났다. 살기를 외사면 용천리쯤 살았던지 석천리 황새울을 지나 가는데 한 농부가 논을 갈다가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얘기를 사러 가던 사람은 좀 쉬어 갈 요량으로 그 농부 곁에 가서 담배 한 참을 말아 피우면서 수인사를 건넸다. 논 일을 하던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고 묻자 얘기를 사러 가는 길이라고 하였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거 뭐 힘들어서 죽산까지 갈 것 없이 그 무명 한 필을 내게 주면 좋은 얘기를 하나 팔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 남편도 얼씨구나 하여 무명을 주고는 얘기를 내놓으라고 하였는데 막상 팔겠다고 한 사람 역시 좋은 얘기 거리가 없

어서 담배만 빨고 있었다. 빨리 내 놓으라는 독촉을 받고서 보니 마침 황새 한마리가 자기 논으로 들어 가는 것을 보고는 어칭어칭 들어 온다고 하였다. 그게 애기요? 그렇소 그럼 계속 하시오 그때 황새가 우뚝 섰다. 그것을 보고 농부는 우뚝 섰다라고 했다. 그 다음은요. 그러자 황새가 우렁을 쪼는지 쿡 찍는다. 그것을 보고 있던 농부는 보는데로 쿡 찍는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자 이번엔 황새가 우뚝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농부는 할 말이 없자 쳐다보는 저 눈깔을 가래꼭지로 쿡 질러라 라고 하였다. 그때 황새가 날아 갔으므로 애기는 이것으로 끝이요 하였다. 애기를 사러 가던 사람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정리 해본다. 그래야 마누라에게 들려 줄 것이 아닌가? 어칭 어칭 들어온다. 우뚝 섰다. 쿡 찍는다. 쳐다보는 저 눈깔을 가래꼭지로 쿡 질러라 해보니까 간단하다. 이 말을 되풀이 하면서 장단을 쳐 보니까 제법 흥이 돋았기로 무명 한 필을 내동댕이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누라 반색을 한다. 어떤 것을 사 왔오? 펍 재미있는 애기가 있오 길지도 앎으면서 노래삼아 불러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오. 그러면 한번 해 봅시오 -어칭어칭 들어온다. 우뚝 섰다. 쿡 찍는다 쳐다보는 저 눈깔을 가래꼭지로 쿡 질러라 -그거요 뭐가 들어오우? 글썽 그건 나도 모르오. 뭐가 섰우? 글썽 잘 모르오. 뭘 찍 쑈? 그것도 모르오. 무슨 눈깔을 쿡 찍 쑈? 그것은 모르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면서 장단을 치면 절로 흥이 난다니까요. 글썽 좀 상겅기는 하나 한두번 불러보니 좀 신나는 구먼 하면서 마나님은 밥 지으면서 설겅이 하면서 그리고 저녁에 물레를 저으면서도 계속 했으나 실증이 나지 않았다. 그날 밤 도둑 하나가 몰래 담을 넘어 어칭어칭 들어갔는데 안에서 여자가 어칭어칭 들어온다. 라는 소리가 들리므로 우뚝 섰다. 그때 방에서 여인네가 우뚝 섰구나 하면서 짹짹 거린다. 도둑을 보고 하는 소리인가 하고 살살 닦아

가서 문구멍에 침을 발라 콧 찧렸다. 이러자 또 여인은 콧 찧었다고 소리 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내가 하는 짓을 다 아는 것이냐? 하면서 가만히 문구멍으로 방안을 들여다 보니까 아낙네가 물레를 자 으면서 느닷없이 쳐다보는 저 눈깔을 가래 꼭짜로 콧 찧러라 라고 하더니 하 거참 재미있다면서 혼자 깔깔 거린다. 이 도둑놈은 놀랐다. 자기가 들어 오는 것, 우뚝 섰던 것, 문구멍을 내던 것, 그리고 들여다 보는 저 눈깔을 실을 감는 가래(쇠 꼬챙이)로 콧 찧르라고 한다면 보통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가 필시 도사거나 이인(異人)이거나 귀신이거나 꼬리가 아홉 달린 백여우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등골이 오싹하여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줄행랑을 쳤다. 이 일이 있던 후 황새의 하는 양을 보고 도둑을 쫓았다고 하여 이 얘기를 지어낸 농부의 논 언저리를 황새울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1984 12 내사면 석금리
박 용익(55세, 남, 농업)



미련한 놈들의 피

미련한 놈이 갈롱 맞다는 속담이 있다. 이 이야기는 우직하고 미련한 놈들이 참기 내기를 하면서도 우둔한 피로 곤경을 모면해 가는 술기를 보여 줌으로써 사람은 제뒀에 산다는 일면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옛날 용인의 한덕곡에 미련한 놈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셋은 모두 한가지씩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 놈은 대가리가 헐어서 잠시도 두두리지 않으면 못살았고 또 한 놈은 코흘리게로 그칠날이 없었으며, 나머지 한 놈은 눈이 진물러서 늘 파리가 꼬여 들었다.

이들 셋이 우연히 한자리에 모였는데 한놈은 두두리고 한놈은 훌쩍이고 한놈은 파리 쫓기에 여념이 없었다. 서로 바라보고 있자니 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가관이였다. 그 중 하나가 둘에게 제안하였다. 애들아 나는 머리가 근질거려서 이처럼 여기저기 쥐어 박아야 시원하고, 네 놈은 코 흘리는 것 소매로 닦지 않으면 못배기며, 내 놈은 눈에 파리 꼬이는 것 쫓지 않으면 견디기 억려우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짓을 하지 않고 누가 오래 참는가 한번 겨뤄보자고 하니까 모두 찬성하였다. 우두커니 앉아서 참아 내기를 하고 있자니 머리는 가렵고 근질거려서 미치는것 같고 코는 설세없이 흘러 내리고 눈에는 파리가 꼬여서 성가시고 참으로 견디기가 고역스러웠다.

얼마 동안을 참고 있다가 그 중 대가리 헐은 놈이 피를 냈다. 애들아 이렇게 우두커니 있자니 참 심심하구나 그래서 내가 얘기 하나 하마 라고 말하자 모두들 찬성 하였다.

내가 어제밤에 꿈을 꾸노라니까 커다란 사슴 한마리가 나타났는데 사슴의 뿔이 어찌나 많은지(제 머릿통을 두드리면서)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앞에도 나고 뒤에도 나고 수십군데나 뿔이 돋은 사슴을 보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 깨어났음으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라고 말하는 사이에 대가리 가려운 데를 모조리 두드렸다. 내기는 내기인데 머리 두드리는 것은 뿔이 난 자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두드렸음으로 반칙은 아니었다.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코 흘리는 놈이 애 이놈아 만일 그 사슴을 내가 보았다면 이만한 화살로 이렇게 겨냥하여 쏘았을 것을 말이다. 그걸 내가 못봤으니 애참 분하다 라고 말 하는 사이에 활 쏘는 시늉을 하면서 코를 닦아 버렸다. 그것도 고의적인 반칙이 아니라 말의 표현상 부득이한 행동임으로 항변할 수가 없었다.

눈에 파리 피는 놈이 생각해 보니 두놈은 어물쩍 일을 치루었는데 혼자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음으로 애끼놈들 시끄럽다. 그런 사슴이 있다는 소리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팔을 휘휘 내들어서 파리를 쫓아냈다.

그러면서도 내기에는 질 수가 없었음으로 하루종일 앉아 있다가 임마 분명히 여기저기 뿔난 사슴을 봤단말여 하고 두드리고 글썽 내가 봤으면 이렇게 쏘았을께 아녀 애끼놈들 듣기싫다 듣기싫어 하면서 손을 내젓고, 그러나 서로 누가 못견디고 일어 났는지 아직도 내기를 계속하고 있다더라.

1985. 7. 20 용인읍 남리
박 중환(47세, 남, 농업)

피륙 먹은 절구통

과거를 보려고 서울을 가던 선비가 용인 주막에서 노자를 잃었다. 주막집 주인은 그것을 모른다고 발뺌을 하므로 고을 원에게 상소하게 된다. 결국 원님의 기지로서 잃은 물건을 찾고 무사히 과거를 치루어 금의 환향하였고 어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비를 세웠다는 전설이다.

충청도 보은 땅에 허명달이라는 선비가 살았다. 비가 새는지 기둥이 썩는지 집안 살림살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골쟁님이었다. 부인은 그런 남편 밑에서 오직 사주팔자 잘못 타고난 것이 죄라는 생각으로 집안 살림 저탕해 나가기만을 오로지 하였다.

과거철이 되어 모든 선비들은 길을 떠났으나 허 선비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부인은 피륙 몇필을 내어 주면서 길 떠나기를 재촉 하였다. 청주 진천 죽산을 지나 나흘만에 용인에 당도하였을 때 갑자기 뒤틀이 나서 주막 집을 찾아들었다. 선비는 급한 김에 등에 젖던 피륙을 들 앞에 있는 절구통속에 집어 넣고 뒷간으로 달려갔다. 위낙 화급을 다투는 지경까지 참고 참아왔기 때문에 양반이고 뭐고 체면이나 격식을 따질 입장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선비가 일을 마치고 나서 벗어놓은 붓짐을 찾아 보았으나 역시 붓짐이 눈에 띄지를 않았다. 여기 저기 두리번거리던 선비는 주막집 주인에게 붓짐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으나 아무것도 본 일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었다.

아니 금방 칩간에 갈때 절구통 속에 넣어 두었던 행장 붓짐이 감쪽같이 사라 졌는데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는 사람들을 보고는 하도

어이가 없어 좀 찾아 보라고 하자 주막집 주인은 오히려 뿔 어찌고서 엉뚱한 사람에게 생떼를 쓰느냐는 것이다. 너무나 경우 없고 적반하장 격인 처사에 격분한 선비는 마루위에 두었던 절구통에 넣었던 이집 문안에서 잃은 물건인 양이면 변상을 하든지 정 그도 아니면 사과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주막집 주인은 칙간을 핑계대고 물건 잃은척 변상하라는 수작을 보아하니 상습 공갈 협잡배가 분명하다고 몰아 세우면서 게다가 양반 행세까지 하고 있으므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이토록 박정하고 야박스러운 경우 없는 세상을 처음 겪어보는 선비의 낙심도 낙심이려니와 이런 변변치 못한 가장이 그래도 금의환향 하기를 고대하고 있을 가솔들을 생각하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다. 생각다 못한 허선비는 용인현 관아로 찾아가 이런 사정을 털어 놓았다. 사정을 듣고난 현령은 즉석에서 나졸을 시켜 그 주막집 주인을 데려오도록 하였으므로 포졸들은 불문곡직 주막집 주인을 포박해 왔다. 이를 본 현령은 포박을 풀도록하고 그 선비가 주막에 들러 용변을 본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절구통 속에 두었다는 붓짐을 보았느냐고 물었을때 주막집 주인은 물건을 본 일도 없으려니와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현령은 잘 알았다면서 선비의 행장 꾸러미를 삼킨 놈은 바로 그 절구통이 틀림 없다며 너는 절구통 잘못둔 죄가 있으니 당장 그놈을 묶어 오라고 말했다.

주막집 주인은 하는 수 없이 무거운 절구통을 끌어다가 대령 하니 현령은 절구통을 보고는 “절구통은 들으라 네 놈은 본시 곡식이나 찜도록 되어 있음에도 선비의 행장 꾸러미를 먹어 버려 선비의 과거길이 막히고 십년공부가 허사가 되었으므로 중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말하더니 주인에게 이른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장형이나 주리를 틀어 귀양살이를 보내는 법

인데 하물며 도적질한 절구통이 어찌 죄를 아니 받겠는가라고. 그리고 주막의 주인은 절구통 잘못 다스린 죄가 있음으로 그놈을 저다가 강원도 영월땅에 유리 안치 시킬 것이며 밀둥이 썩어서 구멍이 날때 까지 대죄토록 할것이니 당장 이행 하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이 말을 듣고서야 주막집 주인은 애걸 하면서 선비가 잃은 물건을 변상 하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그 무거운 절구통을 영월까지 지고가기 보아야 변상하는 것이 백번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이렇게 해서 현령의 기지로 잃은 물건을 다시 찾은 선비는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고 금의환향 하였다고 전하는데 이같은 일이 있는 후로 고을 백성들은 현령의 선치를 칭송하고 송덕비를 세웠는데 오늘날까지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의 비석거리에 전하고 있다고 한다.

1979. 3 용인읍 역북리
이 일영(전 용인문화원장)

제 3 부 야담(野談)

여 백

남이(南怡)와 귀신

용인현 읍지나 경기지(京畿誌)를 보면 이 장군이 용인 사람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려실기술이나 국조기사(國朝記事)에는 남이는 권람(權擘)의 넷째딸과 혼인 하계 되는데 이에 얽힌 이야기이다.

남이 장군이 어렸을때 어머니와 함께 한양의 외가집에 갔을때 그곳 동리 아이들과 어울려 제기를 차고 있었다. 그때 젊은 처자 하나가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채 빨간 보자기로 무엇인가를 싸 가지고 머리에 이고 가고 있었다. 남이가 가만히 바라보니 분바른 요괴 하나가 보따리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남이는 함께 있던 아이들을 보고 여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르키면서 야 저여자가 이고 가는 보따리 위에 분바른 귀신이 앉아 있다. 그자? 애들아 안보이니? 하고 소리쳤지만 다른 아이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저게 안 보여? 잘봐 얼굴에 하얗게 분바른 귀신이 있잖아 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남이의 눈에는 분명히 귀신이 보였던 것이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나머지 그 여자의 뒤를 쫓아가다 보니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남의 집 안까지 들어 갈 수 없었던 남이는 문밖에 서서 동정을 살피면서 필시 변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더니 집안에서 갑자기 애고지고 하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이는 이크 분명히 그 귀신의 짓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자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다. 의젓하게 대문

앞으로 나아가서 아주 어른스럽게 이리 오너라, 게 아무도 없느냐?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늙수그레한 하인 하나가 나와서 뉘덕 도령인데 이 경황중에 찾아 왔느냐고 묻는 꼴이 별로 달갑지 않은 기색이었다.

남이는 자세한 말은 뒤로 미루고 우선 묻겠는데 이 댁에 무슨 변고가 일어났오? 그게 궁금하니 말좀 해 보시오 하였다. 하인은 내키지 않았으므로 어린 도령이 별일을 다 참견하시요. 이대 막내 따님께서 갑자기 숨을 거두시었오. 원 세상에 이렇게 기막힐 때가 또 있겠오? 그러도 곱고 착하시던 따님이 말 한마디 못하시고 절명하시다니 사람의 목숨이란게 그리도 부질없다는 말이오. 하면서 허탈하다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남이는 혼잣말처럼 내 그렐줄 알았단니까? 하더니 할아범 속히 나를 따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시요. 라고 말했다. 하인은 아니 그건 왜 그러시오. 이 경황중에 도련님 같은 분이 거기를 무슨 일로 가신다하오 하고 선뜻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말에 남이는 소리친다. 일에는 완급이 있다지 않소? 빨리 안내하시요 하고는 더 기다릴것 없이 뛰어 들어갔다. 남이가 안채에 들어가 방안을 들여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길에서 보았던 그 분바른 귀신이 규수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이를 본 남이는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이 요망한 귀신아 그 손을 썩 놓지 못할까? 하자 귀신은 놀라면서 달아났다. 그러자 죽어 있던 규수는 살아나면서 휴 답답해 물좀 주세요 하는 것이다. 울던 사람들이 모두 그치고 의외의 사실에 또 한번 놀라는 것이다. 더 있기가 멎적었던 남이가 밖으로 나오자 마자 또 죽었다면서 안에서 사람들이 우루루 물려나와 한번만 더 살려 달라고 붙잡았다. 남이는 복숭아 나무 회초리를 꺼어 들고 방에 가보니 이번에도 그 귀신이 가슴을 타고 앉아 목을 조르고 있었다. 남이는 회초리로 새차게 내리치면서 이 요망스러운 귀

신 같으니 감히 뉘 앞에서 살아지지 않느냐고 소리치자 귀신은 두려워 하며 살아지지 말았다. 그러자 처자는 별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났다.

남이가 그 집을 나오려 하자 그의 어머니인 듯한 마나님이 버선발로 뛰쳐 나오면서 여보게 어디를 가려는가. 잠시 지체 하셨다가 대감 퇴궐 하시거든 가게나 하고 만류 하였으나 시생 집을 나온지 오래되어 집에서 찾을 것이므로 가겠다고 한다. 이러는 남이를 붙들고 그렇다면 뉘덕 도련님이신지 함자라도 일러 주게 하자 의령위 휘(暉)의 아들이며 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부인은 뜻밖의 은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으나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음으로 하인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라고 시켰다. 남이가 살려준 처녀는 당시 좌상으로 있던 세도가 권람(權擘)의 막내딸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퇴궐하여 집에 돌아온 권람은 그간의 전말을 듣자 거참 기이한 노릇이로고. 그 젊은 도령이 귀신을 보았다는 말이요? 그래 그 보자기에 있던 물건은 무엇이었오 하고 묻자 정동 사돈댁에서 흥시를 보내 온 것인데 막내에게 먼저 집어 주었더니 그걸 먹다가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다. 권람도 남이가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을 알고 알아보니 막내딸과 연차도 걸맞고 또 인물이 아까와 사위로 맞이 하고 싶었다. 게다가 아이의 목숨을 살려낸 은인이니 이와 같은 연분을 어찌 저버릴 수 있으랴 하여 다음날 점장이를 불러 이들의 사주를 짚어 보라고 하였다. 명을 받은 점장이는 대감 아무래도 제명 대로는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허허, 그렇다면 내 딸 아이는 어떠한가? 하고 묻자 항공하와 여쭙기 어렵사오나 따님의 명운 역시 매우 짧은 듯 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식도 두시지 못하실 것이오니 그 복만 누리실뿐 화는 보시지 않을 터이니 사위로

맞으셔도 좋을듯 하옵니다 하였다.

그래서 남이는 당시의 세도가였던 좌상 권람의 사위가 되었고 11세 되던 해에 무과에 장원하여 이시애의 난을 토평하고 건위주의 야인 토벌에 큰 공을 세우니 그 위명은 날로 떨쳤다.

그의 나이 28세에 병조판서의 직위에 올랐으나 소인배의 참조를 받아 옥사하였다.

귀신을 쫓아 준 인연으로 권람의 사위가 되었던 남이는 점장어의 말처럼 명대로 살지 못했으며 그의 부인 역시 옥사가 있기 훨씬 전에 먼저 죽었음으로 복만 누리고 화는 보지 않았음으로 권람은 무사하였다고 전한다.

1980. 2. 13 용인읍 김량장리

남 상규(44세, 남, 공무원)

남도 유생과 화도화(花桃花)

남도 유생이 채제공 선생의 묘하에 있는 뇌문비에서 신세 타령을 하다가 꿈을 꿔다. 이때 채정승이 나타나 시제(試題)를 알려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정조대왕은 학문을 좋아하여 궁중의 도서를 두루 탐독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문벽서(奇文僻書)도 널리 섭렵하여 박학다식하신 임금으로도 이름이 있었다.

한번은 일서(逸書)인 불경에서 화도화(花桃花)라는 구절을 보았다. 화도화란 즉 <꽃이 핀후 복숭아가 되고 다시 꽃이 핀다>는 뜻으로써 목화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임금은 이 나라 안에서 화도화를 아는 사람은 정조 자신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득의롭게 여겨 이를 한번 과거의 시제(試題)로 삼아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천하 문장이던 채제공 만은 꺼리지 않을 수 없었다. 채제공은 타계 한 후 과거령이 공포되었는데 정조는 마침 그 글제가 떠올라서 시제로 삼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이때에 남도 유생 한 사람이 과거 응시차 한양을 향해 가다가 용인역을 지나게 되었다.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던중 길 옆에서 있는 비석을 보았다. 비명(碑銘)을 보니 바로 임금께서 친제(親製) 하여 채제공에게 내려신 뇌문비(諫文碑)였다.

선비는 비석을 향하여 넘죽 절을 하면서 산 사람을 대하듯 신세타령을 늘어 놓았다.

고명하신 영상을 이렇게나마 뵈게 되오니 기쁘웁니다. 시생은 호남사는 생원 이가라 하옵는데 과거차 한양을 가는 길입니다. 소생은 병술생으로 서른 다섯이 읍니다만 번번히 낙방거사가 되어 가세 곤궁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번 과거 길에는 아내가 머리를 깎아 마편해 준 노자로 올라오기는 하였으나 뒷줄이 있나 돈줄이 있나 하릴없이 낙방하여 백두로 늙어지면 어찌 조상을 대할 것이며 금의환향을 학수고대 하고 있는 아내는 어찌 대하겠습니까? 천사만려 생각한 끝에 낙방하는 날로 황천 길이나 떠나려 작정하였으나 또한 생각하니 죽는 놈은 죽는다 손 치더라도 죽은 놈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을 가솔을 생각하면 이 또한 눈을 감을 수 없는 노릇이 아니오이까? 조상의 묘를 잘못 쓴 탓인지? 아니오면 사주팔자에 미역국 먹은 귀신이 붙었는지 그도 아니면 집터를 잘못 잡았는지 재물하고는 담벽을 쌓았고 돈 하고는 걸원지간이니……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신세가 요모양 요꼴이란 말씀입니까? 흑여 혼백이라도 들으시거든 어찌해야 좋을지 시생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 선비는 자신의 신세가 하도 처량하여 이처럼 넉두리를 늘어 놓았던 것이다.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근처 사랑방을 찾아가 유숙하게 되었다.

그날 밤 꿈에 채정승이 나타나서 <이번 과장에는 시제로써 “화도화”라는 것이 날 터인즉, 그것은 목화를 이르는 것이니 글을 지어 올리라>고 하였다.

잠을 깬 선비는 너무도 꿈이 역력하여 이를 명심해 두었다가 과장에 나가보니 정말 꿈에 들은 대로 의 시제가 걸려있었던 것이다.

다른 선비들은 제의(題意)를 알지 못하여 한결같이 잡쳤으나 이 선비만은 자신있게 한 수 지어 올렸으니 <開而結而發而하니 綠兮黃兮白兮라> 즉, <열리며 맺고 피어나니 푸르며 누르며 희도다>라는

글이었다.

한편 정조께서는 과연 정답이 있을까 궁금하였다. 만장이 타백(打白)이었으나 단 한 사람이 바르게 글을 지어 바쳤다. 정조께서는 이 글제를 써 낸 선비를 장원으로 뽑아놓고 하문하였다. 너는 어찌 이번 글제를 알아맞췄다는 말인가? 옥음이 떨어지자 선비는 순순히 털어놓았다. 선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조께서는 참으로 기이하다고 말씀하시며 생전의 체제공을 더욱 잊지 못하여 숙연히 말하기를, 역시 체제공은 죽은 후에도 당할 수가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1979. 5. 13 외사면 가창리
임국재 (63세)

남은(南閻)의 이불속에 숨었던 유정현(柳廷顯)

조선 초기 유정현이라는 벼슬아치가 있었다. 죽을 죄를 짓고 피해 다니다가 개국공신 남은(南閻)의 첩실이 잠든 이불 속으로 숨었다가 목숨을 건졌다는 야화이다. 남은의 묘소는 용인군 남사면 창리 화곡부락에 전하고 있다.

조선 초기 대감의 직위에 있던 유정현(柳廷顯)의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빗장이가 대감집에 빗독촉을 갔을 때 이 데에서 식량을 맡고 있는 종과 시비가 되었다. 종의 생각으로는 대감댁에서 빗을 줌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체 높은 양반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삼가해 주어야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나무랐던 것이다. 그러나 빗쟁이도 중인 이기는 했을 망정 있는 것이 세도였음으로 이때나 양반댁 앞에서 큰 소리 낼 수 있지 않겠느냐 면서 듣기 싫으면 남의 빗 값으면 될것 아니냐고 했다. 또 주인도 아닌 자가 주인 대감 기세 믿고 큰소리 탕탕치는 꼴이 비위에 거슬려서 꽃감이구 대감이구 남의돈 썼으면 값을 일이지 종놈의 주제에 웬 참견이냐고 한 것이 화근이었다. 종도 종 나름이지 별 수 없는 빗장이가 돈푼이나 있다가 대가 집 하인보고 함부로 종놈 종놈 하는 것에 불등 울화가 치민 그 종놈이 종놈의 뺨뺨를 좀 보여 준다는 것이 그만 지나쳐서 빗쟁이를 죽여 놓았던 것이다. 이를 두고 권문세도가에서 무고한 양민을 타살 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피해자 측에서 조정에 탄원서를 올렸음으로 이태조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고 조정 권신의 횡포가 이

러하다면 누가 이 조정을 믿고 따르다는 말이냐? 고 대노하여 당장 유정현을 잡아들이라고 하였다. 일이 이쯤되자 살아 남지 못할 것을 눈치 챈 유정현은 포졸에게 쫓기어 도망 간다는 것이 남은이 좋아하는 첩실 망금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잠든 이불속으로 들어가 누워 버렸던 것이다. 망금은 잠결에 더듬어 보니 남자가 손에 잡혔다. 잠든 사이에 영감이 들어온 줄 알고 오셨으면 깨우실 일이지 왜 그러고 계시요 라면서 등축을 밝히려 하자 유정현은 숨을 죽이고 있다가 겨우 입을 떼었다. 「나, 나 유정현이외다」 이 소리를 듣자 망금은 질겁을 한다. 다급해진 유정현은 ‘내집 하인이 국법을 어겨 살인을 했음으로 내가 대벽(사형)을 당하게 되었기로 여기와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오이다’ 라는 것이다. 생각 해보니 유정현의 처지를 가련하게 생각한 망금은 이불 속에 숨겨 놓고 남은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소첩에게 죽을 죄가 있어와 치죄하여 달라고 죄를 청했다. 무슨 연유 인지를 묻자 망금은 말한다. 소첩이 잠든 사이에 유정현 대감이 소첩의 이불 속에 누워 계시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죽을 죄라고 하였다. 남은은 탄식 하면서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을 죽였으니 죽어 마땅하며 자네 또한 그를 숨겨 주기로 허락 하였으니 스스로 죄가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다는 말인가? 라고 하였다. 이튿날 남은은 첩실을 데리고 입궐 하였다. 태조 앞에 부복하여 그간의 경과를 소상히 밝혔다. 태조는 어찌하여 그랬느냐고 묻자 망금은 말한다. “본디 사람의 목숨은 하나이온데 종의 허물로 인하여 귀중한 목숨을 잃게 된 마당에 그 처지가 오죽 하였으면 대감의 체통에 어찌 선네의 처소까지 숨어 들었겠아옵니까? 비록 국법이 지엄하여 대벽을 당할 처지 이오나 살기를 위하여 그러한 것임을 보고 차마 인정상 떨칠 수 없어 숨겼나이다. 하오나 이 또한 스스로 득죄한 것이오니 선네 오직 죽기를 기다릴 따름 이라” 고날날이 고했다. 이를 듣고 태조도

가련히 여기고 또 남은을 보아 유정현을 용서하였으므로 모두 무사하였다. 대감이란 체통을 돌보지 않고 남의 첩실이 잠든 이불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인연으로 목숨을 건져 후일 그 은혜를 갚았다는 일화이다.

1980. 3. 27 남사면 창리
남 창현(60세, 남, 농업)



양파 정선생의 예언

조선 초기의 명신 양파 정태화 선생의 행적에 얽힌 일화이다. 용인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상세치는 않으나 예로부터 전해오고 있는 이야기이다.

양파 정선생이 시자를 거느리고 용인의 객사에 머무르면서 시정을 돌아 보고 있었다.

어느날 한 곳을 지나다가 문득 멈추어 서서 거 참 좋기는 좋다마는 하고는 달 꼬리를 흐렸다. 그의 뒤를 쫓던 시자는 무슨 영문인지 궁금하기는 하였으나 의중을 헤아릴 수 없어 묵묵히 서 있었다. 일을 마치고 다시 객사로 돌아오던 선생은 먼저번 그자리에 한 동안 서 있다가 또한번 좋기는 좋다마는 하더니 돌아서면서 말꼬리를 흐렸다.

일이 궁금하여 뒤따르던 시자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으나 선생은 글세다 라고만 할 뿐 말을 하지 않았다.

용인에서 일을 다 마치고 한양으로 가다가 그 자리에 이르자 전과 똑 같이 서 있다가 똑 같은 말을 하는게 아닌가? 시자는 이곳에 무슨 묘자리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노망기가 들어서 인지를 분별 할 수 없어서 그 연유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래도 선생은 대답을 하지 않다가 하도 성가시게 굴었음으로 에끼 놈 무에 그리 궁금 하더냐? 내가 서 있던 곳에 가지뎀불이 있지 않더냐 그곳이 바로 천하에 둘도 없는 집터이기는 하나 또한 횡액이 겹쳐 있는 고로 그리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 시자는 명당터라는데 바싹 구

미가 동하여 좀더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하여 줍시사 하고 졸랐다.

그러자 선생은 말하기를 바로 그자리를 얻어 집을 지으면 10년을 못가서 거부가 될것이나 10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횡액을 당하여 또한 불운하게 죽을 것이며 화복이 상치한 곳에서 일시 부를 누리다가 또한 속절없이 제명에 죽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리라 하는 것이다.

늘 궁핍하게만 살아온 이 시자는 10년 후에 죽더라도 십년 동안은 거부가 되어 호강이라도 싫건 해보구 죽는 편이 낫으리라 생각 되었기로 영감마님 저희 같은 천한 것들이야 단 하루를 살다가 죽는다 해도 원없이 먹고 입고 호의호식이 어떠한 것인지나 맛보고 싶사옵니다. 평생 글을 배웠으니 세상물정을 알겠사옵니까? 이 신세에 관직에 나가 권세를 누릴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하루라도 편히 먹고 걱정없이 살아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운데 10년을 잘 살수 있다 하오면 어에서 더 바랄것이 무에 있겠사옵니까? 선내 같은놈이야 당장 죽는 것이 무서운 일이지 10년 후에 죽을 일까지는 걱정이 없습니다요 하면서 마님 곁을 떠나고 싶다고 애걸을 한다. 선생이 그놈 사정을 듣고 보니 그도 그럴 듯하여 허락해서 보냈다.

시자는 남부여대하여 오직 집터 좋다는 그곳을 찾아가 오두막을 세우고 일을 시작했다. 살아가는 동안 무슨일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절로 이루어지고 조금만 꿈지럭 거려도 술술 돈이 굴러 들어왔다. 이러다가 정말 몇 해 아니되어 초가집이 기와집이 되고 거부가 되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수 있었다.

그렇게 몇년이 지난 어느날 웬 방물 장수 내외가 들어 오더니 남

편은 밖에 서있고 여인은 사랑방으로 들어오면서 물건 좀 갈아 줘 소
사 하고 간청하는 것이다. 이 부자는 내 집에 없는 물건이 없고 부
족한 것도 없으니 무엇을 사겠는가 하고 아무것도 살 물건이 없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방물장사 여인은 알겠노라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
리고 잠시 시간이 지났는데 밖에 서있던 방물 장수의 남편이 방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보 물건을 안사겠다면 빨리 나올 일이지 게
서 뭘 하오' 라고 큰소리로 떠들지 않는가. 이 부자가 밖을 향해서
댁의 아내는 이 방을 나간지 오래인데 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하
자 언제 나왔느냐고 하면서 아내를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른다.

원 이렇게 딱할수가 있겠는가. 나가고 없는 사람을 안에 있다고
내 놓으라니 정 믿어지지 않거든 와서 찾아 보라고 할 수 밖에. 이
말이 떨어지자 장수의 남편이 불쭙 들어와서 벽장 장롱을 마구 뒤지
다가 병풍 뒤에서 분명히 나가는 것으로 보았던 그 여인이 가슴에
칼을 맞은 채 죽어 있지를 않겠는가?

박물 장사의 남편은 이놈이 유부녀 희롱하다가 죽여 놓았다고 펼
펼 날 뛰는데 부자가 생각해 보니 이날이 바로 10년 하고 하루가 지
난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놀라고 기겁하여 10년만 부자로 살다 죽
는데도 인생은 넉넉하다고 하던 친구가 그저 뒤도 안돌아 보고 즐행
랑을 치고 말았다. 원 세상에 이렇게 기막힐 일도 있담. 그 대감의
말씀이 단 하루도 틀리지 않았으니 어찌 사람의 앞 일을 그리도 잘
보셨을까? 하면서 한양의 대감댁을 단숨에 달려갔다.

이 시자는 아이고 대감마님 하고 푹 거꾸러지자 대감은 내 그럴줄
알았네 하면서 꺾꺾 웃었다. 여보게 이사람 10년을 하루도 넘기면
안된다는 내말을 잊었던게로군. 만일 10년을 더 부자로 살고 싶거
들랑 지금 곧 동대문 밖을 나서면 황소만한 개가 있을 터인즉, 그 주
인이 달라는 대로 금을 쳐주고 그 개를 데리고 즉시 자네 살던 곳으

로 가게나 하고는 문을 닫는다.

시자는 예 분부대로 합지요만 그후는 어찌합니까? 하고 물었으나 이번 일은 잘 될테고 다시 십년은 탈이 없을 것이다. 그 이전에 그 집을 떠나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방도가 없는 줄을 명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시자는 대감이 말한대로 가 보았더니 정말 황소만한 개가 있었다. 먹는대로 하루에 여나므 근씩 고기를 먹이면서 그 집까지 끌고 갔더니, 자기집 마당에는 원 동네 사람이 다 모였는데 칼 맞은 박물 장수 여편내의 시체를 내다 놓고 아직도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남편이 애고 지고 돈 있는 놈 행패를 보라고 법석을 떠는데 이 때 데리고 갔던 그 황소 같은 개가 으르렁 짓더니 방물 장수의 목을 물고 늘어졌다. 이거 큰일이었다. 개가 그 사람마저 죽인다면 어찌 살인의 누명을 벗어나리오. 그런데 이견 또 어찌된 노릇인가? 개가 물고 늘어진 그 남편은 꼬리가 아홉이나 달린 구미호로 변신하여 쭉 뻗었고 죽은 시늉을 하던 여편내도 여우로 다시 둔갑하여 도망가다가 역시 개에게 물려 죽었다.

그후로 10년을 무사히 더 살던 이 부자는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훌훌 떠나고 난 그 다음날 큰 불이 저절로 나서 살던 집을 모두 태웠으니 선생의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전하나 그 집터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85. 4. 15 용인읍 김량장리
정 양화(31세, 남, 교사)

박원형(朴元亨)의 사돈이 된 녹사(錄事)

외교가로서 이름높던 박원형은 용인 사람으로 외사면 옥산리에 그의 묘가 있다. 이분이 정승으로 있으면서도 하급 관리의 아들에게 막내딸을 시집 보내는 선견과 지벌의 악습을 타파하려 했던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전라도 남원 사람으로 윤처관(尹處寬)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가세가 곤궁하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다. 그 부인은 남편이 과거에 떨어질 때마다 내조의 정성이 미약했음을 자책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남편을 위로하였다.

윤처관은 생각다 못해 얼마 안되는 가산을 정리하여 한양의 빈민촌으로 이사하였으나 호구지책이 어려웠음으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의정부 녹사자리 하나를 겨우 얻어 일하면서 틈틈히 과거에 응시해 봤으나 늘 낙방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날 정승 심희(沈繪)가 내일 일찌기 박원형 정승 댁에 가서 무슨 전갈을 하고 대답을 받아 오라는 것이었다. 처관은 일찍 일어나서 박정승집 녹사에게 명함을 들여 달라고 하였으나 대감이 아직 주무시고 계시므로 일어나시면 들이겠다는 것이다. 하루종일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으므로 되돌아온 처관은 심정승에게 경과를 말했더니 내일 다시 가보라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처관은 아침을 뜬후 막 잠이 들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며 어머니 점심 주시요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잠이 깼다.

처관은 들어오는 아들을 붙들고 이놈아 너는 공부를 잘해라. 애비는 과거를 못한 까닭에 녹사 노릇하다가 갖은 창피를 다 당하였느니라. 너마저 무현관(無顯官)으로 군정(軍丁)이나 박헌다면 씻지 못할 가문의 수처이니라 하면서 그날 박정승 집에서 당한 창피했던 일을 말했다.

이튿날도 일찌기 박정승 댁에 찾아가서 전날 들었던 명함을 그대로 녹사에게 전하고 허술청에서 잠시 있으려니 곧 처관을 들라는 전갈이 왔다. 주인 대감은 무슨 일로 왔느냐는 묻지도 않고 처관이 들인 명함을 내 보이면서 명함 뒤에 쓴글이 뉘것이나고 물었다. 처관이 자기가 들인 명함을 받아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승 대감이 해가 높도록 주무시니 / 문전에 들인 명함이 피어서 털이 되었네 / 꿈에 만일 주공을 만나시거든 / 모름지기 정승이 되었을 때 / 손을 맞이하기 바빠서 먹던 밥은 몇번이나 토했는지 물어보라

相國甘眠日正高 門前刺紙已生毛 夢中若見周公聖 須問當年吐哺勞

다시 말하면 성인으로서도 이러하였는데 그도 아닌 정승이 손님 맞이 하기를 그토록 소홀히 하느냐고 책하는 것이었다.

글씨를 보니 자기 아들 효손(孝孫)의 필적이었음으로 머리를 숙여 대신 치죄(治罪)하여 줄것을 당부 하였다. 그런데 박정승은 아이를 데려 오라고 명령 하였다. 처관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가면서 박정승도 딱한 양반이구나. 어린아이 장난을 죄주려 하시다니…… 장탄식을 하면서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말하고 아들 효손이를 찾았다. 그 부인은 아들에게 옷을 입혀 보내면서 그렇게 작난질만 치더니 정승 대감께 매까지 맞으러 가는 고나 하고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아들을 데리고 정승집에 이른 박처관은 자식놈 대령 하였어웁니다

라고 고하였더니 정승은 효손을 아랫방으로 오게 하여 손도 만져보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고놈 글만 잘 하는줄 알았더니 얼굴도 귀꼴이 구멍 하더니 네가 글로써 내 부족함을 깨우쳤으니 이후 나라 일도 그와 같이 보익(補益) 하라고 이른 뒤에 청적이를 시켜서 지필묵을 후하게 주도록 한다음 처관을 보고는 이 아이는 장차 국가에 유용한 인재가 될것이니 잘 보육하라고 당부하면서 이후 부터는 내집에 올때는 명함을 들일것 없이 자유롭게 출입해도 좋다고 하였다.

이들을 보내놓고 박정승은 내실로 들어가서 부인에게 말한다. 오늘 우연히 어떤 아이를 보았는데 나와 같은 지위까지는 몰라도 상당히 벼슬 할만한 인물을 보았는데 막내 딸 아이와 연기(年紀)도 비슷하여 사윗감으로는 적격이나 지벌이 부족하여 집안에서 불만이 있을 까하오 하자, 지체가 좀 낮더라도 훌륭한 양재(良材)면 상관없지요 한다음 뒤집 자식이냐고 물었다.

박정승은 천연덕스럽게 녹사다니는 윤처관의 아들임을 밝히자 부인은 깜짝 놀라면서 녹사도 벼슬이오? 하인과 다를바 없는데 덜도 아닌 막내딸을 녹사집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요? 이제 대감도 망녕 줄에 닿았나 보시는구려. 하면서 못마땅해 한다. 그러나 박정승은 녹사의 아들이 대감집 사위 못된다는 전례도 없으려니와 요즈음 재상집 아이들 관상을 보아하니 모두들 흉기(凶氣)를 띤 사람이 많아서 저어스러운 바요, 허나 처관의 아들은 길기(吉氣)가 만면해서 일평생 안온할 터인즉 이다음에라도 세력이나 부자를 탐하지 말고 인물을 보라고 이르는 것이요 라면서 결행할 것을 확인하였다.

정승은 윤처관을 불러서 자기의 뜻을 전했으나 처관의 생각에는 만 조백관의 자제를 마다하고 자기와 같은 비천한 신분의 자식에게 딸을 준다고 하는데에는 다소 의심쩍은 데가 있었다. 필시는 천차이거나 병신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안전이라고 명을 거역 하겠는가? 허혼(許婚)을 하고 집에 돌아온 처관은 병어리 냉가슴 앓듯 하다가 그일을 부인에게 말하고 아들을 불러 들인 다음 효손아 박정승이 너를 사위로 삼겠다니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다만, 혹 그딸이 천치나 병신이더라도 그것이 내 운명인 것을 허물치 말아라 하면서 타이른다. 효손은 머리를 두둑 긁으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대로 봉행 하리다 라고 하면서도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박정승은 대궐에 들어가 녹사의 아들과 정혼한 일을 아뢰니 임금께서는 당당한 정승집 딸을 여찌 녹사에게 보내랴 하시고 윤처관을 장사(長沙) 현감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박정승은 당일로 택일하여 처관이 현감으로 떠나기 전에 혼례를 치르도록 서둘렀다. 박정승 부인은 녹사의 아들과 혼인 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음으로 그날로 몸져 누었다.

혼인날에 윤효손이 백마를 타고 오는데 풍채가 관옥(冠玉)같아 모였던 친족들이 모두 찬탄했으며, 여중들이 신랑을 칭찬하는 소리 또한 대단하였다. 정승 부인도 하는 수 없이 겨우 세수나 하고 신랑을 바라보니 가히 옥골선풍의 가랑(佳郎)이 아니던가. 이를 본 장모는 효손의 등을 두드리며 그럴테지 우리 영감은 그러실 태지 하면서 일어나마 웅졸히 굴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희색이 만연했다.

그날밤 모인 소년들이 시문으로 그를 시험해 보았으나 구(句)마다 명작이었으므로 모두 박정승의 선견을 탄복하였다.

그뒤 효손은 소년으로 급제하여 의정부 좌참찬에 이르렀고 슬하에 7남매를 두었고 73세까지 수를 누리면서 그 부인과 해로 하였다고 전한다.

1984 9 10 용인읍 운학리
최 희면(30세, 남, 공무원)

이 완(李浣) 대장과 방울장사

조선 효종 임금은 북벌을 계획하여 은밀히 유능한 인재를 구하고 있었다. 성상의 지우(知遇)를 받은 이 완(李浣)은 훈련대장으로써 인재들 만나면 군문(軍門)에 데려다두고 효종께 아뢰었다. 이완 대장이 용인 장에서 어린 장사 방울(朴鐸)을 만나 장차 북벌을 위한 인재로 쓰려 했던 야화이다.

이완 대장이 용인의 선산으로 성묘하러 갈 때 광주를 지나 용인의 모현촌 경계에 이르렀다. 그날은 용인 김량점(金良店) 장날이었기 때문에 촌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가고 있었다. 그중 맨 뒤에 한 18세 정도 되어 보이는 총각이 지게에 참나무 장작을 잔뜩 지고 가는데 보통 사람보다는 3배 이상 더미가 컸다. 걸음걸이 또한 나는듯 하여 앞사람들을 쫓 비키라고 소리치며 좁은 길을 가다가도 미처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손으로 번쩍들어 옮겨 놓으며 앞으로 나가는데도 사람들은 한마디 군소리도 못하는 것이다. 마상에서 이를 본 이완 대장은 하도 신기하여 뒤를 따라 가면서 행인에게 그놈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말하는데 모현촌 숲가마골에 사는 방울이라는 놈인데 홀 어머니와 화전을 일구어 먹고 산다는 사람도 있었고 힘이 원체 셀 뿐만이 아니라 성미가 거칠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는 지성껏 무엇이든 시키는대로 순응하여 효자로서도 이름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 대장은 성묘길을 돌려 그의 뒤를 따랐다. 주막에 사처(私處)를 정하고 평복을 차려 입은 다음 장터로 나아갔다. 천번의 나뭇전으로 가보니 다른 사람의 장작과 숯 짐은 다 팔려갔으나 해가 기울도록 방울이란 놈의 장작짐을 보고는 값을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던 차 빙거지에 흑의를 걸친 나졸 하나가 건아하게 취해가지고는 그 앞으로 가더니 흥정을 하는 모양이었다. 이 대장은 이들의 하는 양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자니 얼마냐고 하니까 방울이는 일곱돈을 내라고 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장작에 비하면 석짐은 될거라면서 그것도 해가 저물어 헐값에 파는 것이란다. 그러나 나졸은 막부가내로 다른 장작값대로 서돈을 주겠으니 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방울은 들은체도 하지 않다가 지난번에도 빼앗고 돈을 주지 않았으니 당신같은 나졸에게는 아니 팔겠다고 한다. 말이 떨어지자 말자 나졸은 뭐 안 팔아 이놈 하더니 철썩하고 방울이의 뺨을 갈긴다. 얻어맞은 방울은 이 양반이 무고한 백성을 때린다며 그 놈을 번쩍 치켜 들었다가 개울로 내던지니 한 이십여 길이나 나가 떨어졌다. 이때 다른 나졸 10여명이 우르르 몰려나와 관차(官差)를 능욕했다 하여 육모 방망이를 휘두르며 물매를 주려하자 방울이도 장작깨비 하나를 빼어들고 이놈치고 저놈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려볼 엄두도 내지 못한다.

보다 못한 이 대장은 하인과 마부를 시켜 이들을 말리라고 하였기로 그중 하나가 장이 파혔으니 멈추라고 하였으나 남이야 싸우던 말던 웬 참견이나면서 말리는 사람에게까지 육모 방망이를 휘둘렀다. 원래 대장집 하인은 포교(捕校)의 통부(通符)를 차고있었기 때문에 그 통부를 내어보이면서 이놈, 주제넘은 놈 같으니 한양의 우리네도 행색을 삼가하거늘 소읍의 사령 놈들이 어느 안전에서 촌사람을 마구하느냐고 소리치자 나졸들은 줄행랑을 치고 말았다.

그제서야 이 대장은 방울이에게 다가가서 그 장작짐을 모두 사겠다고 말하고 주막으로 데려왔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서당 선생이 박 탁(朴鐸)이라고 지어주어 사람들이 방울이라 한다고 했다.

이말 저말 물어보니 배운 것은 없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솔직하여 기특하기만 했다. 장차 크게 쓸만 하므로 그가 사는 집을 가 보았다.

이 대장은 신분을 밝히고 방울이를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나라에 큰 기둥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던 그의 어머니는 제 아버지가 산성의 문직이로 있다가 정축년에 되놈에게 죽고 유복자로 태어난 저것을 키웠읍니다. 박가의 손이나 이어가게 하려고 이러한 궁벽한 곳에 들어와 숨어 사옵니다만 만사는 팔자의 소관이니 여찌하랴 면서 장탄식으로 허락하였다.

이 대장은 용인에서 천하장사를 얻어왔음을 효종께 상주 하였다. 인재를 구했다는 이 대장의 말을 들은 효종은 어떤 인물인가를 보고자 하여 그를 곧 들이라고 하였다. 편전(便殿)에 나간 방울은 편전 마루끝에 걸터앉아 상감님은 좋은 옷만 입으신다더니 무명 옷을 입었구나 하면서 무례히 굴었다. 상감께서는 웃으시며 여러 가지 말을 시켜보시고 나서 참으로 진실한 백성이니 이 대장이 데리고 나가 잘 가르치면 장차 크게 쓸만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흡족해 하였다.

이 대장은 그날부터 천자를 가르치고 보니 총명하기가 이룰데 없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의 물리를 터득하여 두어 달이 지나서는 통감을 독파하였다. 초한전쟁을 읽고 병략을 말하는 것이 숙장(宿將)으로도 못할 의견을 설과하므로 이 대장은 천하의 보배보다도 그를 더 아꼈다.

사서오경과 육도삼략을 떼고 손자병법과 제갈량 심서(心書)를 완독하여 장재의 지략을 가추었을 뿐만이 아니라 활쏘기, 말달리기 모든 기예에 능통하였으므로 방울이의 동정을 전문하시던 효종께서는

매우 흉족히 여기셨다.

이 대장은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는 상감께서 북쪽 오랑캐를 정벌 하시어 인조 임금의 통한을 설욕하고 만주 일대의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시려 한다는 장한 뜻을 방울이에게 말하였다. 방울(朴釋)은 이 말을 듣고 분연히 일어서서 창을 휘두르며 반드시 선봉에 서서 북쪽 오랑캐를 무찌르고 영토를 회복하여 성충에 보답하리라면서 이를 갈아 마셨다.

효종께서도 크게 기뻐 하시며 이들 모자에게 각별히 성충을 내리셨다

그러나 어찌하랴! 국운이 미치지 못하여 성군(聖君) 효종께서 별안간 승하하셨으니 그 분의 원대한 포부도 물거품이 되었다. 아 통한스러운 일인지고, 그 장한 뜻이 허사가 되었으니 국운이 이것 밖에 되지를 앓더란 말인가?

상께서 붕어하셨다는 말을 들은 박탁 방울이는 눈에서 피가 나오도록 울더니만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리오, 충효는 불가양전(不可兩全)이라 하였으니 시골이나 내려가서 어머니나 봉양하리라 하고 이 대장에게 하직하고 나갔다.

이 대장은 박탁을 보내면서 상감이 승하하시니 모두 떠나는구나 하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한다.

1985. 10. 10 내사면 식금리
신 경희(86세, 여)

평 덕에 출세한 이주국(李柱國)

영조 때의 무장 오백당(梧柏堂) 이주국(李柱國)이 무과에는 급제 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때 꿩 사냥을 갔다가 벼슬을 얻은후 명무(名武)가 되었다는 야화이다.

오백당 이주국은 용인 태생으로서 일찌기 무과에는 급제 하였으나 내외중간이었던 당시의 세도가 구선복의 미움을 받아 벼슬길이 막혀 있었다.

영조 말년의 어느해 주국은 서울 삼청동 뒷산에서 벌터질(활에 살을 먹이지 않고 시위만 잡아다녀 쏘는 연습을 하는 것)을 하고 있었다. 이때 장끼 한마리가 푸드득 치솟아 오르므로 쪼뻑하게 살을 먹여 쏘았더니 꿩은 살을 맞고 어느 대가집 후원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덱은 바로 영조의 사돈이며 장현세자의 장인이 되는 흥봉환의 집이었다. 이를 알리 없는 이주국은 그집 솟을대문 앞으로 가서 하인을 불러내어 여보게 내가 뒷산에서 꿩을 쏘았는데 이덱 후원으로 떨어 졌으니 꿩일랑 자네가 갖고 살이나 찾아주게 하고 집값게 말했으나 세상물정 모르는 피뢰죄한 옷차림의 애송이가 와서 깉듯이 <허계>를 쓰는 데에 비위가 거슬렸다.

똘에는 감히 뉘덱 문전에 와서 누구를 와라 가라 하느냐는 생각에 다가 아무리 양반 계층의 백다귀라고는 하더라도 지체 높은 대감덱 후광이 그만 못하랴는 방자스러운 생각이 있었기로, 덱같은 사람에게 맞아죽을 평도 있음디까? 그따위 평이라면 이덱에 떨어지지도

얇소 하고 문을 팡 닫아 버렸다. 분통이 터져버린 주국은 대문을 걸어차 부수고 쫓아 들어가 놈을 번쩍 들어서 마당 한 가운데로 던져 버리면서 이놈! 중놈 주제에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었지 웬 놈의 잔 소리가 그리 심하더냐고 라고 꾸짖었다. 나가 떨어진 하인은 애고 나 죽소—라고 엄살을 떨었다. 그러자 그집 하인들이 우루루 몰려 나오고 왓자지껄 떠드레 하였다.

결국 흥분한 대감까지 이 일을 알게되어 주국을 들이고 보니 행색은 초라해 보였으나 듬직한 풍채하며 짐궂고 기품이 있어 보였다. 흥대감은 입을 열었다. 게 뉘신대 이토록 소란하단 말이고— 하자 그간의 경과를 말하면서 참으려 하였으나 지체 높은 대감대 하인의 버릇이 그러하여 혼썰감을 낸 것이오나 행패가 되었아오니 면목이 없다고 대답했다. 말이 끝나자 대감은 후원으로 들어가 썩이 떨어졌는지 알아오라고 하였다. 오래지 않아 장끼 한마리를 들고 나오는데 보니 화살 한대가 목을 꿰고 있었다. 주국은 화살을 뽑으면서 시쌍살을 찾았으니 썩일랑 대감 식찬이나 하시지요 하면서 하직했다.

흥대감은 주국을 붙들어 들이고 한담이나 하고 가자면서 잡은 썩으로 안주를 만들어 한 순배 돌렸다. 그동안에 주국의 뒹뒹이가 펍 마음에 들었다. 흥대감은 내 자네를 만나고 보니 얼른 보내고 싶지 않으니 병판으로 있는 내 아우에게 단찰로 자네 초사 자리라도 알아 보도록 할터이니 잠시 회답을 기다리며 천천히 한 잔 더 하자고 권했다. 한참 후에 녹사가 전해온 회답을 보더니 다소 실망하는 기색으로 여보게 자네가 관복이 없는가 보이. 이번 도목(都目)에는 후보자 내정이 다 끝났다네 라면서 안되었다는 표정이었다.

듣고 있던 주국은 벌떡 일어서면서 대감마님 아까 잡수신 썩 값은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대감은 함께 먹은 썩 값을 내라고 하는 말에 기가 찼다.

내 청하지도 않은 찜을 호의로 주었고 또 자네와 함께 먹은 것인데 지금와서 그 값을 내라는 말이지?—그러하옵지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서 주십시오.—

극도로 화가 난 대감은 꼬락서니 보기 싫으니 이자가 달라는 대로 쥐 보내라고 녹사에게 소리쳤다. 주국은 천연덕스럽게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서면서 이만하면 돼지 한마리는 사겠군 하면서 사라졌다. 이튿날 주국은 부인에게 여보 오늘쯤은 초사가 되었을 테니 천덕을 내 놓으시오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기별(寄別: 관보)에 가을파진권관 이주국(加乙波鎭權官 李柱國)이라는 보적이 주어졌다. …그럴테지… 주국은 즉시 홍대감 댁으로 달려갔다. 보야하니 어제와 그 무례한 이므로 하인들이 이핑계 저핑계로 따돌리려 하였으나 주국은 칼을 빼어들고 대감이 정 안 만나 주신다면 이곳에서 자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감은 몹시 언짢은 기색으로 자네 어제 찜 값은 다 받아 가지를 앓았는가? 라고 한다. 그러자 주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소생이 염치를 모르기로 어찌 대감과 함께 먹은 찜 값을 받겠습니까? 어제 대감께서 소생을 천거 하셨으나 계씨 대감께서 아니 들으시니 천우신조 하신 이번 기회가 아니고서는 다시 얻어볼 수 없겠기에 우정 대감을 노엽게 해드려서 대감 계씨께 향후에라도 아까 천거했던 이주국이라는 사람을 쓰지 말도록 하라고 분부 하실 것으로 생각 하였오오며 또 계씨 대감께서는 형님의 분부를 거역한 것이 노여우셔서 서찰까지 보내신 것이라 생각하시게 될테고 필시는 시생을 기용 하실것이라 짐작하여 그리하였오오니 너그러히 선처하여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홍대감이 듣고 보니 주국이 말한 그대로 처신 했음이 사실이었고 틀림없이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놀라 탄성을 냈다. 대감은 그럴테지 그렇고 말고 처음부터 자네의 사람됨이 소일배 같지는 앓았거든 내가 한수껏으니 한잔 내겠네. 그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주국의 벼슬은 정 2품까지 오르고 홍대감의 지극한 신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조로 부터 두터운 총애를 받았다. 오백당(梧柏堂)이란 당호도 대궐 춘당대에서 활쏘기를 할 때 위풍당당한 그의 풍모를 보고 정조께서 친히 내려 준 것이었다. 낙향 후에 우거했던 생가가 용인군 원삼면 문촌리에 전하고 있으며 그의 묘역시 원삼면 문촌리에 전해 오고 있다.

1984 8. 2 원삼면 문촌리
정 영대(67. 세남, 농업)

맹정승과 황의현(黃義軒)

황의현이란 선비가 용인의 누정에서 촌노(村老)를 만난다. 그 앞에서 아는 체를 하다가 노인이 당대에 고명하던 정승임을 알고 기가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결양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훈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삼남으로 통하는 용인현의 객관에는 두개의 누정(樓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맹정승이 상복 차림으로 남행 하다가 용인에 이르렀을 때 소나기가 쏟아졌다. 비를 피하기 위하여 이 중 한 누정에 올라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황의현이라는 선비가 먼저 누정에 올라가서 뒷짐을 지고 현판에 적혀 있는 시를 읊고 있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나자 뒤 돌아보던 황의현이 맹정승을 발견 하고는 영감이 어찌 이 흥취를 알겠오? 하면서 오만방자하게 굴었다. 그러나 맹정승은 짐짓 공경하는 표정을 하면서 공손하게 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시골뜨기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온데 저 글의 뜻이 무엇 이온지요? 황의현은 기고만장하여 이것이 바로 선현들이 눈으로 보고 흥에 겨워 강산의 뛰어난 경치를 묘사한 글로써 알고 보면 마치 시 가운데 산 그림을 보는듯 하오만 글을 보고도 뜻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외다. 이 글의 뜻인 즉 죽장망해 단표자로 / 천리강산 들어가니 / 그 곳에 산은 높고 / 골 또한 깊기만 한데 / 두견접동새만이 / 난잡하게 우는 구나 / 구름은 뭉개뭉개 봉두에 내려 / 낙낙 장송에 서려 있고 / 바람은 살살 불어 시냇가 돌 위에 / 꽃송이만 흐들 흐들 떨어 뜨린다 / 그 곳 경계 절승하여 / 별유천지 비인간이니 놀고 갈까 하노라... 뭐 대개 이런 뜻이오만 하자 맹정승은 허허 그것 참

좋습니다. 선생을 이곳에서 만나뵈지 못했던들 어찌 이렇게 좋은 글귀를 들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을즈음 맹정승이 비를 피하여 누정에 올랐다는 기별을 받은 현감이하 관속등이 우루루 몰려나와 도열하더니 보잘 것 없는 늙은이의 영접이 극진했다.

그때서야 황의현은 낚새가 이상하여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본 즉 이 촌노인이 당대에 이름 높은 맹정승이라는 것이 아닌가? 젊은 선비는 기겁을 하여 꿇어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맹정승은 웃으면서 사람은 귀천에 관계 없이 의지가 가장 소중하오. 선비 한테는 사람을 오만스럽게 대하는 마음이 있었오.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알았는데 조금 전 까지만 해도 그렇게 도도하던 사람이 지금와서는 어찌 이다지도 비굴하다는 말이오 하면서 오히려 위로하여 보냈다. 일국의 재상으로써 이처럼 겸허한 행실을 나타내 보였던 사람이 또 있었겠는가? 요즈음의 목민관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다.

1982 8 14 남사면 원장리
변 결선(79세, 남, 농업)

맹정승과 공당문답

고불(古佛) 맹사성(孟思成) 이 용인의 객주 집에서 젊은 선비와 만나 한 방에서 기거하게 되었을 때 젊은이가 맹정승을 깔보고 호기를 부리던 애기의 한토막이다. 겸양의 미덕을 보여 준 정승의 인품을 생각하게 한다.

고불 맹사성은 세종 때의 명 재상으로써 지극히 청간하고 고결 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고불 맹정승은 고향인 온양에서 한양까지 종자도 거느리지 않고 늘 끼떡소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이 분이 한양을 갈 때에는 성환 지경에서 1박하고 진위현을 거쳐서 용인현에 이르면 하루를 더 묵은 후에 길을 떠나면 서울은 하룻길이 된다.

맹정승이 온양에 내려가서 성묘를 마치고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는 데 땅거미가 질 무렵 용인현에 이르러서 객주를 찾았다. 웬만한 벼슬아치 같았으면 현감을 찾아가 노독을 풀었겠지만 청렴 강직한 이분의 성격으로는 사적인 일로 인해서 관폐나 민폐를 끼칠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맹정승이 객주집에 들기는 했으나 한양이 가깝고 또 과거철이 되어서 그런지 빈방을 잡지 못했다.

이 때 객주집 주인이 상방에 혼자 자리잡고 있는 젊은 선비의 양해를 받아 합숙을 하게 되었다. 맹정승이 방안에 들어서자 먼저 자리 잡은 40여세 남짓한 젊은 친구가 벌렁 드러누워 고개를 뺨쪽들고 쳐다 보더니 행색이 께죄죄한 것을 보더니만 도루 벌렁 눕는다. 맹정

승은 불편을 끼치게 되어 미안하다면서 먼저 인사를 청하자 젊은 친구는 그제서야 일어나 앉으면서 영감두 한양에 가는 길이나고 물었다.

젊은 친구는 자기가 묵고 있는 상방(특실)에 초라한 늙은이가 동숙을 청하는 꼴이 은근히 비위에 거슬렸던지 객기를 부린다. 이렇게 무료하게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야기나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노인에게 일일이 공대 하는 것도 귀찮다는 듯이 말 끝에 ‘공’ 이나 ‘당’ 자를 붙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 되었다.

「노인장은 어디 사는 공?」

「온양 산당」

「온양 사는 양반이 한양엔 왜 가는 공?」

「볼 일 있어 간당. 젊은이는 어디 사는 공?」

「영남 산당」

「한양 가는 공?」

「그렇당」

「한양엔 뭐하러 가는 공?」

「녹사(錄事) 하러 간당」

「녹사? 내가 시켜 줄공?」

「에이 그러지 못할거당」

이렇듯 이야기가 오갔는데 녹사란 대개 관청이나 지체 높은 양반 데서 사나 책사 따위를 이르는 직책이었으나 영남의 이 친구는 일약 한양으로 취직이 되어가는 판인데, 보아하니 별것 아닌 것 같은 백두(白頭)의 늙은이와는 격이 다르다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지위로 벼슬을 하러 간다면 의당 기가 죽어야 하는 일인데도 가 내심 괴썸했다. 그 뿐인가? 한 술 더 떠서 녹사 따위는 아예 흥

머가 없는지 퍼덕퍼덕 이불을 퍼더니 「나 먼저 잔당」하고 벌렁 드리 누워 코를 곤다. 이튿날 맹정승과 젊은이는 한 상에서 조반을 뜨고 각기 헤어져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영남의 젊은이는 조정 어느 참판의 추천을 얻어 영상대 록사 자리를 얻게 되어 있었다.

한편 맹정승은 영남의 아무개가 찾아 왔다는 전갈을 받고 곧 그를 들이도록 했다. 맹정승이 가만히 보니 어제 용인의 객주에서 만난 그 친구였다. 문안을 드리는 젊은이에게 「나를 알아 보겠는 공?」하고 묻자 젊은 친구가 고개를 들고 한동안 쳐다 보더니 사색이 되어 「죽여 주당」하였다. 주위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 했다. 맹정승은 웃으면서 전날 용인에서 있던 이야기를 하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젊은이는 몸둘 바를 몰랐다. 그러나 맹정승은 그를 채용하여 녹사 일을 보게 했으며 가장 충직한 일꾼이 되게 하였다 고 전한다.

맹정승이 묵던 객주는 구흥역이었으므로 지금의 기흥읍 신갈리였을 것이다.

1981. 9. 17 용인읍 김량장리
박 민웅(42세, 남, 사원)

자료제공자 명단

지 역	성 명	연령	성별	직업	주거지
용인읍	김 정 이	56	여		김량장리
"	김 홍 순	작고	여		역북리
"	구 자 역		남	전용인 교육장	김량장리
"	남 상 규	44	남	공무원	김량장리
"	백 민 용	42	"	공무원	김량장리
"	백 민 용	42	"	사 원	김량장리
"	박 종 환	47	"	농 업	남 리
"	송 재 권	44	"	상 업	김량장리
"	안 욱 승		"	교 감	
"	윤 장 현	18	"	학 생	고리리
"	윤 희 열	70	"	농 업	고림리
"	이 경 배	24	"	학 생	김량장리 북구
"	이 상 창	40	"	상 업	역북리
"	이 상 호	44	"	상 업	마평리 657
"	이 윤 순	71	여	농 업	남 리
"	이 일 영			전용인 문화원장	역북리
"	이 종 태	60	남		운학리
"	정 명 길	80	여		고림리 단사
"	정 봉 영	69	남	농 업	역북리 평촌
"	정 양 화	31	남	교 사	김량장리
"	최 희 면	30	"	공무원	운학리
"	홍 종 역	61	"	농 업	김량장리 동구
포곡면	김 상 철	18	남	학 생	둔전리
"	이 영 숙	65	여		신월리

지역	성명	연령	성별	직업	주거지
모현면	김용주모친	52	여	농업	감담리
"	정덕화	80	남	한학자	능원리 총렬서원
"	정일화부친		"	농업	일산리 하마산
"	황호선	70	"	농업	갈담리
이동면	박관택	45	"	농업	서리
"	양옥순	70	여		천리
이동면	함종어씨 친회장				송전리
"	오수영	68	여		서리하반
"	어영구	51	남	농업	천리
"	장재우	18	"	학생	무리용덕사
"	최이용	60	"	농업	덕성리
"	홍성우	51	"	농업	시미리
내사면	권영원	57	"	농업	양지
"	박용익	55	남	농업	식금리
"	신경희	86	여		식금리
외사면	김명환		남	작고	백암리
"	박규환	45	"	농업	백봉리
"	임국재	60	"	전면장	가창리
구성면	홍종길	32	"	교사	중리
수지면	심원빈		"	전수 지면장	풍덕천리
"	이가원		"	전심고 서원장	상현리
기흥읍	이재춘	43	남	농업	영덕리
"	정낙영조모	80	여		영덕리 잔다리
남사면	권오석	56	남	농업	야곡리
"	남정현	60	남	농업	창리

지 역	성 명	연령	성별	직업	주거지
"	변 길 선	79	"	"	완장리
원삼면	김 광 현	45	"	농 업	죽능리
"	김 규 벽	53	"		사암리 내동
"	김 수 용	60	"	농 업	두창리
"	오 진 영	51	여	농 업	죽능1 리 어현
"	오 희 영	66			고당리
"	미평리반장	51	남	농 업	미평리 입구
"	이 을 순	82	여		맹리맹골
"	정 영 대	67	남	농 업	문촌리
"	허 숙	60	"	농 업	맹 리
"	허씨 노인	64	"	"	맹리 양천

※ 위의 제반 사항은 채록 당시의 상황임

문화원 임원 명단

문화원장 : 김정근 이 사 장 : 이학린
 부 원 장 : 김학노 이 사 : 이대영, 조광수, 박용익,
 사무국장 : 박민웅, 강명운, 이영우, 박재성
 총 무 : 정동근 심현옥, 채준목, 김익래
 김종학

향토문화연구위원

이인영, 홍순석, 정양화, 김종두

문예진흥위원

김동해, 이강수, 최희면, 박종용
 박상돈, 김수호, 안종식, 이원석
 정규현, 김운향, 오민근